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

총괄책임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원 : 이수정(무지개청소년센터 · 부소장)

공동연구원 : 김현아(열린사이버대학교 · 교수)

원재연(연세대학교 · 교수)

윤상석(무지개청소년센터 · 사업1팀장)

연구보조원 : 강희석(무지개청소년센터 · 사업1팀원)

함세정(무지개청소년센터 · 사업1팀원)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대상 및 방법	9
1) 연구대상	9
2) 연구방법	13
4. 보고서의 구성	20
II. 이론적 배경	25
1. 지구화 시대의 이주	25
1) 지구화에 대한 개념정리	25
2) 이주의 유형	30
3)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33
2. 이주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생애전략	36
1) 이주민/난민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36
2) 이주민/난민 청소년들의 협상과 전략	40
3. 선행연구 고찰	41
1)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관련 연구	41
2)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관련 연구	45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관련 연구	50
III.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관련 정책	55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착 현황	55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탈북 배경과 국내 입국 과정	55
2) 인구학적 특성 및 정착 현황	57
2.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법령 및 정책	62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62
2)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과 문제점	66

IV. 학교 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제와 통합 기제	73
1. 배제 기제	73
1) 입시위주 교육 풍토와 체계적 학습지원 시스템의 부재	74
2) 연령중심 문화와 학력 위주의 편입정책 사이의 괴리	76
3) 문화자본의 부족	79
4) 경제적 취약성	81
5) 정보 부족	81
6) 북한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 정체성 공개의 어려움과 비공개에 대한 불안함	83
2. 통합 기제	87
1) 교사의 지원 (정규학교내부/외부 선생님 모두 포함)	87
2) 또래들 사이의 지지집단: 교우, 친구, 기획단 등	90
3) 부모/가족	91
V. 북한이탈 중고등학생의 진로탐색 전략	95
1. 학교의 의미	95
1) 졸업장(학력)	95
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주류문화의 습득 장	98
3)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	100
2. 진로탐색 전략	101
1) 입시위주의 문화와 협상하기	101
2) 연령 중심의 문화와 협상하기	111
3)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117
4) 자원 동원 전략	120
VI.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전략	127
1. 학교의 의미	127
1) 사회적 성취의 관문	127
2) 사회적 네트워크의 장	129
3) 직업능력 개발의 장	131
4) 또래 문화 경험의 장	132
2.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전략	134

1) 경쟁문화에서 살아남기-학습문화 자본의 부족 극복하기	134
2) 정보에서의 배제와 협상하기	144
3)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147
4) 자원 부족에 대한 전략	151
5) 대학생활과 일 경험	155
VII. 북한이탈 청소년이 바라본 한국사회	163
1. 성적위주의 학교문화	163
2.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지원방식과 태도	164
3. 배타적이며 닫혀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165
4. “정”이 없는 사회	166
5. 남한사회 청소년들의 이기주의/가정교육	166
6.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결핍 혹은 미성숙	167
7. 폭력적인 학교 문화	168
8. 중심과 주변의 서열적인 이분화	169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173
1. 결론	173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과 관련 정책	173
2)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향적 특성	173
3) 정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174
진로탐색 경험	
4) 대학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전략	175
5)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바라 본	175
한국사회	
2. 정책제언	176
1)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의 기본 방향	176
2)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방안	178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모색 기제 마련	182
참 고 문 헌	189

표 목차

<표 I -1> 연구대상자 특성	11
<표 I -2> 중·고등학생 기초정보	12
<표 I -3> 대학생 기초정보	13
<표 I -4> 당사자 연구원 기초정보	13
<표Ⅲ-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58
<표Ⅲ-2>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59
<표Ⅲ-3>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59
<표Ⅲ-4> 북한이탈학생 재학 현황	60
<표Ⅲ-5> 북한이탈학생 지역별 재학 현황	61
<표Ⅲ-6> 북한이탈 청소년 일반학교 중도탈락 현황	61
<표Ⅲ-7> 북한이탈 대학생 현황	62
<표Ⅲ-8> 시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63
<표Ⅲ-9> 정착지원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요	6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0년대 중반 기근과 경제난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북한사회 이탈 현상은 최근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불신과 생활개선예의 욕망 등 탈북 이유가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등 제 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¹⁾ 수도 급증하여 2008년 2월 현재 총 12,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단위 입국이 많아지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20%안팎이고, 남한 사회 전체 초·중·고·대학생 수 1,000여 만 명 대비 0.001%도 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정책 및 교육정책 양자에 있어 최근까지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영유아기의 영양결핍으로 신체발육 부진, 북한 학교교육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교육적 소외, 북한 경제적 상황에 의한 기근 등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중국 및 제 3국을 유랑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난을 겪고, 남한에 와서는 아무런 문화적/경제적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경쟁체제에 던져져 심각한 ‘부적응’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길은배, 2002; 길은배 외, 2003; 김미숙, 2004; 백혜정 외, 2006; 정병호 외, 2007).

이들의 ‘부적응’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는 제도권 학교 취학률이다. 실재, 2007년 4월 현재,

1)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떠나 한국사회로 입국한 북한출신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자유북한인’, ‘새터민’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며, 따라서 청소년층은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표기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중고 취학률은 각각 68.7%, 58%로, 각각 99.7%, 82.1%인 남한 청소년 평균 취학률에 비해 아주 낮다. 중도탈락률도 높아 2007년의 경우 초등학생의 3.5%, 중학생의 12.9%, 고등학생 중 28.1%가 학교를 중도 포기했고, 이는 2005년 남한 중학교 평균 탈락률 0.8%, 고등학교 1.4% 대비 10~20배에 달한다. 이러한 숫자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강조하며 이들을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니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부적응자’이자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미완의, 부적절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부적응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기존의 사회문화체계를 상수로 두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일방적 적응을 강조하는 이른바 ‘문화결핍’의 입장에서만 바라봄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진웅, 2004; 2006).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수동적이고 단일한 집단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하면서 적응지원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대안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사와 경험, 사회·경제·문화적 위치,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전략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른 배움과 길찾기의 유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갖고 생애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단순히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난민’성격의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의 정보를 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한으로 온 '이주민' 성격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처럼 다양화되고 있는 이들의 유형에 주목하면서 북한 이탈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실태, 그리고 진로탐색의 과정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즉, 이들이 사회·경제·문화적 상황, 개인의 역사별로 다양한 경험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연구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다양한 적응과정과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현재 남한의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남한에서의 중고교 정규학교 취학은, 남한 사회의 대부분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선택' 사항이다.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과 문화가 다른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경직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고,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의 대안학교 등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재외국민 대학입학특례제도를 통해 수능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억압적이고 답답한 정규 중고교학교보다는 대안교육기관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얻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남한에서 정규 중고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다음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대학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 대학생으로서의 겪는 문제와 진로탐색의 유형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는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선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러한 '선택'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배제'와 '갈등' 그리고 '협상'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남한의 '학교'라는 공간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 어떤 제약과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북

한이탈 청소년들의 행위자적 측면, 즉 다양한 구조적 제약을 간파하고 나름의 협상전략을 만들어 내어 진로탐색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측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사회를 겪으면서 성장해 온 이들의 특수한 성장경로를 고려한 가운데, 즉 ‘삶의 연속성’ 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으로의 이주 과정 및 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여 나름의 진로를 모색해 왔고 또 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남한의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다양한 구조적 제약 및 기회와 역동적으로 관계 맺고 이를 의미화 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청소년들의 욕구와 상황에 알맞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펼침으로써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안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포함하여 남한의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의 유형과 진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이들을 우리사회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실질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분리적인 학교의 설립이나 예외적인 지원과 정책보다는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제도시스템을 개선, 확장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포용할 사회적, 제도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을 두고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규학교(중·고·대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및 특성을 경향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 이들 청소년들의 배움과 길찾기, 즉 진로탐색의 경험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다.

- 이들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여 앞으로의 정책입안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한다.
-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여러 유형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구체적 성장경로에 기반하고 다양성이 담보되는 효과적인 종합 대책 수립에 이바지한다.

2. 연구 내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포괄한다.

□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

35명의 정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인구학적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학학교 등) 및 각종 환경적 특성(입국 시기, 재북시 가정환경, 제3국 체류 기간, 학령과 연령 차이 등)을 파악해 본다. 질적 연구 대상 규모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규학교 재학생들의 특성을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 특성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배움과 길찾기 경험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배움과 길찾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들의 개인적인 경험의 특수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과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해 나가는지 알아

본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 또는 진로탐색의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대안교육기관이나 검정고시가 아닌 일반 정규“학교”를 선택하고 남아 있는 동기를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의 관련성 속에서 알아본다.
- 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주류의 가치관 및 환경과 협상하면서 자신의 삶과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과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바라 본 한국사회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배제와 대응의 과정에서 바라 본 학교와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석한다. 이들의 시선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제시함으로써 학교를 비롯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문화, 이주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과 관련 정책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탈북배경 및 입국과정, 입국 추세, 인구학적 특성 및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 정책 제언

연구결과의 분석에 바탕을 두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생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한국사회에서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지를 장기적인 전망에서 고찰해 보고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인 북한이탈 청소년은 연구보조역할로 참여한 두 명의 ‘당사자 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35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3명, 여성이 12명이며 취학 단계별로 분류하면 중학생은 9명, 고등학생은 11명, 대학생은 15명이다. 이들은 지금 현재,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그 이전 교육적 경로 등 개인적, 가족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한편, 대학생들의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 정규 중, 고등학교를 경험하기도 하고,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등 비정규적인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경험의 다양성은 현재 대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 참여한 35명의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이라는 아주 독특한 경계를 넘은 이주/난민 청소년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등의 차원에서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경로”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드러내지만 이들의 경험과 각자의 삶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소개되는 이들의 경험과 해석은 정규학교 재학 중인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을 나타내는 일반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향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걸쳐 남한으로 이주해 왔으며 현거주지는 서울(21), 경기권(11)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2명은 지방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서울로 이주해 왔고, 그 외 영남과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2명, 1명이다. 연령은 16세에서 27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입국당시의 나이는 9세에서 24세였다. 북한에 있을 때의 가정형편은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청소년도 2명이 있다. 기근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교원, 공무원, 예술가, 의료계 종사자 등 지식인 가정 출신도 7명이며 정치적 문제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최소한 10여명은 상당한 정도의 문화자본을 한때나마 가졌던 가정 출신이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중국 등 제 3국 체류기간도 다양하다. 북한을 떠나 중국이나 제3국을 들러 한두 달 안에 바로 입국한 경우가 7명인 반면, 7년이 걸린 경우가 4명, 9년씩 걸린 경우도 1명이 있다. 제3국 평균체류기간은 30개월이었다.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도 소학교도 다니지 못한 경우부터 대학을 졸업한 경우까지 다양하며 중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5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다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을 이탈하였다고 얘기하였으나 가족문제, 정치적 이유 등의 이유를 보태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처음부터 남한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북한을 떠나왔다고 말한 경우도 상당수여서 탈북의 동기가 점점 더 복잡적이며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특히 부모 중 1인이 먼저 와서 자녀를 불러 온 경우 가족 재결합의 의미도 있지만 세대 간 계층이동의 욕구 또한 있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연고 4명과 한국 가정에 입양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족 중 일부와 함께 혹은 가족이 순차적으로 입국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혈연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는 11 경우에 불과하고 아주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 중 주요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대상자들의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탈북동기는 단일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적이거나 계속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탈북 시기에 아동·청소년기를 거치고 있었던 연구대상들이 주체적으로 탈북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당사자연구원 포함)	전체
성별	남 13명 여 7명	남 10명 여 5명	남 23명 여 12명
나이	16세 4명 17세 2명 18세 6명 19세 4명 20세 3명 25세 1명	21세 4명 23세 1명 24세 4명 25세 4명 26세 1명 27세 1명	16세 4명 17세 2명 18세 6명 19세 4명 20세 3명 21세 4명 23세 1명 24세 4명 25세 5명 26세 1명 27세 1명
거주지	서울 8명 경기권 11명 강원권 1명	서울 13명 영남권 2명	서울 21명 경기권 11명 영남권 2명 강원권 1명
제3국 체류 기간	1년 이하 12명 4~5년 2명 6~7년 5명 9년 1명	1년 이하 9명 2~3년 3명 6~7년 3명	1년 이하 21명 2~3년 3명 4~5년 2명 6~7년 8명 9년 1명
입국 년도 (한국 체류 기간)	2001년 1명 2002년 2명 2003년 3명 2004년 9명 2005년 1명 2006년 3명 2007년 1명	2001년 2명 2002년 3명 2003년 5명 2004년 4명 2005년 1명	2001년(7년) 3명 2002년(6년) 5명 2003년(5년) 8명 2004년(4년)13명 2005년(3년) 2명 2006년(2년) 3명 2007년(1년) 1명
북한 수학 기간	무학 8명 소학교 중퇴 6명 소학교 졸업 2명 중학교 1~3년 4명	무학 1명 소 졸업 1명 중 1~3년 6명 중 4~6년 미만 3명 중졸 4명	무학 9명 소 중퇴 6명 소 졸업 3명 중 1~3년 10명 중 4~6년 미만 3명 중졸 4명

구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당사자연구원 포함)	전체
현재 학년	중2 1명 중3 8명 고1 9명 고2 1명 고3 1명	대1 4명 대2 6명 대3 5명	중2 1명 중3 8명 고1 9명 고2 1명 고3 1명 대1 4명 대2 6명 대3 5명
현재 가족 관계	혈연 부모 모두 (+ 가족) 6명 부 혹은 모 (+ 가족) 13명 부모 외 가족 1명	무연고 4명 혈연 부모 모두 (+ 가족) 5명 부 혹은 모 (+ 가족) 4명 부모 외 가족 2명	무연고 4명 혈연 부모 모두 (+ 가족) 11명 부 혹은 모 (+ 가족) 17명 부모 외 가족 3명

연구 대상자 각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표 I-2>, <표 I-3>, <표 I-4>와 같다.

<표 I-2> 중·고등학생 기초정보

연번	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재학 학년	연번	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재학 학년
1	A-1	남	18	경기	중 3	11	D-5	여	18	경기	중3
2	A-2	여	16	서울	중 3	12	D-7	여	17	서울	중3
3	B-1	남	18	서울	고 1	13	D-9	남	19	경기	중3
4	B-2	남	18	서울	고 1	14	E-1	남	18	경기	고1
5	B-3	남	20	서울	고 2	15	E-2	남	19	경기	고1
6	B-4	남	19	경기	고 1	16	E-3	남	20	경기	고1
7	D-1	여	16	서울	중 3	17	E-4	남	19	경기	고1
8	D-2	여	17	경기	중 3	18	E-5	남	25	강원	고3
9	D-3	남	16	경기	중 2	19	E-6	남	20	경기	고1
10	D-4	여	16	경기	중 3	20	E-7	여	18	서울	고1

<표 1 -3> 대학생 기초정보

연번	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재학 학년	연번	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재학 학년
1	C-1	남	27	서울	대 3	8	F-3	남	25	서울	대2
2	C-2	남	21	서울	대 1	9	F-4	남	26	영남	대3
3	C-3	여	21	서울	대 2	10	F-5	남	24	서울	대2
4	C-4	여	25	서울	대 2	11	F-6	여	24	영남	대2
5	C-5	남	25	서울	대 1	12	F-7	남	23	서울	대3
6	F-1	남	24	서울	대 3	13	F-8	남	24	서울	대2
7	F-2	남	21	서울	대 1						

<표 1 -4> 당사자 연구원 기초정보

연번	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재학 학년	연번	번호	성별	나이	거주지	재학 학년
1	연구원 A	여	21	서울	대1	2	연구원 B	여	25	서울	대3

2) 연구방법

이 연구에는 문헌연구, 패널토론, 심층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등의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연구진 중심의 문헌연구와 토론을 통해 연구문제와 범주를 결정한 후,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및 특성, 욕구 등을 이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토론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문헌연구

몇 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 등을 고찰하여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형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고, 국내외 난민·이주청소년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좀 더 넓

은 맥락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전문가 워크숍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들과의 공식·비공식적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워크숍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및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장교사 및 지원활동가들을 초대하여 이루어졌으며, 1) 지원활동가의 입장에서 파악한 정규교육과정 내의 북한 이탈주민청소년들의 현황과 교육 및 진로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 2) 패널토론 및 면접 참여자 선정과정에서의 유의점에 대한 조언과 주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섭외, 3) 인터뷰 결과해석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당사자 연구자 위촉 및 연구 참여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2인을 당사자 연구자로 위촉하여, 이들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연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정규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입학하였고 또 한 명은 중3을 거쳐 고등학교 진학 후 고2 때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경우로, 연구에 ‘북한이탈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각이 하나가 아님을 - 즉, 처지와 역사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 연구진에게 상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또한 일부 패널토론에 연구진 겸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패널토론의 분위기를 친근하고 부드러운 환경으로 만드는 데도 기여하였다.

□ 패널토론

문헌연구,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파악한 정규학교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유형 및 특징(가족상황별, 성별, 연령대별/각급학교별, 거주 지역별, 입국시기별 등)을 기초로 패널토론 및 면접 대상자 군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후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군의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참가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또래의 북한이탈 청소년 2-4명이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주체의 주요 항목들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중학생 그룹 1회 (2명), 고등학생 2회(각각 2명), 대학생(학교 밖 대입준비생 포함) 2회(각각 3명)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회 3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패널토론 일부는 연구자들의 질문에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답변을 하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다수는 서로의 얘기에 코멘트를 하며 이야기가 이어지는 다이내믹한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청소년들이 수동적인 ‘증언자’가 아닌 적극적인 ‘의견 개진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상황을 가져왔고 연구자들에게는 미리 준비치 않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키거나 토론 참가자들의 논의 의도나 맥락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면접

패널토론에 이어 22명의 청소년을 면접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다수는 남한 입국 후 행정 관료부터 다양한 전공의 학자까지 이들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면접 요구에 직면하고 또 실제 면접에 응하게 된다. 이러한 면접 과정에서 이들은 때로는 회상하기 싫은 힘든 경험을 포함한 동일내용을 반복해서 ‘증언’하게 되고 또 이러한 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져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곤 한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이미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연구진 혹은 활동가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면접 후보자를 컨택하였고 실제 면접자가 되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특성별로 표집군을 구성하여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한 후,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하여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대개 2-3시간에 걸친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접은 면접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 문항을 숙지한 후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적인 인적사항보다는 학생들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 및 미래의 계획에 대한 해석을 듣는 것에 집중되

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처지에 처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면접자들이 면접 대상자들의 역사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능한 방법이기도 했는데, 이는 면접 상황을 좀 더 자연스럽게 덜 위협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면접자들과 면접 참가 학생들 간의 개인적인 친밀성과 신뢰가 이번 연구를 가능하게 한 전제이자 밀도 있는 면접의 바탕이기도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상황을 산만하게 만들거나 ‘서로 너무 잘 아는’내용이나 개인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면접자가 질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면접자와 대상자의 관계에 따른 이러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³⁾

면접 내용은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전문 녹취되었다. 연구자들은 녹취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각자 맡은 주제어에 대한 코딩 및 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를 전체 워크숍을 통해 토론하여 공유한 후 집필하였다.

□ 질문의 기본 내용

패널토론 및 심층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적 연구의 특성상 토론 및 면접 과정에서의 상황 및 맥락, 대상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나,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⁴⁾

3)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중복연구의 폐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비슷비슷한 연구주체의 정부 부처별/학계별 남발은, 그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연구대상’으로 타자화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이들을 주변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역시 불편한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연구를 발주하는 기관이나 연구진 모두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결과물을 공유하여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문제의식 하에서 꼭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때에도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의식이 필수적이다.

4)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배경에 관한 내용은 질문하기보다, 면담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추후 정리하였다.

○ 중고등학생

- 전체 일상

하루 일과(아르바이트,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의 경험, 방과 후, 교회)

요즘 고민, 제일 기분 좋을 때, 제일 화날 때

고민해결 방법

가족생활

- 교육 경험 관련

하나원 교육 경험

남쪽에서의 교육 경로

정규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

지금 학교 경험(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

남북 교육과정, 내용 차이(과목 내용, 체벌 등에 대한 생각)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그 이유

학교에서 차이(문화, 나이 등)를 협상하는 방식

북한관련 과목, 북한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 등에 대해 느끼는 것

학교 내 특별지원 경험 및 평가

꼭 있었으면 하는 도움의 내용

오늘 남쪽에 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교육기관, 방식 등)

학교 이탈 경험의 경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 진로 선택 관련

미래 희망과 그 이유, 진로 관련 준비활동

역할 모델

가장 가까운 지지자 및 기관(상담자 등)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

진로탐색 정보수집원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
실업계의 경우 실습경험
대학진학 관련된 질문들 (전공)

- 북한이탈 청소년으로서 자기 인식과 대응 전략
남쪽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강점, 약점
내가 알고 있는 북한출신 친구들의 생활, 재학상황, 특징
북에서 온 친구들과 관계유지 정도(가장 친한 친구)
초기에 힘들었던 점과 극복노력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비공개 된 과정, 이유
중학교 때의 나와, 고등학교 때 나의 달라진 점
- 기타
이성 관계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 대학생

- 전체 일상
하루 일과(아르바이트,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의 경험, 방과후, 교회)
요즘 고민, 제일 기분 좋을 때, 제일 화날 때
고민해결 방법
가족생활
- 교육 경험 관련
하나원 교육 경험
남쪽에서의 교육 경로

대학, 전공 선택 및 입학과정
 지금 학교 경험
 동아리, 축제, 미팅 등 대학 생활
 경제 상황(아르바이트, 학비조달방법 등)
 토론, 세미나 등 조별 공부 방식에 대한 느낌
 자신의 공부 방식 및 노하우
 남북 교육과정, 내용 차이(과목 내용, 체벌 등에 대한 생각)
 입시(야자, 학원 등)에 대한 생각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그 이유
 학교에서 차이(문화, 나이 등) 협상하는 방식
 북한관련 과목, 북한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 등에 대해 느끼는 것
 학교 내 특별지원 경험 및 평가
 꼭 있었으면 하는 도움의 내용
 오늘 남쪽에 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교육기관, 방식 등)
 학교 이탈 경험의 경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휴학 경험

- 진로 선택 관련

미래 희망과 그 이유, 진로 관련 준비활동
 취업 준비
 가족관, 배우자 상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이 지금 학교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남한 입국 후 외국 경험
 역할 모델
 가장 가까운 지지자 및 기관(상담자 등)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
 진로탐색 정보수집원

- 북한이탈 청소년으로서 자기 인식과 대응 전략
 - 남쪽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강점, 약점
 - 내가 알고 있는 새터민 친구들의 생활, 재학상황, 특징
 - 북에서 온 친구들과 관계유지 정도(가장 친한 친구)
 - 초기에 힘들었던 점과 극복노력
 - 중학교 때의 나와, 고등학교 때 나의 달라진 점
 -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비공개 된 과정, 이유
 - 남북 사회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기타
 - 이성 관계
 -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여덟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내용,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을 개괄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지구화 시대의 이주, 이주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생애전략, 선행 연구 검토의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제 3장은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제 4장은 북한이탈 청소년 35명에 대한 인터뷰와 패널토론을 바탕으로 이들이 겪은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소개한다. 제5, 6장은 각각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배움과 길찾기의 과정을 북한이탈 청소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 7장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배움과 길찾기의 과정에서 간파한 한국사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 8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함의를 제시한다.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데에는 기꺼이 동의하

면서도 구체적인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많은 연구 대상자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이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름 및 재학 중인 학교는 가명처리 하였고 거주지도 광역권으로 묶었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지구화 시대의 이주
2. 이주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생애전략
3. 선행연구 고찰

II. 이론적 배경

1. 지구화 시대의 이주

1) 지구화에 대한 개념정리

지구화(globalization)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구화 개념은 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구화라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개인 행위자들의 반응 양상을 “이주”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북한이탈주민 또한 지구화 시대의 이주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세계화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금융자본의 변화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행위자들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떠나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지구화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정책들이 갖고 있는 효율성을 약화시켜 많은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탐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글로벌” 시대로 진입되었다고 한다. 물론 “글로벌” 시대로 진입된 것은, 단순히 외국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과거의 국제화가 다분히 국제간의 무역(International Trade)과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였다면, 현재의 “글로벌”화는 이를 넘어선, 자본, 노동력, 정보, 과학기술,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역동적인 흐름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의 글로벌한 세계경제의 특징이 과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질적 변화라고 주장하는 학자군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세계경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적 경제의 또 다른 재생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기든스(2003)는 지구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회의론자, 초세계화론자, 변형론자의 세 부류로 나눈다. 먼저 회의론자는 지구화에

대한 견해들이 지나치게 앞서간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흐름은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현재의 지구화는 국가 간 상호교류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초세계론자들은 지구화가 국경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역과 생산의 흐름으로 새로운 지구적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변화는 새로운 ‘전지구적 시대’의 시작인 것이다. 변형론자들은 이 두 가지 시각 중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 지구화를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광범위한 변화의 배후에 있는 중심적인 힘으로 보지만, 과거의 많은 유형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시간적 지역적 한계를 넘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그 이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혹자는 이러한 글로벌화의 배후에는 국경을 넘어 지구를 거대한 동일 시장으로 엮어내고자 하며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하비, 2005).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국민국가에 의해서 제한 받았던 이동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속속들이 편입되면서 세계는 ‘평평해졌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프리드먼, 2000). 이는 글로벌화가 세계에 분산되었던 행위자들을 인터넷, 미디어, 이메일 등의 컴퓨터정보산업의 발달로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세계질서를 가져오리라는 다분히 낙관적인 주장이다. 즉 과거의 세계경제가 가졌던 자본/노동의 위계성에 비하면, 탈근대적/탈산업적/탈사회주의적인 변화는 *global web*이라는 보다 균등한 위치에서 행위자들의 만남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글로벌화가 실제로는 “평평해”진 질서가 아니라 보다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가져오리라고 주장한다. 글로벌화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논리의 배후에는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신자유화라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자로는 산업자본영역에서 NIKE와 같은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 서비스영역에서 Wal-Mart와 같은 다국적 유통업체, 또한 현재의 금융, 펀드, 주식시장을 주

도하는 금융자본들이 있다.

특히 보나시치(Bonacich et al, 1994)는 지구화에 따른 노동과 생산과정의 탈국가화와 위계화를 지적하며, 노동의 국제적 분업구조를 지구화라고 바라본다. 지구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인 계급양극화가 초국가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NIKE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제3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지구화과정은 저발전 국가의 노동을 발전국가의 자본의 논리에 따라 훈육하게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지구화 자체가 절대로 “평평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교묘하게 재생산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본의 이동의 양면은 저발전국가에서 발전국가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의 이동들이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화, 자유화, 사영역화의 지구화과정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동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역설이 있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바탕으로 한 지구화는 우리의 다양한 영역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지구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는 기든스와 하비를 들 수 있다.

기든스는 지구화를 모더니티의 가장 두드러진 확장이자 결과로 접근한다. 지구화에 의해 사회적 관계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시공간의 거리화(time-space distanciation)로 설명하고 있다. 기든스가 지구화를 모더니티의 고도화와 연속으로 이해하는 것만큼 이 개념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공간의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개인이 살고 있는 국지적 장소인 place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space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 둘은 거의 일치하였으나, 근대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민국가의 출현,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 등은 이러한 place와 space를 분리시키게 되었고, 특히 전지구적 생산과 교환 체제의 변화 및 미디어의 발달이 급속도로 space를 확장시켰고, 그에 따라 세계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작은 일, 정책 등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일상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지적 장소의 조

건과 환경은 전보다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는 장소 귀속을 탈피의 결과로 이어진다.

기든스가 시공간의 분리와 장소귀속성 탈피로 설명했다면, 하비의 경우에는 시공간의 압축 (time-space compression)으로 전지구화를 설명한다 (하비, 1994). 그는 이러한 ‘압축’이 느리게 진행되는 단일한 통합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서양의 모더니티’의 확장은 어떤 시기보다 전 지구를 동질한 시스템과 시장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가속화된 시공간의 분리와 장소귀속성 탈피, 시공간의 압축은 새로운 풍광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은 전지구적 동질성과 함께 불일치와 어긋남 또한 만들어 내고 있다.

지구화에 추동력이 높아진 이동과 그것에 의한 일상적 삶의 변화 그리고 동질성과 어긋남들을 아룬 아파두라이는 주목하고 있다. 아파두라이 (Appadurai, 1996)는 전지구적 이동과 확장 그리고 변화를 5가지의 풍광 (scape) - 사람들의 풍광 ethno scape, 미디어 풍광 media scape, 이데아의 풍광 idea scape, 테크노 풍광 techno scape, 금융자본의 풍광 finance scape - 로 해석한다.

이러한 풍광들은 서로 겹쳐지면서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데 금융자본의 풍광과 사람들의 풍광이 겹쳐지는 그 지점을 이 연구에서는 주요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글로벌 자본의 이동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노동력/노동시장의 지점에서 그것을 매개하는 ‘유동’의 현장으로 삼는다. 그는 고정되고 공간적으로 경계 지워진 의미를 내포하는 지역성 (locality) 대신에 동네이웃 (neighborhood)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동네이웃은 상상된 동질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허구적 지역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성과 사회적 재생산의 가능성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실존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웃동네의 실존성이 그것의 견고함이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끊임없이 전지구적 탈구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다섯 풍광들 중 ethno scape의 개념에 닿아있는 이웃동네의 개념은 유동하는 행위자들과 이미지의 가변성, 국민국가의 지역성으로 인해 창출되

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다른 맥락과 의미들을 생산한다.

사스키아 사센(Sassen, 1998)은 이러한 글로벌 자본주의와 그에 의한 글로벌 시티의 형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적 노동력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기존의 도시학자들이 주장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압축적 ‘근대’ 도시는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비판하면서, 초국적 금융자본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도시는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시티’로 거듭나면서 글로벌 자본과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기획하는 형태로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글로벌 시티의 네트워크에 속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들은 쇠퇴하거나 기존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 초국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관할하는 글로벌 시티들에는 새로운 노동력/노동시장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사센은 회로circuit으로 표현한다. 아파두라이 식의 표현을 빌자면, 테크노의 풍광과 금융자본의 풍광을 타고 그것을 기획하며 집행하는 지식으로 무장한 글로벌 엘리트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평평한’ 지구를 이동하는 상층회로 (served class)와 흔히 ‘이주노동자’로 불리면서 그 사회의 임금 체제로는 더 이상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노동 집약적 산업 혹은 3D 업종에 종사하거나, 가정부에서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재생산 영역 등을 담당하는 하위회로(혹은 serving class)가 그 글로벌 노동 흐름의 두 가지 회로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가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연구에 관련하여 지구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1989년부터 지속된 구소련과 동구권의 탈사회주의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부터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시발되어 그 영향이 중국 및 베트남까지 미친 탈사회주의화 과정은 냉전시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편입하는 것을 기여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한국은 1992년 중국수교를 이루게 되었다.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을 중간 기착지로 하여 남한사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1992년에 시작된 한국과 중국사이의 외교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이다. 1989년 동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정치변화, 1991년의 구소련의 붕괴는 지구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구소련의 몰락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그 외 발트 해 국가들,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과거의 소비에트 블록의 국가들이 시장화, 사영화, 상품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국가들은 전지구적인 시장공동체에 편입되었으며, 안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기간 존재했던 자본주의/사회주의 두 진영의 대립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한반도는 탈냉전 시기 유일하게 냉전과 분단을 경험하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구소련 및 동구권의 탈사회주의과정으로 말미암아 북한사회로서는 경제, 군사, 식량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손실을 겪게 된다.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절, 배급에 기반을 둔 계획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서구의 도우에 손을 내밀게 된다.

2) 이주의 유형

앞서 지구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동은 초국가적 이주 (transnational migration)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설명틀은 배출-흡인 (pull-push theory)이다. 배출-흡인이론 (Massey et al, 1993)에 따르면 개인 혹은 가족의 이주는 두 지역 간의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에 대한 사적인 해결책으로 이주가 선택되면서 일어난다. 국제이주 노동의 원인을 지적하는 이 이론은 이주가 발생하는 본국에서 이주자들을 내보내는 요인들과 유입국에서 이주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며, 특히 이주가 유입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 때문에 발행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 (migrant workers), 이민노동자 (immigrant workers), 초빙노동자 (guest workers), 단기노동자 (temporary workers), 계약노동자 (contract workers), 혹은 이방인 노동자 (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이주의 원인을 남성 이주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중

심으로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이주가 지니는 특수성들은 간과되어 왔다 (김현미, 2005). 경험적으로 이주자 혹은 이주노동자 중에 이주여성이라고 범주화하는 집단의 여성비율이 남성을 능가하고 있어서 이른바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주의 여성화는 단순한 양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국가 간 이주에 있어 남편을 따라 이주한다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돌봄 노동”이라고 불리는 가사, 육아, 간병과 성관련 노동을 위한 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페서 (Pessar and Mahler, 2001)는 기존의 연구 속에서 여성의 이주가 남성의 이주에 종속되어 있거나 남성의 이주와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젠더가 여성의 이주 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종종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화된 구조나 제도 혹은 사회적 관계의 일방적인 영향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전지구적인 여성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주가 일어나는 정치경제적 계기들을 밝히면서, 이주과정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문화적 해석이 성별화된 위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주어야 한다. 유사하게 조안 스캇 (Scott, 2001)은 젠더가 과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계로 설명될 경우, 성별화된 관계를 오히려 변하지 않고 견고한 것으로 그려낼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지는 여성이주의 증가는 부유한 국가에서 가사서비스업, 성산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저임금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결혼이주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1996년 국제자유노동조연맹 보고서에서는 빈곤선 이하에 사는 전 세계 12억 인구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체 여성의 60%인 5억 7천만여 명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다고 알렸다. 이러한 저개발 국가 여성들이 겪는 빈곤은 민족, 계급, 성정체성이 중층적으로 결정되면서 복잡한 양상

을 띠게 되며, 여성들의 빈곤은 교육과 능력 개발 기회의 박탈에서 출발하여 노동 시장 내에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다. 이들은 생활과 생존을 위하여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감행한다.

앞서 언급한 사센(Sassen, 1998; 2000)은 자본과 노동의 지구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주의 여성화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설비는 생산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대신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금융의 중심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고임금의 전문직들이 대도시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 이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른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저임금 여성 서비스노동자의 수요가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면서 ‘노동이주의 여성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는 빈곤 여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안전망이나 노동기회가 부재하며, 자본이 이동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이 지역 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성산업과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노동을 하는 여성 하층서비스계급과 이들을 고용하는 부유층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사노동자의 이주로 인해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고 그 문화적 차이들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담론들이 구성된다. 이때 이주노동자가 담지하는 인종적, 민족적 차이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노동의 특성과 결합하여 이들의 문화를 전근대의 과거의 것으로 해석하면서 근대화의 정도 차에 따라서 고용주와 사이의 젠더적, 계급적인 위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호쉬차일드 (2003)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인 친밀성의 표현방식이 고용주의 가정에서 이들의 문화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의해 구성되면서 친밀성에 대한 ‘문화적 가치’들이 생산되고, 이것이 상품으로 교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전지구적인 가사노동자들의 이주가 만들어내는 친밀성의 상업화가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되는 지점이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이 현장에서 규율되고 숙련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들의 젠더적,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이 여성 하층서비스 계급으로 구성된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로 외국인 입주 가정부를 들 수 있다.

물론 이주는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하층 서비스 계급이외에도 고학력, 다문화, 다언어를 구사하는 새로운 상징분석가들의 이주도 있다 (Reich, 1991) 다국적 기업의 CEO, 펀드매니저, 국제변호사, 디자이너 등의 문제해결의 능력, 정보,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상층 상징적 분석가들이 그들이다.

3)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단순한 노동력의 이동, 혹은 이주 이외에도 이산민 (diasporas)의 성격을 가진다. 이산민이라는 용어는 타지에 유랑하지만 고향을 그리는 이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상징하는데, 고향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의미에서 치환된 (displaced) 집단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고향을 잃은 유대인공동체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던 이 개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향을 회구하는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공통적인 기억과 신화를 공유하는 강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주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둔 이주민 (migrants)이라는 개념은 그 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이산민 (diasporas) 개념은 삶의 여정 안에서 이주, 정주하고, 타지에 뿌리내리면서도 유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외지인이나 이주노동자로 바라보는 어렵다. 이들에게 ‘외지인’이라는 입장을 부여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문자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게 된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을 ‘미수복지역’이라고 칭하며 북한 정부의 독자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합헌적인 판시를 거듭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역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는 다분히 혈통, 혈연적인 국민/시민권 개념으로 중국에서 출생하거나, 중국인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완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이라는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이주의 목적이 노동이라기보다는 정착 혹은 전향이라는 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인 ‘귀향권’의 결여로 말미암아 남한사회의 입국은 북한사회에서의 경험을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사회주의사회의 경험을 버리고 자본주의사회로의 귀순 혹은 전향을 의미한다. 한국정부 또한 이 원칙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지원, 주거지원금지원, 정착금 지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지원되는 정착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와 같이 다른 이주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다른 형식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속의 “한민족담론” 혹은 “혈연주의”라는 양날의 칼이다. 이 담론 속에서는 유난히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등의 개념이 필요이상으로 강조되기도 하여, 남한사회 입국 이후 과도한 기대수준을 요구하거나 문화적 차이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해나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상반된 것으로 체제의 이질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이다. 남한 국민 대부분이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의 교육과 선전 속에서 자랐음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인, 북한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익히 알려진 대로 ‘빨갱이’, ‘북괴’ 혹은 ‘빨 달린 공산당’이거나 백번 양보하여 ‘빨 달린 공산당 밑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이다. 특별히 최근의 정부, 언론,

그리고 대중매체의 보도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간첩’, ‘잠재적 위협’ 혹은 ‘잠정적인 간첩’ 등의 이미지를 씌어버릴 위험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 끊임없는 사상검증과 시찰을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는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우월관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열등한 그들로 ‘타자화’하는 경우이다. 북한을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생각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그들이 모두 북쪽의 기근으로 인하여 국경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과도한 일반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굶주림으로 인하여 북한을 탈출한 그들이 남한행을 선택한 이유도 다분히 ‘선진적’인 남한을 오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낳기도 한다. 즉, 남한 사람들은 남한과 그들은 이성적이며 발전한 곳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불쌍한 자로 인식하고, 동정해야 할 대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따라서 북한과 탈북-남한 거주민은 전근대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아직 때 묻지 않음과 순수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는 북한이탈주민을 가족과 체제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피해온 일종의 ‘배신자’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양계민(2006)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시각은 북한 사회를 한번 배신했으므로 또 다시 남한 사회도 배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북쪽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혼자 온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들을 입국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편견의 근거는 극히 미약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앞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이주민/난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생애전략

1) 이주민/난민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앞서 논의하였듯이 글로벌화에 따른 초국가적 이주는 많은 수의 이주민들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청소년층 이주민 수도 증가시킨다. 이주하는 부모들을 따라, 때로는 홀로, 국경을 건너는 이주민 청소년들은 이주 과정 혹은 정착지에서 성인들과 비교해 훨씬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주민들은 익숙한 사회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서 다시 삶을 꾸려야 하는 과제를 공통적으로 가지지만, 청소년층은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이라는 이주민 일반의 고유한 과제에 더하여 사춘기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를 낫선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통과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성장기로서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나머지 인생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시기라고들 한다. 즉, 이주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이행해야 하는 생애 단계적 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이주민으로서의 과제를 중층적으로 가지게 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한편, 이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삶의 과제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상층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엘리트 계층의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적극적인 기획아래 이주의 경험 자체를 문화자본화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하위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단순기능인인 ‘이주노동자’계층의 청소년은 이러한 가족적 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생활환경과 문화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에 시달리며 계도화된 지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치적 박해나 자연적·인적 재해로 인해 이주를 하게 되는 난민 가정의 청소년들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 이들은 대개 교육공백을 경험하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데다,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청소년이 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훨씬 심한 형태로 겪게 된다. 루터(Rutter, 2003)는 영국에 도착한 난민청소년들이 - 특히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 - 다음과 같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에 직면한다고 한다. 첫째, 교육공백, 둘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정에 접근 실패, 셋째, 영국 도착 후에도 잦은 이동을 함으로써 교육공백이 더 커짐, 넷째, 경제적 어려움,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부족, 여섯째, 직업학교로 유도됨으로써 학습능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함, 일곱째, 난민청소년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함, 여덟째,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주민/난민 청소년들의 중층적 어려움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Savelsberg and Martin-Giles, 2008). ‘사회적 배제’ 개념은 원래 프랑스 시라크 정부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네 르느와르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 예를 들어, 장애인, 피학대 아동, 약물 중독자, 해체가정 등 - 문제를 논의하면서 처음 쓰기 시작하여 점차 경제적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소외 현상에 기인한 소수자들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강신욱, 2006; 윤인진 외, 2006). 즉, 사회적 배제는 최초에는 빈곤이나 실업 등 전통적인 사회문제로는 포착되지 않는 집단의 문제에 주목하려는 경향성이 있었으나, 점차 평등의 원리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배제되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틀로 쓰이게 된 것이다. 특히 통합논의가 진전되고 있던 유럽에서 이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정책이념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맥도날드와 마쉬(MacDonald and Marsh, 2001)가 지적하였듯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객관적 범주와 기준 설정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배제의 기준이 개인과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어

면 범주에서 잡느냐에 따라 논의와 내용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이주민/난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주류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불평등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에의 참여와 기여의 권리를 부인 혹은 박탈당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로부터 차단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장점을 지닌다. 둘째, 소수자의 어려움을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시각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을 배제시키는 구조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시각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외 및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배제의 과정과 이들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살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는 역동적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개인의 능동성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적 노력 등의 역동성에 의해 그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개입의 지점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실천적 장점이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은 ‘이산민’으로서 이주민과 난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부분적으로는 자발적 이주라는 점에서 이주민의 성격을 가지지만, 북한을 떠나는 순간 정치적 위험에 처하고 귀환의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난민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사회적 배제’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논의한 윤인진 외(200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빈곤, 실업, 저학력, 건강문제, 주거부실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따라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인적자본이 아주 허약하다는 데서도 부분적으로 비롯되지만, 주류사회의 자원과 기회구조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이 부족하다는 것, 남한주민이 이들에 대해 갖는 편견과 차별행태로 인한

소외와 고립, 그리고 지식기반경제로 재구성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는 한국사회 전반적 문제에도 기인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다차원적인 해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를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의 적응문제를 단지 개인적 적응 수준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지원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이고 소극적 지원정책 방식에 의한 접근보다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83-85).

한편 유지웅(2007)도 북한 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의 적응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고립, 공간적 배제, 교육공간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경험을 논의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호의 기제가 작동하는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 배제의 기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즉,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통합하려 애쓰지만, 사회적 관계망과 의식의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가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유지웅의 이러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남북관계 속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잘 부각시킨다. 즉,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되어 이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도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에 주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유지웅의 논의는 또한, 사회적 배제와 포용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경계가 움직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배제와 포용의 기제를 잘 파악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윤인진과 유지웅의 연구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층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경제, 가족, 교육, 교우관계, 정보, 진로, 정체성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선 두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배제하는 기제와 동시에 통합을 촉진하는 기제를 함께 논의하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들과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상진단과 임시적인 처방 수준에 머물렀던 북한이탈 청소년들 관련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장기적인 전망아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북한 이주청소년들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주민/난민 청소년들의 협상과 전략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여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협상과 전략을 분석하여 이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적 소외나 배제의 상황 속에서 이주민/난민 청소년들과 같은 소수자들이 단지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러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중층적 한계/제약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배제되어 나가는 상황을 간파하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을 협상하곤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이러한 협상과 전략, 그리고 그 제한성을 살펴서 구조적 맥락과 행위자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려고 한다.

폴 윌리스(Willis, 1978)의 ‘간파’와 ‘제약’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영국노동자 계급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연구하면서 그는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간파’와 ‘제약’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간파’는 ‘한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꿰뚫어보려는 충동’이며 ‘제약’은 이러한 간파를 불완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이다.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경험하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에 대해 간파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타파하려

는 시도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정착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도 위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상황을 간파하고 자신들을 배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협상하면서 자신들의 길찾기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루어낸 성취와 성장의 경험들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한 좌절의 경험들을 드러낼 것이다. 물론 북한 이탈 청소년의 마주해야 하는 장애와 그 대응방식은 개인적인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지만 이들의 언설을 이들이 갖는 집단적인 특수성에 의해 그 경향성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내러티브는 자신의 위치/경험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이자 사회비평이기도 하다.

3. 선행연구 고찰

1)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관련 연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적응(김형태, 2004; 이기영, 2002; 엄경남, 2001; 장창호, 2000), 생활적응(홍덕기, 2001), 학업 및 학교적응(김미숙, 2004; 박선경, 1998; 유가효 외, 2004; 이기영, 2000; 이수연, 2008; 이수정, 2005), 심리적 적응(강효림, 2008; 금명자 외, 2004; 목예연, 2008; 서보람, 2008; 정향진, 2005; 최명선 외, 2006),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전익수, 2001; 정병호, 2001), 사회사업적 고찰(박지영, 2001; 장창호, 2001), 사회적 지지(강희석, 2007; 김종국, 2008; 정수현, 2002; 박윤숙, 2006; 박윤숙 외, 2007)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적응의 형태를 적응 문제 중심으로 분류하거나(정병호 외, 2007), 학업적응, 문화적응, 가족적응, 경제적응 등의 형태로(김형태, 2004; 길은배, 2002; 백혜정 외, 2006)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고 특히, 최근

에는 생애사 연구 등(김영우, 2007; 박서연, 2008; 박정희, 2008)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기영(2001)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남한사회 적응의 주요 차원이 학업부문에서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나누어지며,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비롯하여 학업성취가 주가 되는 학업의 장에 적응하는 것이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의 둘째 요인으로는 남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즉, 남한 청소년들과 무리 없이 어울리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 내에서 긍정적 관계의 지속여부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관련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길은배 외(2003)는 북한이탈 청소년(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업적응, 문화적응, 경제적응 세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학업적응의 경우 학력인정 문제,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 문제, 진학직업진지도의 부재의 문제가 있었고, 문화적응의 경우 언어적응 문제, 놀이문화적응 문제,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행위 절차 적응문제, 경제적응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 물 이해, 무연고청소년들의 경제적 부적응문제, 북한출신을 숨긴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겪는 문제 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있어서는 가치관의 차이, 언어문제, 탈북자에 대한 편견, 남한청소년들의 학업 중심적 사고 및 형태가 부정적 요인으로, 놀이문화, 자원봉사자 중심의 학업지도, 종교 활동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들었다. 가정 내 갈등의 주요원인은 이주과정의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의 세대차와 성차, 부모의 권위주의, 기타 청소년 비행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정병호 외(2007)가 서울지역 일반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학부모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어려움은 탈북과정과 난민 특성에 따른 문제(나이차이 문제, 학습결손, 심리적 문제 등), 남북한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 차이에서 오는 문제(생소한 학과목, 사교육과 특기교육, 담임교사, 준비물, 잡부금 문제 등), 남한사회의 차별적 문화로 인한 문제(출신지 밝히기, 피해의식과 자존심 문제 등)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재북 시절, 탈북과정 제3국, 남한입국 이후 경험과 개인적 특성들 중 남한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도(장창호, 2000; 박선경, 1998; 유가효 외, 2003)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백혜정 외(2006)가 대안학교 8곳에 재학 중인 학생집단(120명)과 개인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북한이탈 청소년집단(8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준비도,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죄책감의 정도,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정도,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였다. 또한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과의 친밀도였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북한친구들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친구와의 친밀정도는 문화적응 및 가정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었다. 또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심리적응에서 비롯된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장창호(2000)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시기를 남한 거주지에서 직접 생활하기 이전의 시기로 북한에서의 생활,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생활을 거쳐 입국 후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순간까지와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시기로 주거지에서의 초기 상황과 적응, 초기 대응에 따른 인과적 상황을 포함하였다. 특히, 심리적으로는 외로움, 불안과 걱정, 소외감, 자신감 및 자부심, 자아 존중감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학습능력, 친구, 교사와의 관계), 일반적 대인관계, 가족과의 문제, 언어, 경제 문제 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선경(1998)은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자기통제 관련 적응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남한학교에서의 부적응을 밝혀내었으며, 유가효 외(2003)는 하나원 시기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탈북 아동·청

소년은 연령에 관계없이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학업성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 문화에 편입하고자 노력하지만 문화적 충격과 이질감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이들의 적응을 위한 보호요인인 동시에 갈등요인이었다.

이기영(2001)의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학업부진, 진학 및 진로설정에 대한 막연함, 비정규 교육기관에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남한 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 남한청소년 놀이문화와의 괴리, 신체적 열등감 등이 부적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학습공백과 학력 차이 때문에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급에 배정되어 어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는 남한 청소년 무리에 섞여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적응(이기영, 2001; 유가효 외, 2004)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렇듯 탈북 청소년들은 언어의 이질화, 나이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소외감과 열등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친구 사귀기가 힘들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탈북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고 수업시간에 교사와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박하나, 2007).

탈북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적응 차이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박윤숙(2006)은 14-2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연령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9-24세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명자 외(2003)의 연구에서도 또한 연령에 따른 문화적응 정체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김형태(2004)는 16-24세 사이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서는 22%만이 사회적응을 하였으나, 20세 이상의 경우는 75%가 사회적응을 하였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또한 김형태(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심리적응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박윤숙(2006)의 결과에서는 성차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적응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 즉, 남자의 경우 일탈행동이 여자의 경우 우울이 가

장 주된 부적응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명자 외(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가족(김형태, 2004;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이나 후원자(김형태, 2004; 박윤숙, 2006), 또래관계(김미숙, 2004; 김형태, 2004; 장창호, 2001)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등도 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일부의 경우 소외감 및 열등감,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한 또래와의 패싸움을 하는 등의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조한범 외 2003; 길은배 외, 2003).

2)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관련 연구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교육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만길 외, 1999; 이기영, 2002; 정병호, 2003). 이금순(2003)이 78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진학이나 학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남한에 오기 전에 기대한 것도 학업이지만,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고민하는 것도 학업문제라고 하였다. 교육적응이란 학습자가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응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 심리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교육상황에 관련된 자아개념, 태도, 동기, 갈등, 정서, 불안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반면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적응은 교육제도, 교육풍토, 인간관계, 학교생활, 교수학습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 개인이 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 변화·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응을 사회문화적 적응의 유형에 비추어 보면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에서 벗어나 통합형을 지향하는 교육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남한학교적응 실태조사 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3) 남한의 학교생활에서 무엇이 힘든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학업부담(54%) 외

에도 북한 사투리로 인한 의사소통문제(8%), 친구사귀는 문제(10%),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10%) 등을 호소하였다. 김영우(2006)가 입학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중도포기 또는 입학 자체를 포기한 학령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연구한 결과 이들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의 편견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응,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열악한 가족관계, 학업문제, 취업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길 등(1999)은 초·중등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최근에 졸업한 학생 및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남한 학교 적응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편입학과정에서 대부분의 탈북 학생은 학습수준이나 학습능력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1-2년 수준 낮추어서 편입학을 하지만 학교 단계별로 학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둘째, 이과과목이나 암기과목은 수월하나 국어, 국사, 문법, 영어 등에 어려움을 느꼈다. 셋째 초등학교 편입학한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데 비해, 중등학교나 대학에 편입학한 탈북학생들은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한 교육풍토에 대한 인식에서 교실과 수업분위기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개인주의적 내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다섯째 자아상과 관련시켜 볼 때 북한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탈북학생의 34.1%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는 새로운 학교나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또한 탈북학생들이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교육체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한 교육에 대한 안내서를 통해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기영(2002)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최근 이수연(2008)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재학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학업적응, 대인관계, 진로문제, 또래문화 적응 등과 관련된 주제와 적응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미숙(2004)은 서울거주 초등학교 5-6학년(38명)과 중학교 1-3학년(34명), 중도탈락자 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학력검사 실시, 초중등학생 15명을 상대로 한 심층면담 실시, 초중등 각각 1명씩에 대한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적응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탈북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이 학교성적(73.9%)이었고, 특히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학교성적에 대한 고민이 컸다(김미숙, 2004; 조영달 외, 2006).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 중에서 학업성취의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학력을 중시하는 남한사회에서 학업성취는 탈북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 학교적응교육을 위한 특정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나 교수학습모형 개발(박명숙, 2006; 박하나, 2007)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하나(2007)가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가치, 규범, 태도 등의 초기 사회화가 부족한 환경적 맥락에서 사회과 평가에 임했고 사회과 평가 상황에서 부정적 태도, 낮은 학습의욕, 단순 암기 전략을 나타내었다. 한편, 교사와 또래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고 남한의 공교육 기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담임교사와는 규칙위반의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으며 교과교사와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긴장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학습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은 남한의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싫어도 다녀야 하는 공간에 불과하였다.

탈북 대학생 집단을 구분한 연구결과들(이혜경, 2003; 박정희, 2006; 조영아 외, 2004) 또한 학업적응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혜경(2003)의 연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총 7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대학 진학을 준비할 당시에는 남한 교육 수준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부족하여 혼란스러움과 난감함을 경험하면서도 ‘대학진학을 남한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낯선 대학 체계와 내용,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했으며 특히, 영어 및 남북한 간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쉽게 정을 주지 않는 남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여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집중력 장애를 경험하면서도 힘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영아·전우택(2004)의 경우 북한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로 살펴본 결과, 북한 출신 학생들의 대학입학 동기는 (1)남한의 전체의 학력 중시 풍토 분위기의 영향 (2)학연을 맺을 필요성 (3)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였고, 학교생활 중의 어려움은 (1)학업과 정보습득에서 능력의 한계를 경험 (2)인간관계의 어려움, (3)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4)심리적인 어려움, (5)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6)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7)자기만의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이었다. 특히, 대학생활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 즉, 수업이나 시험 등의 구체적인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Baker & Siryk, 1984). 이는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또한 학업 적응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박정희(2006)가 대학입시를 앞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4명과 남한에서의 입시단계를 거쳐 현재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2학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4명을 선정하여 면담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중도포기 이유는 기초학력부족으로 인한 학업문제, 정체성 미비와 경험부족에서 오는 대인관계 문제, 목적의식 없는 대학과 전공 선택,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북한에서 어떤 가족구조 하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생활을 누렸는지, 또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는 어떠했는지가 남한의 사회적응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쳤고, 남한학교적응에서는 북한과 제3국에서 어떤 가정환경과 경제적 여유,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학업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학업적응 양상을 나타내었다.

최경자(2008)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유형별로 탐색하고,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습 부적응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적응력 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학생 특별학급, 북한이탈주민 학생 특성화학교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북한이탈주민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학습적응력(학습태도, 교사와의 관계,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업성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 학생 특별학급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S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원적학급 수업시간을 힘들어 하였으며 집중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특별학급에서는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열심히 참여하였다. 교사 인지도에서는 원적학급 선생님보다 특별학급 선생님을 더 믿고 따랐다.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교과학습에 자신감이 없었고, 예체능 특기교육에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학업성취도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학생 특성화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H중·고등학교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매우 진지하게 학습하였고, 학습 기대감도 컸다. 수업시간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학습에 열성을 보였으나 좀 더 수준에 맞는 수업편제를 원했다. 교사 인지도는 매우 높아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학습에 대해 노력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었다. 특히 특기교육 부분에 자신감이 높았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학업성취도는 일반학교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평가 내용이었지만, 초기에 비하여 1년 후의 학업 성취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셋째,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학습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습에 의욕이 없고 집중하지 못했으며 교사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낮았다. 그러나 개별로 보충공부를 받으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예체능과 중국어 등에 특기가 있었다. 학업성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특성화중고등학교

의 교육 내용은 일반교과 외에 직업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교과학습 능력 수준은 낮고 특기학습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였으나 학생들의 진로는 대학진학이 목표인 등의 현실과 진로의 모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직업교육과 직업체험학습이 좀 더 강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남한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학교교육 경험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이유로서는 첫째, 남한에서의 정규교육 경험은 학연을 중시하는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배경을 획득하게 하여 남한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둘째, 남한사회에서 학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소래, 1997).

남한생활을 시작한지 6개월에서 2년 6개월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정진경 외, 2004), 초등학생 연령에는 100%가 학교에 다니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38%만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김미숙, 2004; 박선경, 1998)으로 인해 학교적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 경험은 학력사회에서 주요한 자본인 졸업장을 얻는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경을 획득하고 남한의 또래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성적과는 무관하게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백혜정 외, 2006).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관련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에 관련된 연구는 성인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강일규, 2003; 전연숙, 2003; 손영지, 2004), 직장적응(김혜경, 2005; 문경남, 2007; 이종은, 2003) 등이 대부분이며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박정란, 2006) 북한이탈 성인의 진로관련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진로관련 프로그램

(서장혁, 2003)이거나 진로 선택과정에 대한 연구(김활수, 2006; 박서연, 2008)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탈북 청소년은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포부는 있지만 진로탐색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진로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고 연령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취업과 진학에 대한 뚜렷한 선택기준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기영, 2001: 53).

학교에 편입한지 1년 이상의 만 13세-22세 탈북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태도에 대해 근거이론을 통해 파악한 김활수(2006)의 연구에서는 북한 가족에 대한 연민과 탈북의 계기 및 탈북과정과 같은 인과적 조건과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같은 맥락적 조건이 남한생활 적응에 대한 자신감 형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남한 친구사귀기와 같은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 종교생활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진로를 향한 도전을 하게끔 한다는 진로선택 태도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박서연(2008)은 북한이주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과정을 통해 본 생애전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이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인맥과 사회 연결망을 정착을 위한 사회 자본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자원획득을 위한 생애전략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하나 문화자본 형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가계전략 및 문화학습의 기회로서 노동, 정착수단으로서 결혼, 글로벌 자원획득을 위한 재이주 등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또한 남한거주 북한이주 청소년들이 겪은 이주경험이 미래의 진로를 모색하고 삶을 기획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주 청소년들은 중국 등지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고, 이주 초기의 성별화된 이동방식은 남한거주 생활에도 연결되고 있었다. 또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고, 다양한 삶의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대학진학 등으로 문화자본을 형성하며, 가계의 전략으로 이해되는 노동을 수행하고, 정착의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주 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과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경쟁할 것을 요구받으며, 일정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축적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은 청소년들에게 회의감과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화된 위치에서 수혜를 받는 피해자가 아닌, 자원획득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생애전략을 구사하는 행위자로서의 측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서연의 연구와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적응/부적응의 패러다임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강주원(2003)의 지적처럼 남한사회는 부적응 담론을 재생산함으로써 이들을 문제 집단으로 만들곤 하는데,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을 적응/부적응의 이분법적 논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사회, 더 나아가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어떤 배제의 경험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어떻게 배움과 길찾기를 위한 생존전략을 형성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배움과 길 찾기 과정에서 드러난 생애 전략 및 배움과 일의 의미 등을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과 이를 제한 또는 장려하는 요소 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관련 정책

1. 북한이탈 청소년 인구학적 특성 및 정착 현황
2.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법령 및 정책

Ⅲ.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관련 정책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착 현황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탈북 배경과 국내 입국 과정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20% 안팎의 규모로 몇 년간 지속되어왔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청소년 숫자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통상 중국 동북 3성 지역과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약 5만에서 최대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제 3국에 은신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약 10,000명은 된다는 것이다(백혜정 외, 2007). 왜 이들은 북한을 벗어나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있는 것이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사실 탈북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성인과 구별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만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가족 단위의 탈북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이미 북한에서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단독 탈북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탈북 배경에 대해서 윤여상(2001)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한 바 있다.

(1) 북한배출 요인

북한배출 요인이란 말 그대로 북한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발생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사실상 1990년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난과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과 연이은 자연재해는 실물 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NGO에 따르면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6

년에서 1998년 사이에 수십 만 명이 기아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로 이 시기에 대량 탈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탈북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이것 역시 처벌을 우려한 주민들의 탈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평양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함경도 등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당원이건 군인이건 당장의 생계에 급급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주민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공장은 원료가 없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문을 닫았고, 학교에는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교사는 학교가 아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권력층의 부정·부패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탈북 당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당시 상황은 총체적으로 체제 불안을 야기시켰고 실제로 당시 남한 정부도 북한 내부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도 했었다. 비록 북한 체제의 붕괴는 없었으나 여전히 탈북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주요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중국유인 요인

중국의 유인 요인은 한마디로 말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개혁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다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대적 박탈감과 동경심이 극대화되기 이른다. 특히, 조선족 마을에서는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같은 민족에 대한 동포애가 있으며 일부 친인척이 중국에 거주하는 등 도움을 받기가 수월한 점도 중국으로의 탈북 요인으로 작용했다.

(3) 기타요인

그 외에 이미 탈북을 하여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브로커 등을 활용하여 북한 내 가족을 데려오기도 하고, 남한에 대한 실상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면서 일부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남한행을 결심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안 등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8년 9월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 내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한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탈북 배경을 지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이후 탈북과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탈북 후 국내 정착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5~6년 이상의 기간동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처지는 수없이 변하게 된다. 즉 탈북을 선택함과 동시에 제 3국 체류와 국내 정착까지의 과정은 조국의 배신자(탈북시) → 밀입국자(제3국 체류시) → 불법취업, 불법체류(제3국 체류시) → 피의자(대성공사) → 교육생(하나원) → 수급권자(정착 지역) → 학교 및 사회 부적응자라는 처지에 놓이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 출신임을 숨기거나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등의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2) 인구학적 특성 및 정착 현황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중단된 1953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행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약 50여년이 지난 2002년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가 연간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2001년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이후부터는 여성들의 입국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등 성비 비율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연간 규모 1,000명 단위에서 2,000명 단위로 접어드는데 걸린 시간은 4년으로 2006년도에 2,018

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그리고 2007년 2월 마침내 ‘북한이탈주민 1만명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표 III-1>를 살펴보면 2008년 6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약 14,000여명이다.

<표III-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남(명)	564	32	8	564	513	468	625	422	509	570	390	4,665
여(명)	43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1,974	1,355	9,101
합계(명)	607	34	79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745	13,766
비고(여성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65%

* 출처: 통일부(2008년 6월 기준)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통상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를 기준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6% 내외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연령 상한선인 만 24세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20% 내외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만 6세~24세)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계를 제공하는 통일부는 <표 III-2>와 같이 연령대 구분을 하고 있어 정확한 비율과 인원을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로 약 33%에 해당하며, 20대가 28%를 차지해 20~30대의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Ⅲ-2>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구 분	10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명)	511	1,696	3,823	4,573	1,916	582	659	13,760
비율(%)	4	12	28	33	14	4	5	100

* 출처: 통일부(2008년 5월 기준)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수료 후 각각 배정받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데 지역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순이다. <표 Ⅲ-3>을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 가량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 그리고 강서구에 밀집 거주하며, 인천의 경우에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남동구 지역에 경기도의 경우는 부천시를 비롯해 주요 중소 도시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 16개 광역시도 중 앞서 살펴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가장 적은 인원인 8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Ⅲ-3>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명)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 원	4,570 (35%)	3,159 (24%)	1,242 (9%)	382	298	376	167	619	288
지 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 원	359	423	372	422	204	280	81	13,242	

* 사망·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출처: 통일부(2008년 5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08년 4월 기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일반학

교(초중고) 재학 인원은 377개 학교에 966명으로, 2007년에 비해 4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73%에 해당하는 701명은 수도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명 이상이 재학하는 학교도 총 35개교로 이중 22개교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 강서구 일대의 학교가 대부분이다.

<표Ⅲ-4> 북한이탈학생 재학 현황

구분	일반학교			합계
	초	중	고	
인원	495명 (51.2%)	288명 (29.8%)	183명 (18.9%)	966명
교육기관	177개교 (47%)	121개교 (32.1%)	79개교 (20.9%)	377개교

* 출처: 과학기술부(2008년 4월 기준)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학생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순으로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지역은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기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소위 위성 도시에 해당하는 부천, 안산, 수원, 안양, 성남,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 내 중소 도시에 분산 거주하고 있으며, 반면 인천 지역은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 이후 급격히 거주 인원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수도 증가하였다. 그 외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0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 중, 고등학생 중 초등학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Ⅲ-5> 북한이탈학생 지역별 재학 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78	31	11	65	13	14	16	89	8	17	13	5	8	13	10	4	495
중	118	12	6	16	3	8	2	85	3	4	11	4	4	3	6	3	288
고	55	7	4	4	1	2	2	91	2	1	4	4		2	4		183
계	351	50	21	85	17	24	20	265	13	22	28	13	12	18	20	7	96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년 4월 기준)

이들 청소년들의 제도권 학교 취학률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이다. 2007년 4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초·중·고 취학률은 각각 102.3%, 68.7%, 58.0%로, 남한 청소년 평균 취학률(초99.3%, 중96.0%, 고91.3%)에 비해 아주 낮다. 중도탈락률도 높아, 2007년의 경우 초등학생의 3.5%, 중학생의 12.9%, 고등학생 중 28.1%가 학교를 중도 포기했고, 이는 2005년 남한 중학교 평균 탈락률 0.8%, 고등학교 1.4% 대비 10-20배에 달한다.

<표Ⅲ-6> 북한이탈 청소년 일반학교 중도탈락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07년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 탈락생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한편, 북한이탈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에서는 교육지원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학기 100점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학비 지원이 지속된다. 이렇게 교육지원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83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교 진학현황을

보면 104개 대학에 448명이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중국어과와 간호학과에 이어 사회복지학과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별로는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이었다. 이에 대한 현황은 <표 III-7>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⁵⁾

<표 III-7> 북한이탈 대학생 현황

구분	북한이탈 대학생 현황	
	학교별 상위 3개교	학과별 상위 3개과
1	서강대 49명(10.9%)	중국어과 77명(17.2%)
2	한국외대 36명(8.0%)	간호학과 58명(12.9%)
3	중앙대 22명(4.9%)	사회복지학과 54명(12.1%)

2.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법령 및 정책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시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 III-8>와 같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에서부터 시작된 관련 법률은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 1993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거쳐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는 국방부 계통에서 보건사회부를 거쳐 통일부로 바뀌게 되었고 그 때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다양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2008년 9월 기준 정착지원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5) 김임태,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과 대안』, 열매나눔재단과 그리스도대학교 SSNI특성화사업단 주최 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세미나 발표문 (2008. 9. 29).

<표III-8> 시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구분	안보 차원 지원기	보훈 차원 지원기	체제선전 차원 지원기	사회복지 차원 지원기	통일대비 차원 지원기	2007년 1월 기준 법령
시기	1953-1962.4.15	1962.4.16-1978.12.31	1979.1.1-1993.12.10	1993.12.11-1996.7.13	1997.7.14 (2001년 기준)	법률06.12.21 개정 시행령 06.10.30개정
관련법	없음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	좌동
소관부처	군 및 정보기관	원호처 (국방부)	원호처→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통일원→통일부	통일부
정착금	규정없음 (1962년 제정 법률은 1962년 이전 귀순자는 정착금 대상에서 제외함)	정착수당지급 (77년기준) 1급: 500만원 2급: 350만원 3급: 250만원 4급: 150만원 5급: 100만원	지급기준: 신분 및 정보가치 지급액: 황금 1,900g - 14,500g (1,900만원-1억 4,500만원)	지급기준: 가족수 등 (기본급)정착여건 (가산급)지급액:월최저임금의 20-100배(690만원-3,450만원)	지급기준: 가족수 등 (기본급 160배 이내) (가산급-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40배 이내)지급액:좌동(대부분 1인 가족 4,000만원 수준)	지급기준: 가족수 등 (200배 내) (기본급-100배 이내) (가산급-연령·건강·근로능력-50배 이내) (장려금-직업훈련 취업기간 -50배 이내) 지급액: 좌동2/3 5년간 분할 지급
주거지원	규정없음	국가용자권 주택임주 우선권	무상 15평 이상	15평 이상 무상·임대 보증금 지방거주 장려금	25.7평이하 무상·임대 보증금 지방거주 장려금	좌동 (국민임대로 확대)
교육보호	규정없음	본인: 대학까지 공납금, 학자금 자녀: 고등학교까지 공납금, 학자금	좌동	본인에 한해 국립: 면제, 사립: 50%	본인에 한해 국립: 면제, 사립: 50% 고교25세미만 대학35세미만	본인에 한해: 좌동 (보호기간 중 또는 학력인정 5년 이내 해당)
취업알선	규정없음	국가·지자체·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전고용인의 3%이내 고용	본인·자녀를 16인 이상 고용업체에 3-8%범위내 의무 고용	본인에 한해 채용 알선, 기능직공무원 요청시 우선채용	취업희망시 협조요청 (2년간 임금50%지원)	좌동 (고용지원금 3년으로 연장 가능)

구분	안보 차원 지원기	보훈 차원 지원기	체제선전 차원 지원기	사회복지 차원 지원기	통일대비 차원 지원기	2007년 1월 기준 법령
적응 교육	규정없음	없음	없음	부분적 실시	전체적 실시	전체적 실시 (본원, 분원)
생활 보호	규정없음	상이자에게 수당지급	생계곤란자 수당(상이자연금지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	좌동	좌동
의료 보호	규정없음	의료보호	의료보험에 의한 보호	좌동	좌동	좌동
자격 인정	규정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좌동(보수 및 재교육 명시)
해외 보호	규정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설

정착지원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다. 연간 입국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면서 정부는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04년과 ‘06년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는 <표 III-9>와 같이 정착금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Ⅲ-9> 정착지원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정착금 ⁶⁾ 지원	기본금	정착기본금 + 주거지원금 : 세대구성에 따라 책정 -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장기질병 등 결손가정아동보호가산금 등 근로능력 부채자를 위한 지원금(최대 1,540만원: 1급 장애)
주택 지원	주거알선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지원 및 직원훈련	-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산하 고용안정센터(53개소)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 직업훈련 무상 교육 실시 (교통비 및 식비 훈련수당 지급) :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총3회이 직업훈련 수강 지원	
	- 고용지원금(취업보호제) 실시 :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범위내)을 2년간 지원(1년차 50만원까지, 2년차 70만원까지)	
	- 취업장려금 신설 (취업기간 지속시 1년-3년까지 인센티브 제공: 정착금에 언급됨)	
교육 지원	- 학력인정: 북한 및 제3국체류시 획득 학력 및 자격 인정	
	- 자격인정 받는데 필요 제반 교육 편의 제공	
	- 등록금 지원 : 학비 전액 면제(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특례자) - 대학입학특례(재외국민특별전형 혜택) : 35세 미만 입학시 지원	
사회보장 지원	- 생계급여 지원 : 6개월 동안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6개월 이후부터는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여 조건부과 후 지원	
	- 의료보호지원 : 의료보호1종 혜택	
정착도우미 활동	-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대한적십자사와 9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 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 수행(1년간 활동)	

6)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배출 후 기초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급방법은 자립자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하여 왔다. 1인 단독세대의 경우 하나원 퇴소시 3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후 1년 내에 300만원을 분기별 지급받게 되었다. 통상 초기 정착금은 살림살이를 위한 생활필수품 구매와 계절에 맞는 옷을 구입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해야 할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지원을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표 13]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 인정을 받아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며, 대학 진학시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의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학비 지원을 받는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다만 대학의 경우는 학기 중 성적을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 70점 이상을 유지해야만 학비 지원이 지속되며,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해야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과 문제점 7)

(1) 정책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부정책은 대체로 성인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은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기관들의 노력 중심으

초기 정착금의 상당 부분을 브로커 비용 지불에 쓰는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정착금인 기본금과 달리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이면 누구나 지급받는 정착금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가령 직업훈련을 1년 과정을 수료했다면 14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교육 과정 이수 후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도 별도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해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착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2,140만원에 이른다.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과거 조건 부과없이 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던 방식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자활’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들 중 상당수는 입국 초기 오리엔테이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원 퇴소 후 바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을 잡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정착가산금은 크게 연령에 따른 가산금과 장애 등급에 따른 가산금, 중증 질환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금 끝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가산금으로 구분된다. 앞서 살펴본 정착장려금과는 달리 정착가산금은 인센티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핸디캡에 대한 추가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 7) 이 부분은 이수정의 ‘한국 내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2008년 이주가정 청소년정책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문)을 부분적으로 개구성한 것이다.

로 이루어져 왔다. 지원정책 수립 초기에는 아동청소년 층이 그리 많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런 통합이 가능하리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 청소년층의 사회통합 실패현상이 이슈화되면서,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의 정부부처가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취업지원 관련 청소년 특화정책은 여전히 거의 없고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전술한 성인중심의 정책으로 포괄하고 있다.

가. 통일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주무부처이긴 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특성화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제한된 예산 및 인력 하에서 수적으로도 소수인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의 우선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어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정부합동심문기관에서 탈북동기·입국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통일부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약 8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하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시설 등이 부족하여, 인근 학교들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유치·아동반은 인근 일반학교인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들은 숙식까지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위탁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이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무연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대안교육기관, 지역 복지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⁸⁾ 그러나 통일부 자체가 지역에 별도의 실행조직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8) 하나원 수료 이후, 만 20세 미만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보호시설 및 정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주소지 인근 학교에 배정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의 정책은 주로 학력인정 및 교육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다. 2008년 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원 퇴소 후 북한이탈 청소년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각급 학교의 심의를 통해 그 학력을 인정받으며, 이에 의거 정규학교 입학 및 편입학이 결정된다. 학력인정의 기준은 학력,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수학년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⁹⁾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학력인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학연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당히 예외적인 결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비도 지원하며, 대학입학에 있어서도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입학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대학 및 기능대학에 입학·편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¹⁰⁾ 교육부는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설립(2006년)을 지원하였고 통일부와 함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합형 기숙학교인 이 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력결손 보충 및 적응지원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고(일종의 '디딤돌 학교') 무연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부는 또한 공교육 바깥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시도하고 있다.¹¹⁾

교육부는 일반학교 중심으로 통합교육 관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

9) 개정 이전의 시행령은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수학년수에 따라 학력인정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년배치를 받은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 및 제3국에서의 학습공백으로 인해 동급생인 남한학생들과 몇 살씩 연령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연령차이가 공교육 이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된 학력인정 기준 관련,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10)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및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기능대학법 시행령 제1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에 의한다.

11) 2007년 11개 민간단체에 3억 가량을 지원하였다.

한 수용체제를 갖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학령인정제도의 개선도 공교육의 북한이탈 청소년 수용능력 개선을 위해서 시도된 것이며, 그 외에도 학교교육의 지원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지원하기에는 아직 체계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는 2006년 4월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¹²⁾ 센터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사업은 크게 직접 지원 사업과 사회기반구축사업으로 구성된다. 직접 지원 사업으로는 하나원 재원 청소년들에 대한 방문교육 및 방과후 교육, 비교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정착초기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한 지역사회종합지원사업,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한 DB구축을 통한 중단적 실태 파악 및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도착부터 정착까지’ 일관되고 유기적인 지원, 청소년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한 성장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 정책개발, 다수자 교육, 전문인력양성, 온오프 전문자료실 운영 등의 사회기반구축사업도 병행하여 전체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센터는 드물게 정부부처의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는 ‘전담조직’이며 교육부, 통일부 등과 협력하여 ‘인권’과 ‘참여’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그 과급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2) 문제점

아동청소년 정책의 문제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통합적 지원체계가 없다

12)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새터민·다문화) 청소년 전담기구로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및 다문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장기적 발달과정의 특성상 적응에 필요한 지원 요건이 성인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탈아동청소년 국가정책은 최근에야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정책의 목표나 내용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실행시스템의 체계화에 대한 고민 없이 그 때 그 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증요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는 많으나 전담부서는 하나도 없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쉽지 않고 부처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계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고 몇몇 정책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주류에서 분리하고 주변화시키는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V. 학교 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제와 통합 기제

1. 배제 기제
2. 통합 기제

IV. 학교 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제와 통합 기제

1. 배제 기제

앞서 논의했듯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취학률 - 특히 중등학교 취학률 -은 아주 낮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일반의 사회적 배제 현상 중 주요한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윤인진 외, 2006; 유지웅, 2007). 그리고 정규 학교 취학률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소래(1997)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 경험이 남한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며 학력인정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준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어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들도 여러 맥락의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서도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서성이거나 학교에서 ‘버티고’있었다. 표면적으로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이 보이는 청소년들도 깊은 얘기 끝에는 반드시 소외의 경험과 외로움에 대해서 언급하곤 하였다. 따라서 취학률이라는 숫자만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배제와 소외 정도를 논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배제와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학률을 높이는 것 이상의 대책과 노력, 즉 학교 안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배제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소외 경험은 그 첫째가 입시 중심의 남한 중고등학교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 다수도 입시 중심의 학교문화를 힘들어하며,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소외를 느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이주과정에서의 경험과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갖는 독특한 위치도 소외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중층적인 소외를 경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만만치 않다. 특례로 대학을 입학들은 하지만, 사회문화 차이와 인적 자원, 정보망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1) 입시위주 교육 풍토와 체계적 학습지원 시스템의 부재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와 경쟁적 학교 분위기는, 이전의 교육경험과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이 모두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학교에서 밀어내고 있다. 성적 때문에 자존감을 잃게 되고, 성적 때문에 맞고, 또 공부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학교에서 겪는 소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것이다. 이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선 재북시 그리고 탈북과정에서의 학습공백과 학교 문화 차이 때문에 이들의 학력이 대체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학교에 편입시키려고만 노력할 뿐 제도적으로 학력결손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탈북청소년들은 각자 알아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교육공백이 ‘각자 알아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기에’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 이외에는 북에서의 교육경험 없이 제 3국에서만 7년을 머물다 입국한 C-3은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한 직후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C-3, 여, 21세, 대2)

저는 유치원 밖에 안 다니고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한글도 몰랐고.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지나가면서 한 단락씩 국어 교과서 읽게 하잖

아요. 선생님들이. 저 차례가 오면 덜덜덜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
까.. 다른 애들은 십 분 만에 딱 읽는 걸 저는 삼십분씩 떠벌떠벌해서 읽으
니까 애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기초실력의 부족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수
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사교육이 되다시피 한 남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사교육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들 청소
년들이 동급생들과의 학력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아직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해서 수능시험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교가 공부 이외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존감을 갖고 지내기도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을 ‘반 평군을 깎아 먹는 수
준’으로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공부’ 때문에 학교 그만 둘 생각도
하고, ‘공부’ 때문에 존재감을 못 느끼고, ‘공부’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어렵
다는 이야기를 한다. 누진적 학습능력 부족은 또한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
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생활의 영위를 어렵게 만든다. 북한에서 학교 경험
이 전혀 없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중학교 2학년생
인 D-3과 역시 북한 학력은 전무하고 입국 후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하여
고등학교 1학년생인 E-2는 누진적인 학습결손으로 인해 ‘공부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든’ 대표적인 경우이다.

(D-3, 남, 16, 중2)

공부 안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지 자면 또 잔다고 뭐라 하지. 이것도 하지 말
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유....

(E-2, 남, 19, 고1)

E-2: 네 우선학교가 너무 답답해요

면담자: 특히 어떤 것 들이 답답해?

E-2: 아 그냥 다 공부하는 게 답답해요.

면담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지?

E-2: 그냥 제 나이대로 올라갔으면, 어차피 공부는.....

공부 이외에 다른 것들에는 별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는 이들에겐 그저 ‘답답한’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공간일 뿐이다. 이와 같이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공부/성적 스트레스는 일반 청소년들도 공유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이 외에도 일반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요인들이 있다. 가령 ‘남북한 문화 차이’, ‘연령중심 사회에서 동급생들과의 나이차이’와 ‘문화자본 부족’, ‘경제력 취약’, ‘편견과 차별’ 관련한 내용이 그것이다.

2) 연령중심 문화와 학력 위주의 편입정책 사이의 괴리

한국사회는 최근까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북한에서의 학력 기준으로 학급배치하였다.¹³⁾ 즉, 4년제인 북한의 소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온 경우 제 3국에서의 체류로 인해 15~16살이 되어도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한국사회 전반 및 학교 내에서의 엄격한 연령 중심주의 문화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북한 학력’ 위주의 북한이탈학생 학교 편입정책은, 이주로 인해 교육의 불연속성을 경험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공교육 바깥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또한 학교에 편입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연구에 응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20명과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경험이 있는 대학생(당사자 연구원 포함) 8명을 포함한 총 28명 중 최초 남한 학교 전입 혹은 입학 시제 나이에 맞게 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적게는 한 살에서 많게는 6살까지 어린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였다.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20명의 학령과 나이차는 0살인 경우가 3명, 1살인 경

13) 2008년 3월 개정 이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학력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가 6명, 2살인 경우가 7명, 3살인 경우가 3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권유로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한 한 명의 경우가 6살로 가장 많았다. 한국 중고등학교 경험이 있는 대학생 8명 중에서는 최초 남한학교 진입시 동급생보다 1살 많았던 경우가 2명, 2살이 6명, 3살이 2명이었다. 이는 학교 안팎의 학생들을 포괄한 타 연구 결과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차이이며, 더 많은 샘플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 응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학교에 비교적 오래 머무르게 한 요소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급생보다 많은 나이로 학교에 들어가게 된 학생들은 여전히 나이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이’가 사회적 위계관계와 기회의 여단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한국 사회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두 살 많은 나이에 편입한 E-2는 ‘쪽팔려가지고 처음엔 고개 못 들고 다녔’다고 하며, 나이 때문이라도 빨리 학교를 나올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한편, 23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E-5는 ‘나 이문제 때문에 학교 상담사와 상담을 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연령적으로 동질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학급에서 혼자 ‘특별한’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특별함’으로 인해 관계의 코드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동급생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동급생보다 두 살 많은 나이에 중학교에 편입한 A-1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숨겼다가 우연히 선생님에 의해 밝혀지고 난 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A-1, 남, 18세, 중3)

전 나이를 아직 모르는 애들도 있고 아는 애들도 있고. 북한에서 왔다는 거 처음에 알려주지 않았고 중국에서 왔다고 했고 나이도 속였는데, 어느 날 음 악시간에 선생님이 저를 모르는 거 같아요. 저를 보고 오빠라고 하니깐 애들이 막 놀라면서 피하는 거예요. - 중략. 처음에는 어떻게 접촉해야할지. 같이 놀아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 안했는데...

A-1은 자신의 나이가 밝혀진 후 동료들이 자신을 기피하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같이 놀아야 할 지’몰랐다. B-3은 이를 ‘거리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B-3, 남, 20세, 고2)

근데 애들이 내 나이 알고 고향 출신 알고 그러면 침엔 와 갖고 막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다가요 갑자기 나이하고 출신 알면요 애들이 갑자기 진짜 거리감 느껴요. 그 애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형이라고 불러’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겐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불러’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고 가면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그럼 애들 같으면 막 맞다 보면 막 아아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형인데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한테 이 나이 먹고 또 맞으면 진짜 쪽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로서 잘 지내던 급우들과 갑자기 호칭문제부터 고민해야 했던 B-3은 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형다운’(예를 들어, 선생님께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반말을 하던 급우들은 B-3의 양해에 계속 반말을 하다가도 ‘움찔 움찔’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검정고시 등에서 대입을 준비해서 대학에 간 학생들도 대부분 ‘나이’를 학교 중퇴의 이유로 들고 있다. 급우들보다 많은 나이가 학교에서의 일상적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생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간 C-3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C-3, 여, 21세, 대2)

일단은 급하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저보다 두 살이 어린 애들이랑 다니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만 두기를..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만 두고 6개월을 쉬어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다 따져서. 이 때 그만 두어야겠다. 이 때 그만두지 않으면 이 시기를 넘기고 이제 1년 넘으면 어차피 그 때까지 한다고 해도 1년이나 6년이나 뛴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

거를 따라잡자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연구원 B의 고등학교 시절 자퇴 관련 이야기는 학년과 학령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혼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연구원B, 여, 25, 대3)

아무리 생각해드...또래 애들은 막 사회 나가서 그 나이..진짜 대학교 2학년 이렇게 되어가지고...너무 불안한 거예요...불안하기보다도..뭐랄까...알지 못할 감정들이 막 이런 거예요. 사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거의 20살 넘게 보고 사람들이...지금도 많이 삭아 보이지만...그런데 학교에 가면, 교복 입고 가면 애고, 애 취급받고...완전 고등학교 1학년 취급받고....그게 정체성이란 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른 취급받고 많이 -중략-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내가 20살인데,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면 솔직히 내가 몇 살... 졸업하면 30살....끔찍한 거예요, -중략-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나이가 생명이 짧아요. 30살 넘으면 거의 취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압박 같은 게 심해지고...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눈 꼭 감고 그냥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빨리 봐서 대학을 가야겠다.

연구원 B는 밖에 나가면 어른인데 학교 안에서는 어린애 취급받는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또 연령중심의 문화로 나이제한이 많은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끔찍해서’ 학교를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원B는 C-3와 같이 검정고시를 통해 ‘잃어버린 연령을 따라잡으려’ 시도한 것이다.

3) 문화자본의 부족

남북한은 교육제도, 교수용어, 교육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 고등학교에 진입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수업시간을 따라 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영어, 컴퓨터 등은 물론이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배워왔던 사회, 정치, 역사 등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래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첫 수업부터 큰 좌절을 느낀다. 현재 고등학생인

B-2와 중3인 B-1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B-2, 남, 18, 고1)

진짜 기술가정은 진짜 영어를 진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최하 점수에
요 기술가정. 무슨 이상한 모르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알아 못 들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다 찍고 그러잖아요.

(B-1, 남, 18, 고1)

저는 그런 북쪽 말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사회 같은 데서는, 근대국사에서 옛
날 말이 많이 나오고, 중학교 때는요 국어 있잖아요. 서술형 같은 거 있잖아
요. 막 그런 거 한국 말 잘 모르니까 북한식대로 써서 냈어요. 제 생각에는
맞았는데 선생님이 틀렸어요.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생들은 낯선 교수방법, 시험 문화 등뿐만
아니라 ‘기본상식’도 부족해서 고통을 겪는다.

(F-6, 여, 24, 대2)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워낙 다르니까 . 왜냐면 나는 그쪽에 있을
때 대학교수도 학생들이 알게끔 모르면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다 알겠거니 하
고 흘러가니깐 나는 모르는데. 그냥 흘러가고 나 혼자 손들고 그러기 그렇고.
그런 게 어려워요

강의 방식이 맘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시험도 모든 게 다 생소하니까. 다 처
음이니깐 중국에서 공부할 때랑 또 판이하게 다르니까. 애들도 일학년 들어
와서 보니까 노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성적이 안 되지.

북한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입국해서 바로 한국의 대학에 들어 간 C-5는
대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남한의 청소년 문화 경험이 없어 공
유할 수 있는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C-5는 이를 ‘놀기도 쉽지 않다’고 표현
한다.

(C-5, 남, 25, 대1)

막상 놀 때는 같이 놀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는 거랑 애들이랑 공유가 안 되니까. 대부분 대학교 1학년들 고등학교 얘기하고 영어 학원 얘기하고... 나는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한 것도 아니니까. 학교에서 인사는 해도 뭐 친한 애들 술 먹으러 간다거나 그런 자리는 같이 못 가죠.

4) 경제적 취약성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상황에서 그 작동원리를 직접적으로 배우며 본인의 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는 시장화폐 경제를 직접 배울 수 있다는 득이 되기도 하며 학업활동이외의 새로운 취미나 관심을 가질 기회도 되지만, 사실 학업과 경제활동 양쪽 부문에서 모두 어려운 이중고를 겪을 위험도 존재한다. 학교와 학업은 이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이중고이다.

(F-3, 남, 25, 대2)

그래서 경제상황이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데 경제상황 그냥 돈만 번다면 어려운 게 아닌데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 힘들죠. 그 뭐랄까 다 다르다 그래요. 달라서 따라가기 힘들고 영어가 힘들고 공부 힘든데다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테요. 일단 힘들다는 거 있고요. ‘나는 힘들지 않아요. 난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소수고...

5) 정보 부족

부정확한 정보로 진학을 하고 진로를 결정한다. 이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킨다. F-7은 하나원 퇴소 후 여러 경로를 헤매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다.

(F-7, 남, 23, 대3)

저는 하나원 퇴소할 때는 무연고였으니까. ***학교로 갔는데 한 달 뒤에 바

로 이모가 와서 이모 집으로 갔다가 또 몇 달 뒤에 엄마가 와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 준비해서 시험 볼고, 그 때 이미 다 합격했는데 **학교가 있다고 해서 거기 다녔죠. 거기서 공부하면서 상식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 간 건데, 지금 생각하면 단순했죠. 경영학과를 나와야 웬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같은... 아무튼 학교 다니다가 잠깐... 쉬다가 지금 3학년에 다니고 있죠.

경영학과를 가서 무역업에 종사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연구원 B는 경영학과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식에 경제학과를 선택한다. 수학에 늘 자신이 없었던 그는 경제학과에 오게 된 것을 정보부족에서 기인한 큰 실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원B, 여, 25, 대3)

근데 정말 착각을 한 게... 경영학을 넣었어야 하는데...그렇게 경제학과를 들어가서...특별한 사연은 정말 경영학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 비슷하니까. 경제나 경영이나 똑같겠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수학과도 아니고. 수학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경제학과 가다가 말려요. 가지 말아요.

한편, 25세의 남성이고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5는 입국 후 바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한 후 다시 대학을 들어간 경우인데, 처음 과를 선택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이미 대학을 들어간 선배들이 있는 과 몇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국문학과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한국말 밖에 더 있겠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후 대학에서 적응을 못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1년 동안 일을 하다 지금은 기술계 대학교에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최초로 정보 없이 대학 학과를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C-3도 과 선택에 있어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로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C-3, 여, 21, 대2)

과를 선택할 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연구원A도 자기가 사범대에 대한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한 사람 얘기만 딱 듣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로를 선택할 때, 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떠한 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면 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저도 선택의 폭이 좁았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거 밖에 없었으니까 선생님이밖에 못돼, 그거밖에 선택을 못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선택의 폭도 많고,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주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같은 거, 학습 같은 거 그런 게 약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6) 북한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 정체성 공개의 어려움과 비공개에 불안함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주 언급하는 또 하나의 배제요소는 남한 사람들의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전쟁에 이은 오랜 분단체제 아래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전효관(2000)이 지적한 것처럼 반공주의와 식민주의가 결합된 이 양가적 감정은 북한을 두렵고 경멸스러운 적임과 동시에 남한보다 불쌍하고 열등한 존재로 위치 짓는다. 이러한 감정은 북한을 고향으로 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특이한 방식으로 전가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때로는 언제라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협적 존재로, 때로는 고향과 가족을 등진 배신자로, 또 때로는 독재 하에서 고통받다 자유를 찾아 온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로 이해되곤 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을 끊임없이 열등하고 위험한 타자로 위치시키는 남한의 문화적 환경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정체성 공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남한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힌 말에 상처받고, 또 북한과 관련지어질 수 있는 얘기나 상황을 불편해 한다.

북한출신임을 밝히기 꺼리는 많은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간파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그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또는 다른 신분을 가장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면접에 응한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숨기고 있었고 언어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경우 중국 유학 경험이 있다고

둘러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체성을 숨기면서 지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 북한 관련 수업시간은 여전히 큰 스트레스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계기로 알려질까 봐 두려워한다. 담임선생님에게만 자신이 북한출신이라고 알려진 D-7은 북한관련 수업시간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체성 관련 불안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D-7, 여 17, 중3)

D-7: 수업 시간에...막...나이도 스트레스고요. 수업 시간에 남북한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 때도 되게 스트레스.....

면담자: 신경 쓰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

D-7: 수업시간에 어떻게 남북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말하는 자체가..

면담자: 중학교 지금도 너가 북한 앤지 모르잖아?

D-7: 모르긴 모르는데요, 좀 불안하잖아요.

면담자: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D-7: 가 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말하지 안...안...안할...

면담자: 아...고등학교에 가면은...?

D-7: 아예 싹 다 말 안하려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신에게 전가될까봐 두려운 D-7은 고등학교 가서는 교사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서 좀 더 확실한 방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연구원 B의 경우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숨기며 지내다가 중학교 동창의 폭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다.

(연구원B, 여, 25, 대3)

아무튼 되게 좀...사실 친구들한테 북한에...중학교 때는 얘기하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얘기 안 하고 다녔거든요. 얘기 안 하고 다니니까 애들이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같이 온 애가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왔다는 거 플러스 나이가 두 살 많은 것까지 된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국사회의

편가르기/경계긋기 때문에 정규학교에서 나오기도 한다. 현재는 대학생인 F-2의 경우 중고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 대거 학교를 그만 둔 이유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F-2, 남, 21, 대1)

면담자: 왜 그만 두는 거 같애?

F-2: 그만 두는 이유가 일단 딱 들어가면 억양 때문에 보는 시선이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고향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짐작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날카롭고, 고향사람들은 눈치 빠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다보니 내가 이 말 던지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채고 저거 재다보니까 친구들 잘 못 사귀고. 공부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학교생활 재미 없고 친구 못 사귀고 그만뒀어요. 애들이랑 학교 그만 둔 애들하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래요.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방식의 특별한 취급을 거부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학습 등을 도와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에서 비롯되더라도 북한이탈 청소년으로서의 구별이 바로 차별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B-1을 비롯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드러나게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뜻은 이해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1, 남, 18, 고1/ B-3, 남, 20, 고2)

면담자: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

B-1: 막 불러다니고요, 수업시간에 ***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요.

면담자: 그럼 어땠어? ***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B-1: 마음은 고맙지만 이걸 좀...

면담자: 너무 짐작은 표현이다 마음은 고맙지만...

B-1: 예 마음은 고맙지만요 아이 좀

면담자: 좀 불편했어?

B-3: 좀 불편했어요

또한 지원방법을 묻는 면담자에게도 남한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면담자의 질문에 많은 학생들의 1차적 반응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였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D-7, 여, 17, 중3)

면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면 좋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너희들을?

D-7: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별로 없는 거 같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그냥?

D-7: 그냥 같은...똑같이 취급했으면...

면담자: 너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 너를?

D-7: 똑같이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숨겨서 비가시화되면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거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학교를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언급한 내용 가운데, 학교에서 자신들을 가장 괴롭히는 요소 - 즉 배제의 요소-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들 청소년들의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이들 중 다수를 학교에서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이 내러티브에서, 자신들을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외적 요인들 - 즉 통합의 기제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주로 지지집단과 관계된다.

2. 통합 기제

1) 교사의 지원 (정규학교내부/외부 선생님 모두 포함)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과정 중 선생님을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언급했다. 이 때 ‘선생님’은 단지 정규교육과정내부의 선생님이 제한되지 않는다. 대성공사나 하나원시기의 여러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F-8의 경우는 무연고로 남한에 와서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하나둘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던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의 선생님과 인연을 맺어 진로결정과정에서 늘 함께 했던 경우이다. 이 선생님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F-8의 멘토로 역할하고 있다.

(F-8, 남, 24, 대2)

전 일단 **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하나원 퇴소하고 ***학교에 잠시 있다가**쌤이랑 같이 **에 있는 **중학교 3학년으로 갔죠.

C-3은 북한에서 유치원만 다니고 15세 때 남한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에 바로 편입을 한 경우이다. 학교생활을 시작한 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둘 학교 교사였던 (스스로, ‘통일교육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나 역시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의) 선생님들 도움을 받곤 하였다.

(C-3, 여, 21, 대2)

아무래도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선생님 밖에 없었으니까. 하나원에 다 선생님이었고, 하나원 나와서도 다 선생님이었고, 학교 가서 다 선생님이었고. 저는 선생님들과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 중략 - 일단은 그...통일 교육원 뭐 그런 쪽으로 북한에 관해 일을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할까, 급할 때 언제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급하면 그냥 전화하고 저는 진짜 나오자마자 수학을 몰랐어요. 그래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비가 50만원이 나왔어요. 그 달에. ***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분수가..그 문제를 다 불러 드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50만원이 나와 가지고 엄마한테 진

짜 죽을 줄...선생님들한테만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초기 ‘길찾기’ 과정에서 대성공사, 하나원 선생님들의 도움과 진로지도가 중요하다면, 그 이후의 조언자 역할은 정규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게 된다. 특별히 단순한 공부, 시험이외의 본인의 관심과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제안하는 역할들을 맡게 된다. 또한 선생님들은 대학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특별전형제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F-2, 남, 21, 대1)

저 솔직히 고3 3, 4월 달까지는요, 대학교 원서 넣을 때까지는요, 특별전형 있는지 몰랐어요. 실력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지방대 생각했어요. 가까운 아산이나 충남이나 가자. 강원도는 절대 안 가. 그랬는데 담임선생님이 막 침 흘리며 뛰어와 가지고 F-2아 특별전형이 있어. 너 ***에 원서 넣을 수 있어. **대도. 장난하지 마요 쌤. 아니야. 교무실에 가서. 제가 전교회장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 잘 해서 된 건 아니구요. 리더쉽. 선생님이 컴퓨터 보니까. 재외특별전형 둘. **대 넣었는데 **대는 떨어졌어요. **대 기분 나빠요. **대 안습. 정말 있는 거예요. **대만 넣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대도 넣고 **대도 넣고. **대가 제일 처음 발표 났어요. 9월 6일로. 교무실에서 선생님 몇 명이랑 같이 딱 클릭했는데 축하합니다. 선생님들이 더 신났어요. 막 신나고 교장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학교를 빛내주세요 하는 거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대 가게 된 거예요.

면담자: F-2이는 주로 쪽 담임선생님들이 대게 영향을 많이 줬네?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F-2: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선생’의 역할은 중고등학생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학교의 선생, 즉 교수의 역할도 낮은 교육문화에서 고전을 하는 북한이탈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길잡이’이자 ‘멘토’로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에서 중등과정을 마치고 남한으로 온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하여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던 F-5의 경우, 영어원서 읽기 등 학습적인 면에서부터 인적 자원의 확보까지 담당교수가 많은 지원을 한다.

(F-5, 남, 24, 대2)

F-5: 교수님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요.

면담자: 어떤 도움을 받은 거야? 교수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게 어떤 거야?

F-5: 학문적으로도 많이 받고,

면담자: 공부를 많이 도와주셨어?

F-5: 네.

면담자: 니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대답해주시고 이런 거? 개인 뭐 과외 시켜주시듯이 해주신 거야?

F-5: 네.

면담자: 그리고? 교수님이 또 어떤 도움을 주셨는데?

F-5: 음 그리고 자기도, 지금 제자들 사회에 또 나가있잖아요. 사회에 나가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 은행 지점장까지 있더라고요, 막 소개시켜주시고.

면담자: 음. 인간관계도?

F-5: 네네. 그분들도 처음부터 막 돈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면담자: 고생을 해 본 사람이다?

(F-5, 남, 24, 대2)

그 자본주의 공부하면서요, 제가 그 때 논문 보냈잖아요 리포터를,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하도 많으니까 필요 없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구빈법인가? 구빈법. 구빈법이라고

물론 공식적인 조연자 위치인 선생님의 도움과 더불어 다른 학생 친구들의 도움도 중요하다.

2) 또래들 사이의 지지집단: 교우, 친구, 기획단 등

(F-2, 남, 21, 대1)

F-2: 선생님들도 많이 챙겨주는데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이든 나가면 끝이지만 8시간, 10시간 공부하니까 친구들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요. 쉬는 시간에 숙제 하더라도 친구들이 와서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자존심부리면 안 돼요. 모르면 배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겸손했어요. 멍청해 보이는 지 애들이 와서 내가 아는데도, 모르지? 하면 응 해주고, 친구들이 힘이 됐고..

면답자: 남자애들은 많이 그만 뒀잖아 **중 때부터.

F-2: 맞아요.

입시, 성적위주의 힘든 정규교육과정에 남을 수 있는 원동력중 하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났던 교우들이다. 아래의 대학생이 기억하는 것처럼 교우에 대한 좋은 기억은 사실 학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함께 어울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였던 경험에서 비롯된다.

(F-2, 남, 21, 대1)

면답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다닌 건지...

F-2: 친구들 덕분이구요, 뛰어난 저의 유머덕분이죠. 애들 많이 사귀고. 저가 축구도 좋아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고, 친구가 좋아서 다녔고, 그리고 같이 수업시간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피시방 같이 가서 재밌고. 저는 일단 학교생활 즐거웠구요. 일단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려면요 운동이나 취미 같은 걸 잘 살려가지고 친구들과

학교 교우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 대한 태도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친구집단은 성적이나 학업 위주로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와는 다르게 학업 이외의 다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아래의 대화는 이러한 견해를 잘 표현한다.

(연구원B, 여, 25, 대3/ F-2, 남, 21, 대1)

면답자: 초등학교 선생님들 애들 많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얘기하는 게

결국은 공부, 선생님들은 많이 생각해.

연구원B: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은 꺾어보지 못 해서 그래.

면답자: 또 보면 공부 잘 하는 애가 적응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공부 잘 하면 아무튼 섞여 들어가니까.

F-2: ***도 공부 잘 하거든요. 저랑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중학교. 개는 평균이 80점 나오면 저는 30점 나오고 그랬어요.

연구원B: 진짜로?

F-2: 진짜. 공부 잘 했어요. 그런데 개는 말기없고 숫기 없잖아요. 지금은 성격이 변했는데. 개 **중학교 때러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면답자: 그만 두겠다 하다가 안 그만 뒀어.

F-2: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만 둔다고, 공부를 잘 해도 그러니까. 공부랑 상관없는 거 같아요. 학교는. 선생님들은 그런 애기 설문조사하는 거는, 선생님들은 저희들을 판단하는 거는 공부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습이네요.

면답자: 그러면 그건 아니다?

연구원B: 선생님들은 애들과의 그 문제 모르죠. 자기들은 수업시간때만 들어오고 종례 때만 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애들 관계를 모르지.

F2: 2명 모아 가르치는 거 아니고 몇 십명 가르치는 데.

3) 부모/가족

애정, 신뢰 그리고 구체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함께 해 온 가족의 지원은 이들의 학교생활에 큰 버팀목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경험이 전혀 달라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쉽지 않은 가족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학교 생활과 진로 결정 등의 요소에 있어 이들의 도움을 얻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C-4의 경우,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 과를, 언니의 영향으로 대학을 선택한 경우이다.

(C-4, 여, 25, 대2)

면답자: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알려준 교수님이 계셨어요?

C-4: 아니요.

면답자: 그러면 혼자서 그냥 사회복지학과다 하고 딱 짚은거예요?

C-4: 네. 아빠가 좀 도와주셨어요.

면담자: 아 아빠가?

C-4: 아빠가 너는 사회복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많이 뭐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학과 때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근데 아빠가 그냥 너는 사회복지 해. 근데 잘 들어간 거 같아요.

-중략-

면담자: **대는 어떻게 알았어요?

C-4: 언니가 **대 다녔거든요. 다니다 중퇴해서. 언니 때문에 갔어요. 원래 **대도 붙었거든요 근데 과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가. 그래서 **대 널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나서....그 때는 미용과 같까, 패션 같까 갈려고도 했어요. 근데 아빠가 거기 나가서 뭐하겠냐고. 여긴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는 텐데 그러셨어요.

면담자: 정리해보면 과를 정하는 데는 아빠의 영향이 컸고, 대학을 정하는 데는 언니의 영향이 컸네요. 언니랑 사이가 좋았나봐요.

C-4: 네네. 강의실 찾아가는 것도 언니한테 물어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규교육이외의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는 학교에 남게 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E-2, 남, 19, 고1/ E-1, 남, 18, 고1)

면담자: 그러면 니들 아직까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 그 원인이 뭘까?

E-2: 부모님. 졸업장을 따야 된다는 부모님.

면담자: E-1이는?

E-1: 엄마 땀에

V. 북한이탈 중고등학생의 진로탐색 전략

1. 학교의 의미
2. 진로탐색 전략

V. 북한이탈 중고등학생의 진로탐색 전략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배제의 경험은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하여금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살아남기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를 이탈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반 남한 청소년의 10배에 달하는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남아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들은 동료집단들의 이탈을 지켜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제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학교를 버려낸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배제와 편견의 일방적 피해자로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와 배제의 영역에 북한이탈 청소년을 고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에 남는 것을 선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단순한 수용과 “버티기”를 넘어서, 배제 상황과 협상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배경과 학교와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학교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1. 학교의 의미

북한이탈 청소년은 학교에 대해 의미화를 하면서 학교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남아있을(survival) 전략을 짠다. 학교의 의미는 공교육 안에 남아있는 이유를 알게 해줌과 동시에, 전략 생성의 배경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1) 졸업장(학력)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를 의미화 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졸업장 즉 학력이다. 청소년들은 학력이 앞으로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며, 동시에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전략으로서 학교를 선택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드러내었다. D-9는 19세로 현재 3살의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다.

(D-9, 남, 19세, 중3)

면담자: 그래도 지금까지 안 그만두고 가는 이유가 뭐야?

D-9: 처음에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졸업 안하면 이 사회에서 일 할 때도 안 받아주고 중학교라도 졸업을 해야.

D-9는 졸업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졸업장을 통해 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에서도 연속적으로 탈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학교가 학력을 쌓아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청소년 본인 뿐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뷰에 응한 중고등학생들 중 남한에서의 학교생활을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경우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급에 입학 혹은 전입하게 된 경우 중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거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본인이 진학을 꺼린 경우에는 부모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E-2의 면담에서이다.

(E-2, 남, 19세, 고1)

면담자: 그러면 니들 아직까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 그 원인이 뭘까?

E-2: 부모님. 졸업장을 따야 된다는 부모님.

면담자: 일을 하다보면 이제 또 필요한 게 생긴다고?

E-2: 아버지가 안 그래도 사업하니까 졸업시키고 같이 하자고..

E-2는 학교에 대해 상당한 반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졸업장’과 그를 기대하는 부모님의 의지로 나타내고 있다. E-2의 부모는 이 후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졸업을 필수 요소로 읽어내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에 있어서 E-5의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어머니의 권유로 23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5살인 현재 고 3에 다니고 있다.

(E-5, 남, 25, 고3)

면담자: 근데 그 때 왜 갑자기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E-5: 내가 가겠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가 봐라. 김정고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래도 가방만 들고 다녀도 배우는 게 많다. 정규교육 나오면 좀 더 잘되지 않겠냐. - 중략 - 23살 때 내가 입학했잖아,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가서 원래 돈 벌어야 하는 데 돈 버는 시간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니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못 벌었던 시간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까지 올라가면 잃어버렸던 시간과 못 벌었던 돈까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해주요.

E-5의 어머니는 한국사회가 학력사회임과 졸업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졸업장을 경제적 성공의 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23살의 아들에게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다닐 것을 권유하고 있다. E-5가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러한 동기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혹은 그 부모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부모들이 한국사회의 학력과 졸업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B-2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B-2, 남, 18, 고1)

면담자: 그럼 고등학교를 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떻게 생활과학고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B-2: 아 저는 엄마는 꼭 중학교, 다 철차를 거쳐서 대학 꼭 가라 그러셨거든요.

B-2의 어머니는 학력의 중요성을 인지할 뿐 아니라 ‘절차’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서를 거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에서 나오되지 않는 것이 곧 주류 사회의 편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그의 부모들은 학교를 졸업장과 학력으로 의미화 하며, 이것이 학교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주류문화의 습득 장

북한이탈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선택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이 대부분이다. 학교의 졸업장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또한 학력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B-2는 학교와 검정고시의 비교를 통해 학교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미화로 나타난다. B-2는 검정고시와 정규학교의 비교를 통해 학교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B-2, 남, 18, 고1)

면담자: 그럼 검정고시를, 아까 이제 B-2도 검정고시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정규 학교를 마치는 거랑 어떤 게 좀 다를까?

B-2: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럴 기회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고등학교는 넓잖아요. 활동하기 넓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좀 있고 듣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문제만 풀고 시험에 대한 핵심만 다 알아내고 그러잖아요. 상식 같은 거 기본 상식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없다고 그러던데.

B-2는 검정고시가 또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제공해주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B-2는 검정고시와의 비교를 통해 고등학교가 넓은 ‘상식’을 제공하는 공

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통하는 상식을 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 고등학교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질문에 대해 20세의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B-3은 검정고시를 선택했던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후속 재학 상황과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읽어내고 있다.

(B-3, 남, 20, 고2)

일단 검정고시 졸업하고요,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형들도 막 검정고시 보고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휴학을 많이 해요. 휴학을 진짜 많이 해요 따라가질 못해요... 그거는 인간관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즐길 줄 모르잖아요.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대학가서 엠티 가잖아요. 엠티 가서 즐기고 놀고 하잖아요. 근데 형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가니까 그런 즐길 줄을 모르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게 되면 수학여행 같은 거 있고 졸업여행 같은 거 있고 즐길 거 많잖아요, 그런 걸 못 즐기고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하고 대학교 가서 즐기려니까 못 따라가고 그거 땀에 자퇴하는 사람, 휴학하는 사람 많아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학 입학은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제도 자체로는 비교적 입학이 쉬운 편이다. B-3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후의 적응에 인간관계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읽어 내고 있다. 현재 제도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인간관계를 맺는 남한 사회의 방식을 습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북한이탈 청소년은 교육 기회에서 스스로 낙오된다. B-3은 한국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는 것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통의 경험이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남한 출신 청소년의 주류문화를 습득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장으로서 학교의 의미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적 유지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

인터뷰에 응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대신 학력을 취득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한 경험이 있다고 구술했다. 그럼에도, 검정고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부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학습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에 부여하는 의미는 ‘졸업장’으로 대변되는 학력 자체뿐 아니라, 학습의 양과 질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1과 B-4가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B-4는 현재 19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2살의 나이차로 인해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진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경험이 있다.

(B-4, 남, 19, 고1/ B-1, 남, 18, 고1)

면담자: 근데 B-4가 작년에는 고등학교 가는 거 되게 고민했었잖아. 검정고시 보고 그냥 학교 넘겨 버릴까. 하고.

B-4: 고등학교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검정고시라는 게 거의 60퍼센트 이상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면 60점은 맞겠는데요. 그게 빨리 따잖아요. 그러면 벼락치기 공부기 때문에 대학 가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3년 동안 천천히 쌓다가 가는 게 낫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검정고시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B-1: 저도 비슷해요. 대학교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벼락치기해서 간 거잖아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금방 무너질 거 같은데.

B-4는 고등학교의 학습 경험을 대학과 연계지어 보고 있다. 이는 남한 출신 청소년들이 정규 학교 내의 학업에 대해 큰 의미 부여나 관심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B-4 뿐 아니라 면접에 응했던 다수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학교 이외의 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배경에서 학교의 역할이 더 크게 의미화 된 점도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B-4뿐 아니라, B-1 역시 검정고시를 ‘벼락치기’로 표현하며, 학교를 학습의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기초 마련과 충분한 학업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학교의 의미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선택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탐색 전략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의미화를 통해 학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하는 전략은 다층적, 다면적이며, 복합적이다. 이들은 상황에 대해 역동적으로 행위하며,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개인성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제와 협상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배움과 길 찾기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1) 입시위주의 문화와 협상하기

(1) 버티기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공부와 성취를 강요하는 중·고등학교 문화는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묘사된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 청소년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으로 나타낸 첫 번째는 ‘버티기’이다. 이들은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보다는 자기, 탄압하기, 숨기 등 수동적인 도피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버티기를 시도한다. D-9는 앞서 학교를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졸업장으로 의미화 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이탈하거나 학업을 포기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D-9에게도 학교는 숙제와 벌이 이어지는 공간이며, 이에 대해 D-9는 ‘숨기’를 선택한다.

(D-9, 남, 19, 중3)

면담자: 애들이 지금 담임선생님은 어떠셔?

D-9: 그 1학년 때 제 담임 국어선생님인데 잘해주는게 잘해주는데 숙제를 안

하면 매일 때리니깐

면담자: 숙제 안 해가는구나 (웃음)

D-9: 네. 애들 국어 선생님 다 피해 다녀요

면담자: 국어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지 않아? *** 선생님?

D-9: 네. 숙제 안 할 때는 최대한 숨어 다니고

D-9는 교사에 대해 ‘잘해준다’와 ‘숙제를 안 하면 때린다’의 두 방식으로 읽어내고 있다. 이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나타냄과 동시에, 학업성취를 체벌로 강요하는 학교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현되며,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하여 D-9는 직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교사로 대표되는 입시문화 체제의 시선에서 피해있는 것으로 버틴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숨어있는 존재로 관계 맺는 방식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자기’이다. D-3과 E-2는 경기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청소년들로,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D-3, 남, 16, 중2/ E-2, 남, 19, 고1)

면담자: 애들아 네네 이제 학교 다닌 지 4년 됐잖아 처음이랑 지금이랑 어때?

더 힘들어? 똑같아?

E-2: 더 힘들어요.

면담자: D-3이네?

D-3: 더 힘들어요.

면담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어때? 어렵지

D-3: 자요 아니면 문자하고

면담자: 어디 여기 학교에서 따로 해주는 건 없지?

E-2: 그런 거 해주기 바라지 않아요.

D-3과 E-2는 학교에 대하여 상당히 수동적인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학교 수업에 자거나, 다른 짓을 하는 등 학교의 본래 활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수업을 견뎌내는 한편,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학교가 무엇을 더 해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이는 학교에 대해 더 이상 기대가 없는 모습으로 읽히지며, 학교의 입시 위주 문화에 대해 이미 체념한 것으로 읽

혀질 수 있다. 이들은 학교의 의도 및 활동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버티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자는 것으로 학교의 입시문화를 무시하고, 학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 무기력적인 대응이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고유한 것은 아니다. E-5는 25세로 고 3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E-5, 남, 25, 고3)

면담자: 선생님 말 안 듣지?

E-5: 공부하려고 왔는지 자려고 왔는지.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까지 내가 은근히 또릿또릿 했다니까요. 3학년 들어와서 애들하고 같이 잠을 자요. 놀 때는 또 같이 또 놀고.

자기와 놀기를 통한 학교생활 회피는 남한 다수 청소년에게서도 발견되는 유용한 학교 버티기 전략이다. 학교의 입시문화에 부응하는 것도, 그것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으로 ‘자기’를 선택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버티기’ 전략은 단순히 이들이 선택한 전략일 뿐 아니라, 남한 사회 다수 청소년들의 주류 문화를 습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 대응 전략이 완벽하게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를 E-2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E-2는 고 1에 재학하고 있는 19세의 남학생이다.

(E-2, 남, 19, 고1)

면담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뎠나? 중학교 간 거랑 고등학교랑 많이 차이 나?

E-2: 네 많이 차이나요. 공부하는 시간 한 시간 더 늘었잖아요.

면담자: 맞아. 가뜰이나 힘든데 한 시간까지 늘면 미치지.

E-2: 네 미쳐요. 진짜 아 그리고 하는 거 없어요. 저는 하는 거 없긴 없는데 근데 자는 것도 또 한계예요.

E-2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버티기’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연장된 것 자체가 고통일 정도로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E-2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학교를 이탈하기 보다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에 대해 E-2가 분명 중요한 방향으로 의미화 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E-2는 학교에서 버티기 위해 아무것도 안하기와 자기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이의 한계에 대해 E-2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 한계를 인지한 시점에서 ‘버티기’ 전략은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최선의 전략이 될 수는 없지만, 이외의 전략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자각된 한계가 북한이탈 청소년을 중고등학교에서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공부 이외의 영역에서 성취하기

장기간의 학습결손과 교육과정 및 문화차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은 그것에서 단념하고, 학교생활을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시위주의 학교 문화와 협상을 시도한다. A-1은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로 학교문화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이다. A-1은 18세로 중 2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이며, 중국에서 유년기부터 9년 이상 체류하여 중 1로 입학하던 당시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 주류 문화 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도부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제와 협상한다.

(A-1, 남, 18, 중2)

면담자: 선도부는 어떻게?

A-1: 지금 올해 선도부 부장 맡고 있고요...가다가 뭐 복도에서 쓰레기 줍든가 저도 모르고 애들이 안 줍는 거 주웠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딱 보는 거 예요. 또 급식실에서 줄 세우고. 그리고 그 체육실에서 선생님이 제 이름 불러가지고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잘못을 했나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선도부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A-1의 선도부 활동은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선생님의 인정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휴지줍기 등의 학교생활 내 사소한 선행을 통한 모범보이기 등은 공부가 아니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을 A-1에게 제공한다. 선도부로서 활동은 교사 뿐 아니라 또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작용한다.

(A-1, 남, 18, 중2)

면담자: A-1이 학교에서 특별히 친한 친구들이 좀 있니?

A-1: 네 있어요.

면담자: 몇 명 정도?

A-1: 반 애들 뒤..2학년 때는 한 착한 애들은 다 저한테 오고요. 3학년 애들도 뒤 착한 애들은 다 저한테 와요. 애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착한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돈 뺏지 말라고. 몇 번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다 질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애들은 저 선도부도 하니까 머리 길으면 안 된다 막 잔소리 좀 하니까

면담자: 그럼 A-1은 나이는? 또래 애들 보다 많아?

A-1: ...처음에는 어떻게 접촉해야할지. 같이 놀아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 안 했는데. 2학년 선도부 하면서 애들 관리 하니까.

A-1은 선도부활동을 통해 교사의 인정과 또래에 대해 일정 영역에서의 권위를 가지게 하였으며, 학교 내 동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는 학습결손, 언어능력 부족 등으로 자칫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A-1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F-2 역시 축구부 활동이라는 공부 이외의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살아남은 사례를 보여준다. F-2는 21세로 현재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F-2, 남, 21, 대1)

면담자: 우리가 대학생들로 한 5,6명 만났는데 내 기억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대학 간 애가 연구원A 알지? 연구원A? 연구원A밖에 없었던 거 같거든. 특히 남자애들은 많이 그만 뒀잖아 **중 때부터. 그런데 F-2 같은 경우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다닌 건지...

F-2: 친구들 덕분이구요, 뛰어난 저의 유머덕분이죠. 애들 많이 사귀고. 저가 축구도 좋아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고, 친구가 좋아서 다녔고, 그리고 같이 수업시간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학교 끝나고 피시방 같이 가서 재밌고. 저는 일단 학교생활 즐거웠구요. 일단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려면요 운동이나 취미 같은 걸 잘 살려가지고 친구들과

면답자: 축구부가 좋았구나?

F-2: 전 일단 공이 좋았구요. 공 한 번 던져주면...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 제가 축구부주장이었어요. 축구할 때마다 팬들이 있었어요. 예쁘진 않았지만.

F-2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거쳐 대학에 입학 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게다가 학교생활을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며 기억하는 소수의 북한 이탈 청소년 중 하나이다. 이런 결과는 F-2의 뛰어난 학업 능력이나 성적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F-2는 중학교 졸업 이후, 일반계가 아닌 전문계(정보산업고)로 진학하였고, 그 안에서도 높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가 학교를 “즐겁게” 버텨낸 것은 축구부 활동이라는 과외 활동과 이를 통한 또래와의 활발한 교류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F-2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북한이탈 청소년 중 다른 청소년의 사례를 들면서 높은 성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를 버텨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구술한다.

(F-2, 남, 21, 대1)

F-2: ***, 아까 ***도 공부 잘 하거든요. 저랑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중학교. 개는 평균이 80점 나오면 저는 30점 나오고 그랬어요.

연구원B: 진짜로?

F-2: 진짜. 공부 잘 했어요. 그런데 개는 말이 없고 숫기 없잖아요. 지금은 성격이 변했는데. 개 **중학교 때려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면답자: 그만 두겠다 하다가 안 그만 뒀어.

F-2: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만 둔다고, 공부를 잘 해도 그러니까. 공부랑 상관없는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입시를 위한 성적과 학업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이 안에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결손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2의 사례에서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살아남는 데에는 성적 향상이나 학업능력 강화만큼이나, 공부 이외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시 중심 문화의 기준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능력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공부는 못하지만 리더십도 있고 친구도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다각적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적극적인 적성 탐색

이 전략을 구사하는 청소년들은 앞의 청소년들보다 더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공부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소위 ‘국영수’ 과목이 아닌, 자신의 적성과 관련된 과목들이다. 적극적인 적성 탐색의 전략을 구사하는 청소년들은 보통 입시에서의 성공이 더 강조되는 인문계 학교 보다는 전문계(실업계)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D-2는 중3에 재학 중인 17세의 여학생으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다. 학교 공부는 쉽지 않은 편이다.

(D-2, 여, 17, 중3)

D-2: 좋아하는 과목은요 미술이고요 싫어하는 과목은 많아요.

면담자: 미술은 왜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D-2: 저 미술은 조금 잘하고요. 그리고 제 꿈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면담자: 싫어하는 과목은 어떤 거 있어?

D-2: 영어 수학과학 다 싫어요.

면담자: 왜?

D-2: 못해서.

면담자: D-2야 너는 아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

D-2: 저요.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중3이니까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그거 엄마하고 나 이렇게 할 건데 나 학원 보내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거 30만원씩 많이 나가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 학원 보내주겠다 하니까. 엄마랑 마찰이 되요 화나고 짜증나고. 그래요.

면담자: 그럼 D-2이는 일반계 가고 싶은 거야?

D-2: 아니요. 실업계고등학교요.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는 D-2에게 불편하며, 학교에서 중시하는 과목을 열심히 할 마음도 크게 없어서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습 멘토링에도 불참하고 있다. 그러나 D-2는 학업을 중단할 의지는 없다. D-2는 인문계로 진학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의 스스로를 맞추기 보다는 전문화 된 방향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18세로 고 1에 재학 중인 남학생인 B-2도 마찬가지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B-2, 남, 18, 고1)

면담자: 친구가 요리, 조리과도 다니면서 끝나면 요리도 막 배운다 그랬는데 그럼 원래 요리에 관심 많이 있었어요?

B-2: 아 원래 없었는데요, 그냥 취미 삼아 배우려 그랬어요. 취미로 배우다가 만들고 그러고 보니까 재밌고 또 만든 음식 맛있으니까 취미 갖게 됐어요. 그 쪽으로 갈려고요. 취업 같은 거 할 때도 좀 전문적으로.

(4) 학업에 열중하기

앞서 다룬 전략들은 소위 입시공부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는 학교의 기대와는 다르게 파생된 전략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청소년들 또한 있다. 이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며,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과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고등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 중 B-1 역시 공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B-1은 남한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하여 현재 18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이다.

(B-1, 남, 18, 고1)

면담자: 그러면 어떻게? 인문계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B-1: 전 공부하려고요.

면담자: 공부에 취미가 있구나. 여긴 또.

B-1: 아 저는 취미가 없었다가 생겼어요. 중 3 때. 아 자꾸 성적이 안 나오니까요, 공부하니까 되는 거 예요.

면담자: 근데 그 중학교 때 처음에 공부 힘들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

B-1: 힘든 게 아니라 안 했죠. 공부가 좀 재미없었어요. 그 때는 하도 안 하다가 하니깐. 3학년 오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B-3: 난 성적 떨어지는데?

B-1: 아 그니까 워낙 성적이 낮아가지고요 떨어질 줄 몰라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요 진짜 이상한 건요, 제가요 중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어요, 중 3 때 했으니까 내신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요, 애들이 제가 다 공부 잘하는 줄 아는 거 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막 했거든요.

면담자: 애들이 막 물어봐?

B-1: 네 와서 가르쳐달라고 이거 어떻게 푸냐고. 지난번에 시험 봤는데요, 중학교 때 막 성적이 7,80점 나온 애랑 저랑 성적이 똑같아요, 진짜 놀랐어요.

B-1은 학업 능력을 통해 또래의 인정과 자신에 대한 만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B-1이 처음부터 공부에 대한 흥미가 있었거나, 학업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B-1이 학업에 몰두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게 된 것은,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낮은 성적에서부터 성장하게 된 만족감이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업 향상의 과정에서 본래의 성적보다 또래에게 높게 평가되었지만, 그것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B-1의 사례는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B-1이 학습에 열중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은 것이 잘 드러나는 다른 사례는 수준별 학습에 관한 에피소드이다.

(B-1, 남, 18, 고1)

면담자: 요즘 인문계 고등학교 보니까 수준별 이동학습도 하고 그러던데 너

네도 하니?

B-1: 네 개가 있는데요. a, b, c, d가 있거든요. 저 영어가 b구요, 수학이 c예요.

면답자2: 그럼 중상위인데?

면답자1: 그게 중학교 내신으로 배정받은 거 아냐?

B-1: 아뇨 중학교 올라와서요. 시험을 쳐서 올라가는 건데요, 제가 방학 때요, 영어 단어만 외워댔어요. 영어는 잘 봤는데 수학은…

수준별 학습은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학교의 교육방식이다. B-1은 이와 같은 교육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 보다는, 방학기간의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며 자신이 점유한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B-1 유형의 청소년들이 가진 학습 욕구 및 성취 의욕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1은 해당 지역아동 센터에서 학습 멘토링을 받고 있지만 대학생 자원 활동에 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없지 않다.

B-1의 사례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B-1이 재복 당시 제1중학교(지역 내 가장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정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했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미루어 볼 때, B-1이 학업에 열중하기를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에 대한 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일정정도의 성취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론되며, 재복 당시의 경험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생애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D-5 역시 학업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청소년이다. D-5는 18세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D-5, 여, 18, 중3)

면답자: 처음 하나원을 나온다면 어떤 지원이 있었음 좋겠는지?

D-5: 공부를 집중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었음 좋겠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땀에는 한다고 했지만 성적은 2년 정도가 지나서야 서서히 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평균이 45점인가…솔직히 되게 실망이 되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했더니 70점

정도는 나오더라구요.

면담자: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은?

D-5: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진학을 안 할 거 예요.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나절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 갈 거 예요. 난 미국에 빨리 가야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둘째언니랑 친한데 언니가 미국에서 혼자서 생활하느라 많이 외로운가 봐요.

면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

D-5: 내가 나이도 두 살 많은데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에 가면 왠지 늦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굳이 고등학교를 다 나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D-5는 성적을 높이는 데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D-5는 현재 중학교에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고, 무난히 재학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불생각이다. D-5가 이러한 결심을 한 배경은 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학습에 열중하여 학교에 잘 적응해 왔음에도, 나이 차이와 정규 학교를 모두 졸업 할 때 자신이 소요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초조함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습에 열중하는 전략이 나이 차이에 의한 사회적 배제와 부딪힐 때 좌절되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처한 중층적인 소외를 잘 드러내준다.

2) 연령 중심의 문화와 협상하기

(1) 나이차이 뛰어넘기

연령차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일정 나이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있고, 나이에 따라 상하관계가 결정되는 한국사회에서 나이 차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배제 요소 중 하나이다. 그중 첫 번째 전략은 나이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 전략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이 차이가 났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호칭을 바꾸거나 관계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중 나이차가 1세~2세인 청소년은 공개된 나이 차이를 건너뛰어서 보통 동갑내기 또래가 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래와 2살 차이나는 중학생 A-1, 고등학생 E-2, 또래와 1살 차이나는 B-2가 모두 그런 사례이다.

(A-1, 남, 18, 중3)

면담자: 음. 애들하고 편하게 노는구나. 그야 말로 편하게.

A-1: 어떤 애들은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 편하게 해라 친구하자. 어떤 애들은 끝까지 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너 맘대로 해라고 하고.

(E-2, 남, 19, 고1)

면담자: 형이라고 부르니? E-1이는 친구?

E-2: 형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다 친구예요. 친구처럼 대하죠.

(B-2, 남, 18, 고1/ B-3, 남, 20, 고2)

면담자: 지금 뭐라고 불러?

B-2: 있잖아요, 저희 학생증이요, 체육할 때 학생증 잃어버렸거든요, 중요한 건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써있어요. 애들이 그거 다 본거예요 그거를요, ... 딱 저녁에 문자 왔어요. ...나 그냥 친구니까 같은 반이고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할 게 이래요, 그래 알아서해 그랬더니 응 알았어 B-2야. 끝나구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도.

B-3: 애네는 그러네. 오 좋네. 니네는.

B-2: 착해. 애들이 조리과는 다 착해.

B-2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나이가 밝혀졌을 때 여전히 친구라고 해준 학급 동료들 ‘착하다’고 표현한다. B-2 뿐 아니라 나이가 밝혀진 후에 형 혹은 언니로 대접해주는 것보다도 또래로 대해주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은 고마움을 표현한다.

(연구원B, 여, 25, 대3)

근데 중학교에서 같이 온 애가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왔다는 거 플러스 나이가 두 살 많은 것까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잘 지내는 거예요.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애들이 잘 넘어가고, 그럼 어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고맙게 생각해서 다니다가...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의 또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전략은 동갑으로 구성된 동질집단 안에서 나이차이로 인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자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청소년들이 나이 차이를 인식했을 때 연장자로 대접해주는 것보다도 또래로 대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차별도, 특혜도 아닌 보통의 청소년으로 대해주길 바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모두 간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B-3은 고등학생으로 또래와 2살이 차이나는 경우이다.

(B-3, 남, 20, 고2)

B-3: 개가 그렇게 나한테 질문했다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 오빠라고 불러야 해 뭐 어떻게 불러야해? 나 그 말 듣고 휴 한참 고민하다가 편한대로 불러 이랬죠. 그니까 그래? 딱 하는 순간 애가 표정이 어두워져.

면담자: 복잡해지는 거지.

B-3: 막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학교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면담자: 지금 뭐라고 불러?

B-3: 지금은 그냥 이름 부르고 하거든요 근데...나랑 동갑인 애들 나보다 한 살 어린애들보고 형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야야 하니까 개네도 좀 그렇고 나한테도 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얘기할 때 보면요 움찔움찔 거려요, 야 하면서 부르면서도 갑자기 실수한 것처럼...

B-3은 위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나이 뛰어넘기 전략을 구사하지만, 상대와 본인 모두 그다지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나이로 인한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 나이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만만한 벽이 아

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로, 본인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자 하고 또래 들도 받아들여주지만, 교사가 나이 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E-4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같은 반 친구들과 2살이 차이난다.

(E-4, 남, 19, 고1)

E-4: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맞춰서 놀아주고 그래요.

면담자: 남한친구들한테 맞춰서?

E-4: 네. 네 맞춰서 놀아주고,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한번 맞춰서 놀다가 교실 안에서 농구공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고 그 친구가 저한테 찼어요. 제가 받긴 했는데, 너무 세게 차서 제가 안 받고 피해버렸어요. 피해버렸는데 그 뭐야 이중 유리창인데 하나 깨졌더라고요. 담임이 불러서 내려가니까. 담임이 하는 말이...무조건 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나이 많으면 나이 값에 맞게 행동해라. 이거예요 지금. 열 받잖아요. 열 받아서 나오니까. 욱 하는 거예요.

E-4의 나이 뛰어넘기 전략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분명 유용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4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학교를 포함한 사회 문화가 연령 중심인 이상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나이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연장자로 입장 정하기

나이 차이에 대한 두 번째 전략은 연장자로 입장정하기이다. 이 전략은 3세 이상의 나이차가 난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D-9는 또래와 3살이 차이 나는 중학생이다.

(D-9, 남, 19, 중3)

면담자: 몇 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 통하고 그런 애들 있어?

D-9: 한 열 명 정도.

면담자: 아. 그럼 뭐라고 불러? 그냥 이름 불러? 형이라고 불러? D-9이형.

D-9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다녀서 중학교로 진학했지만 같은 반 급우 보다는 또래의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더 많은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면 동갑들과 함께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급우들과 6세 차이나는 E-5는 좀 더 분명하게 연장자로 입장을 정한다.

(E-5, 남, 25, 고3)

면담자: 아 선물도 줘?

E-5: …애들은 한 끼 사준다~ 그러면 엄청 대단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난 그런 걸 그렇게 생각 안했거든요. 애들아 한 끼 먹자~ 애들이 또 모르잖아요. ‘야 형이 사준데~’…아 내가 생일이니까, 생일에 만원짜리 케익 사줘야겠구나, 야 너 오늘 이 새끼 생일이라면서. 생일 축하한다. 생일 케익 만원짜리 사주고 그랬는데…

면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친하게 지내니까

E-5: 요즘 애들이 싸가지 없이 하면, ‘야 이거는 니가 잘못했어, 니 잘못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휴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E-5는 급우와의 나이 차이를 급우들을 포용하고, 돌보는 의미까지로 이해한다. 생일을 챙겨주고 간식을 사주는 등의 일부러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일까지 E-5는 급우들에 대해 ‘형’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전략으로 우리 사회의 연령 중심 문화와 협상한다.

(3) 학교 나가기

나이 차이에 대응 하는 가장 많은 전략 중 하나는 ‘학교 나가기’ 이다. 연령차로 인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등은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규학교를 이탈하게 한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중 현재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많은 수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나이 차이로 인한 초조함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연구원B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로 입학 한 상태에서 자퇴를 결심했다.

(연구원B, 여, 25, 대3)

또래 애들은 막 사회 나가서 그 나이...진짜 대학교 2학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불안하기보다도..뭐랄까...알지 못할 감정들이 막 이런 거예요. 사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거의 20살 넘게 보고 사람들이...지금도 많이 삭아 보이지만...그런데 학교에 가면, 교복 입고 가면 애고, 애 취급받고...완전 고등학교 1학년 취급받고....그게 정체성이란 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내가 20살인데,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면 솔직히 내가 몇 살... 졸업하면 30살...끔찍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학교 기간에 내가 휴학을 한 두 번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진짜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나이가 생명이잖아요. 30살 넘으면 거의 취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압박 같은 게 심해지고...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눈 꼭 감고 그냥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빨리 봐서 대학을 가야겠다.

연구원B는 ‘여자는 나이가 생명’이며 한국 사회가 연령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또한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나이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다른 점에 혼란을 느낀다. 연구원B의 정규학교 자퇴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후 연령과 학업, 검정고시 일정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정이었다. 연구원B의 경우엔 학교생활에도 비교적 잘 적응한 상태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퇴를 결심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 같은 사례로 중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C-3의 사례도 있다.

(C-3, 여, 21, 대2)

C-3: 일단은 급하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저보다 두 살이 어린 애들이랑 다니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만 두기를..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만 두고 6개월을 쉬어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다 따져서. 이때 그만 두어야겠다. 이 때 그만두지 않으면 이 시기를 넘기고 이제 1년 넘으면 어차피 그 때가서 한다고 해도 1년이나 6년이나 똥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따라잡자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일단 원래 목표가 그거였어요. 검정고시 반이 4월에 치고, 합격하니까 8월에 바로 또 합격을 해야 그 해에 바로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위와 같이 C-3는 연구원B와 마찬가지로 연령중심의 사회 운영을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나이에 맞는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나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 내에서 당연한 욕구이며, 이와 같은 사회 시스템 상에서 나이차이로 인한 학교 이탈은 추가적 대안이 없는 한 앞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

3)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1) 정체성 감추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이 취하는 첫 번째 전략은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교육과정상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북한에 대한 모순적이고 복잡한 시선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안겨주는 요인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같이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 출신배경에 대해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렵다. D-7은 현재 중학생에 재학하고 있으며,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꼈었다.

(D-7, 여, 17, 중3)

면담자: 중학교 지금도 너가 북한 앤지 모르잖아?

D-7: 모르긴 모르는데요, 좀 불안하잖아요.

면담자: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D-7: 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면담자: 아...고등학교에 가면은...?

D-7: 아예 싹 다 말 안하려고.

D-7의 정체성 감추기 전략은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D-7과 같이 전체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중에서 정체성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A-2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2, 여, 16, 중3)

면담자1: 지금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서 중학교 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 북에서 온 거를 아이들이 알아요?

A-2: 아 저는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면담자1: 굳이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애써 뭐 물어보면 중국유학파라고도 말하는데,

A-2: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면담자2: 아는 애들은 아는 대로 가고, 몰라서 물어보는 애들은 분명히 이야기 안 한다는 거지?

A-2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려고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 중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의도와 교사의 언급 또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먼저 말하지는 않는다. 이 중에는 반 친구들에게는 공개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젠가는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완전히 정체성을 부정하지도 않는 동시에,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협상의 전략으로 부분적으로 감추기 혹은 부분적으로 드러내기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긍정적으로 역할하기

편견과 차별에 대한 또 다른 전략은 자신이 편견을 깰 수 있는 모델로서 역할 하는 것이다. B-2는 또래 남한 친구에게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 사례로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B-2, 남, 18, 고1)

B-2: 개가 말하는데, 듣기로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애들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다 좋게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

게 말했어요. 뭐 그렇게 싸우는 애들도 있고 착한 애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개가 봤을 때는 그 말을 믿을 거 같대요, 네가 있으니까 좀 괜찮아 보인대요,

면답자: 남한 애들이 봤을 때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B-2: 예 소문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애들이.

면답자: 근데 그 친구는 너 때문에…

B-2: 예, 괜찮아졌다고. 애가 착해요.

B-2의 사례는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의 청소년이 함께 공부하고, 친구가 되었을 때 다른 종류의 남북문화이해교육과 다수자 교육보다도 긍정적으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북한 출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로 역할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3) 기회로 활용하기

편견과 차별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드문 일이다. 고1에 재학 중인 19세 남학생 B-4는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호기심을 이용하여 친구를 만드는 기회로 삼은 특수한 케이스이다.

(B-4, 남, 19, 고1)

면답자: 학교 처음 가면은 낯선 것도 많았을 텐데 뭐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어?

B-4: 일단, 일단은 학교 들어가면 모든 게 지금 적응 안 된 상태잖아요. 선생님 설명하시는 것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일단 주변에 애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친구들을 주변에 만든 다음에. 이제 딱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퍼지면서. 그 때 학교에 나 밖에 없었어요. 전교생이 다 나한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애들을 모았죠.

B-4가 또래의 관심을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출신 다수자와 다르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은 편

견과 차별을 만연하게 하는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B-4가 이를 적용에 유용하게 활용한 것은 같은 현실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다양한 전략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B-4는 지금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취하는 전략은 상대에 따라, 학교 이동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응 방식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원 동원 전략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적다. 사교육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도 소수 있지만, 학교 교육이 전부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며 진지하게 진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또한 중고등학생이라는 특성상 금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자원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정보와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한다.

(1) 인터넷 활용

인터넷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길찾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금전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진학 정보, 아르바이트 정보, 그 외 영역에서 능력을 키우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그중 연구원A는 독특하게 권투를 배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연구원A는 초, 중, 고를 모두 거쳐 현재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21세의 여학생이다.

(연구원A, 여, 21, 대1)

연구원A: 아무 운동이나 하고 싶었는데, 땀 흘리는 거 아무거나.

면담자: 그 때 언제였다고? 고2?

연구원A: 네, 그 때도 고2초였어요. 막 보다가. 인터넷으로 체육관 검색하고 그랬는데, 태권도 검도는 너무 초딩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권투 체육관

이 우연히 있었는데, 거기는 아저씨들도 있고 다 오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괜찮겠다. 처음에는 살도 빨 검, 정신도 차릴 겸해서

그 외 A-1은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D-2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길을 찾는 곳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2) 지원기관 이용하기

북한이탈 청소년이 동원하는 또 다른 전략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관, 공부방, 종교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D-5는 공부방을 이용한 사례이다.

(D-5, 여, 18, 중3)

면담자: 처음 남한에서 와서 학교를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D-5: 처음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 힘들었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하나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방과 후 공부방인 **학교를 소개해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준비물이며 알림장을 가지고 가서 물어봐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D-5와 마찬가지로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사운영 및 과목 준비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집에 없거나, 또는 집에 있더라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부족하여 충분히 지원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지원기관이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D-1 역시 복지관을 통해 1:1 멘토링을 받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D-1, 여, 16, 중3)

면담자: D-1은 영어 공부해? 학원 다니니?

D-1: 과외요.

면담자: 과외? 그럼 너네 집으로 와서 하는 과외야, 그게? 무슨 과목? 둘이 같이 하는 거야?

D-1: 복지관에서 해 주는데요.

면담자: **복지관? 그럼 대학생 언니가 오는 거야? 언니가 와서 뭘 가르쳐줘?

D-1: 원래 영어까지 했는데, 수학.

면담자: 그러니까 언니가 와서 너만 가르쳐 주는 거야?

D-1: 아니요, 또 한 명이랑.

면담자: 학원 다니는 건 따로 없고, 과외만?

D-1: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면담자: 가르치는데 있어?

D-7: 동사무소?

D-1: 동사무소에서 수학을...

면담자: 동사무소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 뭘 가르쳐줘, 동사무소에서?

D-1: 수학 영어.

D-1이 이용하는 기관들은 대표적인 지역사회의 기관들이다. 대부분 무료 혹은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운영과 질이 담보될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제한된 인적자원과의 의견교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길찾기에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제한된 인적자원과의 의견교환이다. 이들은 담임교사, 부모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거나, 탐색한다. E-3과 E-4, E-5는 교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이다.

(E-3, 남, 20, 고1/ E-4, 남, 19, 고1)

면담자: 대부분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정보를 얻어? 진로라든지 너가 하고 싶은 쪽에서.

E-3, E-4: 선생님이요. 학교선생님.

(E-5, 남, 25, 고3)

학교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진로 때문에. 고민이 아주 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진 생각을 못해봤는데, 고등학교는 2학년 땡가, 애들 때문에 좀 그랬죠. 나

이 때문에 그리 문제에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에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와서 나를 만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이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물론 부모이다. 다양한 사례들에서 진로 및 진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모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중 B-1의 경우는 어머니가 길 찾기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했다.

(B-1, 남, 18, 고1)

면담자: 그럼 **고 결정할 때는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어?

B-1: **고요? 엄마죠 엄마. 막 그 고등학교 결정할 때요, 검정고시도 생각나고 그런 지름길 생각나잖아요, 엄마가요 공부해라 하는거예요, 그래서 공부쪽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부모 및 선생님이라는 인적 자원은 제한된 만큼 유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 및 부모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지도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VI.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전략

1. 학교의 의미
2.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전략

VI.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전략

1. 학교의 의미

북한이탈 청소년 중 대학생들에게 학교의 의미는 중·고등학생에게 보다 명확하다. 그런 만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략과 의지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보다 확고한 편이다. 또한 대학과 관계 맺고 학교를 의미화하는 방식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다. 대학이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가지는 의미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중·고등학교의 학교 문화가 입시에 집중되어 다양한 배제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 입학에 위한 것이다. 한국 사회 내에서 중·고등학교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도 상급학교인 대학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대학이 미치는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그 이유는 대학이 사회로 진입하게 해주는 주요 관문인 동시에, 사회에서의 계급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 역시 대학의 의미를 같은 맥락에서 읽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위치의 특수성이 대학교의 의미를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대학에 부여하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회적 성취의 관문, 사회적 네트워크의 장,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의 장이라는 점이다.

1) 사회적 성취의 관문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취업의 기본 조건이라고 불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 만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학을 의미화 한다.

(연구원B, 여, 25, 대3)

진짜 솔직히 우리 북한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신분상승을 수직상승할 수 있는 기회예요. 평생 진짜 서민으로 사는 그 길 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국사회에선 학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학벌을 뚫고 올라간다는 게 우리한테 정말 큰 거지.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한테는 부모 대에서 이루지 못 한 걸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갈수록 줄어들어드니까, 상류대에선 안 받잖아요.

연구원B는 한국사회가 학벌사회라는 것을 간파하며, 대학이 신분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읽어내고 있다. 연구원B가 대학을 더욱 중요하게 읽어내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내에서 가진 사회·경제적 위치 또한 파악했기 때문이다. 앞서 배제를 다룬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네트워크와 문화자본의 부족 및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성취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진로에 관련된 부분일수록 많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대학이 가진 중요성은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다. C-1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학을 의미화 하는 27세의 남자 대학생이다. C-1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유명사립대에 입학했다.

(C-1, 남, 27, 대3)

일단은 뭐 대학을 다니면...북한사람들이 일단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그런데 돈이 적어가지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취급한다. 뭐 이러는데 저는 동감 반 반감 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대학교까지 간 자들이 있는데, 온 지 2~3년 돼가지고 제가 사장이라도 안 받겠어요. ...그럼 어쨌거나 지금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일을 해서 일 쪽으로 경력을 쌓고 그런 것 보다 어쨌거나 나중에 내 미래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 확신?

C-1은 대학교육이 직업 및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할 때 그것이 중요한 채용 판단 조건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화 과정에서 C-1은

현재 대학생활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성취의 관문으로 대학을 의미화 하는 방식은 좀 더 높은 인지도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21세의 남자 대학생 F-2는 자신이 일명 ‘명문대’에 다니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을 표현하며, 21세의 여대생 C-3은 인터넷에 게재된 학교 순위를 검색해서 입학할 정도로 대학과 대학의 유명세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C-3, 여, 21, 대2)

대학교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아는 대학이 없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어떤 대학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 순위를 그냥 쳤어요. 그건 그냥 대학 100까지 죽 나와요. 거기에서 한 20컷만 잘라서, 왜냐면 20컷만 인 서울이거든요. 그 외로 나가면 인 서울이 아니라 좀 인천이나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를 싹 뒤졌어요. ...00대랑 xx대는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랑 □대랑 봤어요. 눈을 낮게 봤어요.

C-3은 대입을 준비하기 전, 한국이 학벌사회라는 것, 게다가 대학별로 순위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로 대학의 이름에 민감하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인 서울’이라는 표현이 나타내듯이 서울 중심성을 파악하고 학교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대학교는 사회적 성취의 관문 즉 주류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입구로 의미화 된다.

2) 사회적 네트워크의 장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또래와 인간관계를 맺고 유용한 인적자원과 만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장이기도 하다. 열악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곳으로서 대학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의미를 가진다. 24세의 남학생 F-1은 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서 맺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F-1, 남, 24, 대3)

사회를 나가게 되면, 일단은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우리 동문 정도로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가끔씩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는 무지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F-1이 대학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동문’이다. 동문은 학연과 지연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F-1에게 대학은 동문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까지도 알려주는 공간이다.

(F-1, 남, 24, 대3)

F-1: 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떤 면에서?

F-1: 회사에 들어가고 동료랑 그렇고, 원래 회사라는 게 윗사람이 많이 시키고 그런 게, 회사의 기본적인 성격이니까 그래도 또 그런 거 적응 못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물론 그 일 말고도 할 건 있지만 그런 것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그만큼 잘 해야지. 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진짜 학교 생활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긴 하지만 가끔 가장 노는 게, 놀이 문화가 빨리 적응해야, 이래야 빨리 친해지지. 놀이문화가 중요하더라고요.

F-1은 대학이 단순히 학문을 가르쳐주는 공간이 아닌,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을 맺는 방식을 연습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의 경험을 미래의 성공과 연결시키고 있다. 대학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F-5도 공감하는 점이다. F-5는 대학에서 또래 뿐 아니라 교수라는 중요한 인적 자원과도 연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F-5, 남, 24, 대2)

F-5: 학문적으로도 많이 받고,

면담자: 공부를 많이 도와주셨어?

F-5: 네.

면담자: 니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대답해주시고 이런 거? 개인 뭐 과외 시켜 주시듯이 해주신 거야?

F-5: 네.

면담자: 그리고? 교수님이 또 어떤 도움을 주셨는데?

F-5: 음 그리고 자기도, 지금 제자들 사회에 또 나가있잖아요. 사회에 나가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 은행 지점장까지 있더라고요, 막 소개시켜주시고.

면담자: 음. 인간관계도?

F-5: 네, 그니까 최소한 목적은 공부고, 공부지만 공부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냐, 물론 뭐 어디 가서 ..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를 모르고서는 학문을 가지고만 산다는 거는 틀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사람인 거지.

북한이탈 청소년 중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 사회생활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학의 의미를 강화시키며, 대학 생활 내의 생존 전략에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3) 직업능력 개발의 장

대학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이다. 직업능력 개발의 장으로 대학을 의미화 한 청소년들은 자격증을 따고,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대학 생활의 전략을 구성한다. C-5는 소위 ‘명문대’의 국문학과를 들어갔다가 1학년 때 자퇴하고 현재 전문직업기술을 배우는 3년제 대학에 재입학한 남학생이다.

(C-5, 남, 25, 대1)

1지망에 국어국문학과를 넣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것 같아요. **대도 넣고 **랑 **대랑 많이 넣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4년제라고, 이름 있는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 …자퇴하러 갔을 때 왜 가냐 하니까 저는 전문직에서 일하고 싶다. 그랬죠.

C-5는 처음 선택으로 이름 있는 대학을 선택한 만큼 학벌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지만, 현재는 전문직으로서 직업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C-5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보다 본격적이고 현실적으로 직업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다.

(C-5, 남, 25, 대1)

휴학하고 딱 1년이요. 1학년 마치고 딱 휴학을 했어요. 학교를 일년 다녔는데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다니고서는 잘 몰랐는데, 일학년 마치고서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 뭐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국문학과 나와서는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취업도 잘 안되고. 1년 동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또 북한에 있을 때 친척 분들이 삼촌이 계셨으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C-5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전문대학을 선택한 것은 흥미롭다. 보통 한국의 학벌사회에 대한 이해가 ‘명문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C-5는 졸업 후 취업에 더 중요성을 두었으며, 대학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는 만족감에 더 집중하였다.

(C-5, 남, 25, 대1)

1학년 사람들 중에 “여기 왜 왔냐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나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온 사람 많죠. 목표만 있으면 대학이 어디든 상관없죠.

C-5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전문대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대학은 직업능력 개발의 장인 것이다.

4) 또래 문화 경험의 장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대학은 또한 또래 관계를 경험하고, 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래와 함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술

을 마시고, 노는 경험은 사회의 주류문화와 공감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학의 동아리 및 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C-4, F-1, 연구원A는 또래들과 나눈 경험에 만족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C-4, 여, 25, 대2)

그냥, 부럽구나? 아무래도 사회복지 학과라 그런지, 애들이 참 순해요. 배려도 잘하고. 술은 뭐 반병정도? 친구들 만나면.. 학교에서도 술 자주 마시거든요. 동아리 끝나고도 마시러가고.

(F-1, 남, 24, 대3)

같이 당구 치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가끔 피씨방도 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술자리도 가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우리 단체들 속에서 협동해서 뭔가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물론 공부는 도서관 구석에서 시험이다 하면 시험 전 주에서 미친 듯이 하지만 놀 때만큼은 진짜.

(연구원A, 여, 21, 대1)

연구원A: 아직 선배들이랑은 못 친해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면담자: 우와 장난 아니구나.

연구원A: 대신 동기들 하고는 계속 많이 친하게..같이 맞으면서 친해지는데.

또래 문화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한 경험이 된다. 또래 문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학의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전략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회적 성취의 관문, 사회적 네트워크의 장, 직업능력개발의 장, 또래관계 형성의 장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의미화를 통해 학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취하는 전략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또래관계 문화 참여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습득 및 자기 주도적 진로결정을 통해 전공에 몰입하며, 경험과 진로를 연결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 등의 학업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탈대학생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제와 협상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배움과 길 찾기 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 경쟁문화에서 살아남기·학습·문화 자본의 부족 극복하기

(1) 버티기

북한이탈 대학생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경쟁문화는 전공 학습의 어려움, 대학문화에 대한 생소함 등으로 표현된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으로 나타난 첫 번째는 ‘버티기’이다. F-1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였고, 강의 및 학사일정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남북의 다른 시험방식인 논술 등에 대해서는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학교생활을 하려고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바로 대학에 입학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학생살을 버티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함께 했다. 한편 F-5는 하나원 퇴소 후 바로 대학진학을 한 경우로서, F-1의 걱정처럼 특별전형 수혜기준에 겨우 준하는 학업성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매우 염려하는 긴장감을 보였다.

(F-1, 24, 남, 대3)

F-1: 저는 처음에 학사경고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학교 앞에 **탑 앞에서 선서도 했어요. 우리 학교는 학교 먹으면 그래요. 아무튼 그 뒤로는 2.0 간신히 넘는 정도는 유지해요. 우리학교는 4.3점이 만점이라 2.0은 넘어야 학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강의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큼 하거든요. 근데 바로 대학 들어 온 사람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거예요.

면담자: 좀 알겠어?

F-1: 네, 그리고 학사 일정도 엄청 깊이 짜여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뒤떨어진데다가 노력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담자: 그럴 때 도움을 청한, 도움을 청한, 도움을 받은 적 있어?

F-1: 논술과 관련해서 그 어떤 체계적인 공부, 그런 것을 애들한테 물어보는 경향 많아요.

면담자: 애들이면 니네 과?

F-1: 네 과 애들. 과 동생들이나 과 친구들이나. 이젠 많이 알잖아요. 애들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쉽게 물어보고. 내가 쓴 글이라도 이거 한 번 읽어보고 괜찮냐 싶으면 애들이 지적해주지요.

면담자: 오, 니가 먼저 물어봤어? 그럼요 물어봐야죠. 아 물어봐야죠, 내가 학점, 아니 내 목숨, 아니 학점을 목숨에 비하는 건 아니지만.

(F-5, 남, 24, 대2)

면담자: 잘 나오지 않을까 너? 지난번에 잘 나왔잖아.

F-5: 아 이번에 또 잘 해야 하는데.

면담자: 불안 불안해? 지난번보다 안 된 거 같아?

F-5: 글썄요, 기준은 안 높는데, 2.5 기준인데 그래도 3점 그 정도는 돼야죠.

면담자: 그냥 너무 낮은 점수 갖고 장학금 받기에는 쪽팔려?

F-5: 네. 쪽팔려요.

면담자: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F-5: 네, 내일 결과 나오니까 기대해봐야죠.

(2) 공부 이외의 영역에서 성취하기

남한의 학교생활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하였거나, 대학입학 이전에 남한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보이지만, 생소한 전공 학습과 영어 학습, 교육 및 대학문화의 차이 등은 여전히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학업 이외의 동아리활동, 여가활동, 종교생활, 자원봉사 활동 등에 전념함으로써 대학 학교 문화와 협상을 시도한다. 특히, 대학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무엇보다도 인간애와 소속감이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는 과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자신의 취미활동(운동)에 관련된 단체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수입을 얻기도 하고 보람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하였다. F-2는 북한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남한학교생활을 하였고,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경제적인 수입 뿐 아니라, 봉사를 통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F-2, 남, 21, 대1)

제일 고마운 게 봉사하는데 가면 그 분들이 가면 알아봐요. 웃어요. 기분 좋아요. 배달을 많이 해봤구요. 그리고 요즘에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봉사하는데서 돈이 좀 들어와요. 한 달에 5만원씩 줘요. 수고한다고...

한편 24세의 남자 대학생 F-1은 앞장서서 동아리도 만들고, 과 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와 진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F-1, 남, 24, 대3)

동아리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세 명이 멤버가 세 명이었는데, 나하고 한명은 다른 친구 두 명하고 3명에서 이번에 동아리 만들었어요. 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번에 관장을 맡으면서 이번에 나가서 막 일하면서 애들 운동 시켜야 되니까 그냥 운동하게 되고 그게 운동이 한 시간이 그게 전부예요.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면...저녁에는 저녁대로 식당 어지러가지고 청소해주고 와야 하고...- 중략 -과방을 자주 가게 되니까 애들 여러 명

을 계속 보고 몇 번 반복해서 보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금세 다 친해지고 그렇게 시작한 과에서 아주 시작한 개 하나를 놓고 시작한 것도 있고 자체로 그 다음엔 또 말을,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요. 생똥맞게 내가 뭐 이렇게 반갑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좀 첩판을 깔고 들어가야 할 것은 있더라고요. 좀, 맨 처음엔 민망하더라도 얘기하면 개는 그 민망함은 내가 겪고 개는 안 겪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친구를 만들면 개도 좋고 나도 좋고.

F-8 또한 활발한 동아리 활동 등으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F-8, 남, 24, 대2)

제가 우리학교 동아리 회장이잖아요. 회원이 선후배 포함하면 100명이 넘어요. 우리 학교가 **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회장이랍니다. 사실 전 종교 없었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끔은 정말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교육자본 획득을 위한 노력

대부분의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또래 남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남한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전공에 몰입하고, 뚜렷한 학업목표 달성을 위한 매진,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전공 선택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공관련 자격증을 따는 데 특히 열성이었으며, 이는 남한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C-4, 여, 25, 대2)

취직걱정은 별로 안돼요. 일단 자격증부터 따야 되고, 사회복지사. 그거 따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C-3, 여, 21, 대2)

그런데 일단은 임용고시 보는 게 계획이고, 봐서 붙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붙으면 외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쨌든 교사긴 교사예요 대신 여기서 성공해서 가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가는 건지에 대한 문제이고,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라는 그 사범대라는 게 좀 특수하고, 지금 힘들더라도 많은걸 제가 어쨌든 그냥 결과가 중요한 것 같은.... 제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는 공부를 배우고...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면서 지금 나이를 약간 먹으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그거 때문에 약간 결과가 조금씩 중요시 되는 것 같은데, 그 돈만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저 같은 애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또 약간 없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도 많이 가르치고... 근데 이걸 뭐 제가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F-1의 경우 무연고 청소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 하였고, 북한시절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진학한 경우이다. 주위의 현실적 가치추구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차리고 전공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F-1, 남, 24, 대3)

그래가지고 그 때 사실 국사에 좀 매력을 느꼈어요. 아 국사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막 하는 것 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 국사 해야겠다 하고 3학년 때 전과 안 하고 그냥 국사학과 한 거죠. 거의 단호했어요. 의논한 사람은 몇 분 계세요 근데 국사를 하면은, 상당히 그런 애길 많이 했어요. 배움은 수업이다. 경제적으로 뭐가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없는, 가능하면 참 전부다. 가능하면, 가능하면은 전부 다 경영이나 경영 쪽으로 가라. 근데 솔직히 경영은 싫다, 내 마음이 싫으니 하라고 해도 참. 그래도 경영으로 복수까지 들을까 생각 했었어요. 경영으로. 그것도 영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돈은 벌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본 게. 북한 일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북한 현대사. 지금 뭐 학교에서 기껏해야 뭐 논문 정도만 내재적으로 다 알아본 논문 내적으로 탈북자들 만나고 직접 나온 것은 별로. 북한 경제사. 근데 북한 현대사에서 저는 경제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미친듯이 국사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는. 해 두 내가 후회하지 않으니까.

(4) 자기개발 담론의 내면화 - 적극적 자기개발

학업 및 직업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자본이 부족한 청소년들이었지만, 재복 시절부터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혹은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그밖에도 스트레스 해소방식으로서의 취미생활을 진학결정에 활용하는 등 경험을 진로로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조절 능력과 남한생활에서의 방향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시행착오에 대한 유연한 사고 등의 적극적 자기개발의 태도를 보였다.

C-2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남한의 학교생활을 경험하였는데, 5세경부터 TV수리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 관련 서적을 읽다가 대학의 전공선택도 함께 연결시키는 뚜렷한 직업정체감 형성의 자아통합 과정을 보여주었고, F-4의 경우 가정불화로 인해 탈북하였고, 남한의 학교생활 경험 없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음악 감상, 운동 등의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2-3년 정도의 남한에서의 방향시절을 당연한 과정으로 보는 유연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C-2, 여, 21, 대2)

C-2: 그때 TV 고장 났는데, 수리사가 와가지고 고쳐서 옆에 앉아가지고 되게 신기했고...그 때부터 TV랑 전자제품이랑 관심 있어서...되게 순수한 동기...TV 보면 요런 애들이 나와 가지고...책 읽고...

면담자: 그 때부터 관심을 느끼셨단..근데..그때... TV.. 북한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5살 때면. TV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C-2: 네, 야매로.

북한에 있을 때도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잘 한 거는 아닌데, 아무튼 해가지고. 그 때...토대가 안 좋아서 김일성 종합 대학을 못가고 그 때...군에서 시험을 한 번 봤거든요. 올림픽이 같은 거는...우리 군에서는 1등 했어요.

(F-4, 남, 26, 대3)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어디 사람들 없는데 가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랜다든지 아니면 정 안되면 야구방망이로 야구를 치든지. 어떻게

든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을 너무 오바하지는 않으려 해요. 기분이 좋아도 또 그 기분 때문에 오바해서 다른 사고칠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을 잘 해야죠. 근데 그게 잘 안돼요. 말은 이렇게 해도..

처음에 못한다 해도 이삼년 정도 방황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방황이라는 시기가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 같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은 결혼해서 정착한다든지..

(5) 뚜렷한 목표의식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재복 시절부터 혹은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고 나면, 뚜렷한 목표의식에 따라 계획성 있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숙도를 보여준 대학생들도 많았다. 이렇듯 자기결정에 의한 진로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연구원B, 여, 25, 대3)

면담자: 경영이나 경제는 왜 선택한 거야?

연구원 B: 솔직히 말해서 돈 벌려고요. 일단은 취업이 잘 되잖아요. 상경계열 해가지고 경제나 경영이 1순위거든요. 어디나. 저는 그거를 보고...취업을 목표로 들어갔으니까.

면담자: 그거는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 B: 저 혼자요.

(F-4, 남, 26, 대3)

저는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신학이라는 그걸 해보고 싶어서 제가 꼭 대학가면 신학을 할 수 있을 거 같았고, 한국에서 와서 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반대도 많아요. 반대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제가 그걸 안했으면, 안하면 더 후회하죠. 하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안하면 더 후회하죠.

(F-1, 남, 24, 대3)

대학에서 공부하는 걸 후회해본 적 없어요. 솔직히 내가 해외를 못 나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보건 데는 역시 대한민국은 천국이에요. 참, 어느 신

문에 중앙일보에서 뭐 탈북자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다, 한국이 천국이라는 인식을 깨리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식만 깨면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면 이만한 천국도 없어요. 남한 학생들이랑도 촛불 집회도 나가고 나가서 애들이랑 같이 시위 문화도 해보고 밤도 새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개념들이요. 어떤 남한 사회에 대해서 막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이 원해서 선택하고 뭔가 실행할 수 있고 포함 되서 얻어지는 어떤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행복을 느껴요. 그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천국이다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취업 부분이나 그런 것 다른 부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일단은 길, 이런 면에서 나는 천국이라 생각하고...

(연구원B, 여, 25, 대3)

면담자: 근데 언제쯤부터 경영학과 가야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 B: 그거는 거의 중학교 다닐 때부터. 중3때부터. 저는 경영학과 아니면 무역학과...무역 이쪽을 ..북한에서도 저는 무역학을 하고 싶어가지고..계속 그러다가. 여기도 무역학과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기 몇 개월 전에 경제학과를 알았어요. 보통 경영학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원래는 가고 싶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왔을 때부터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경영학을 넣으려니까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따져봤어요.

(연구원A, 여, 21, 대1)

체육관련 쪽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또 선생님 임용고시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갔고요. 아직 생각이 없어요. 3,4학년 되면...그런데 우리학과가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임용고시를. 그 때 되면 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운동 처방사...(면담자) 아직 1학년이잖아요. 남쪽에서 쪽 자라서 큰 애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C-5, 남, 25, 대1)

저는 기공소 차리고 싶어요. 국시 보면 기공소 차릴 수 있거든요. 한 10년 있으면 차릴 수 있겠죠. 솔직히 다 욕심은 있잖아요. 가능하면 대한민국 잘 사는 사람들,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만큼 벌고 싶죠.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6) 전략적 사고로서의 대학과 전공 선택

또한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단순히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도 서열화 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름의 전략을 세워 소위 ‘이름 있는 대학’에 맞춰 자신의 진학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C-3, 여, 21, 대2)

면담자: C-3씨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다른 친구들하고, 굉장히 독특한 전공이잖아요, 국어교육학과면은 다른 친구들이 잘 선택 안 하는 과 선택한 이유 같은 게 있을 거?

C-3: 일단은 급하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저보다 두 살이 어린 애들이랑 다니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만 두기를..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만 두고 6개월을 쉬어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다 따져서. 이때 그만 두어야겠다. 이 때 그만두지 않으면 이 시기를 넘기고 이제 1년 넘으면 어차피 그 때가서 한다고 해도 1년이나 6년이나 뚫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따라잡자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일단 원래 목표가 그거였어요. 검정고시 반이 4월에 치고, 합격하니까 8월에 바로 또 합격을 해야 그 해에 바로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일단 그걸로 다 했어요. 합격하니까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퇴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 상담을 해주시는 분 없었거니와, 다른 데에 가도 어떤 대학을 가고, 동기 부여를 해주는 선생님도 없었고, 집안에서 그런 거를 의논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아는 대학이 없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어떤 대학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 순위를 그냥 쳤어요. 그건 그냥 대학 100까지 죽 나와요. 거기에서 한 20컷만 잘라서...왜냐면 20컷만 인 서울이거든요. 그 외로 나가면 인 서울이 아니라 좀 인 천이나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20컷으로 잘라보고, 그다음에 다... 한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를 째 뒤졌어요.

(연구원B, 여, 25, 대3)

면담자: 근데 언제쯤부터 경영학과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 B: 그거는 거의 중학교 다닐 때부터. 중3때부터. 저는 경영학과 아니

면 무역학과...무역 이쪽을 ..북한에서도 저는 무역학을 하고 싶어가지고..계속 그러다가. 여기도 무역학과가 있더라고요. **대에. 그런데 서창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포기하고 경영학을 가고 싶었는데.

(C-2, 남, 21, 대1)

C-2: 저는 남한에 딱 발 들여 놓자 부터 **대 꼭 가야겠다 결심을...

(7) 적극적 자세와 진취적인 도전의식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진학을 하든 남한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적이고 성실한 태도, 강한 생활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었고,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전공에 몰입하고 진로에 충실하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강한 진취성을 보였다. 특히, C-3의 경우 유치원졸업 후 남한에서 초, 중, 고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진학한 경우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때도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또래 남한아이들과는 달리 당구장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기름때를 치우는 등의 강인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고, C-1의 경우 지방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 후 일반편입으로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수학경시대회에서 2등을 하는 등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재학기간 이미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등의 보다 높은 도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C-3, 여, 21세, 대2)

C-3: 좀 나이도 어리고, 사실 여자고, 잘 안 받아줘요. 당구장에서. 왜냐면 힘이 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름 같은 것도 이따 만한 거 그..다 해야 하고, 대걸레질도 다 해야 하고...그리고 다이 닦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만 쓰는데, 한 번 닦아 보라고 했는데.

면답자: 잘 해, 너무 잘 해?

C-3: 콜라병으로 막 열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런 거 잘 못 연대요. 그래서 푹 뚫었는데 따니까, 해도 되겠다. 너 해라 그래서. 당구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 달 딱 끝나면 사장님이 보너스 3~4만원. 나중에 일 다 끝나고...일 년 일하고 나중에 우울해서 사장님 찾아가면 사장님 막 밥도 해주시고, 설날 되면 이렇게 설날 음식 떡 집에 있는 거 이만큼 싸와서..제가 말했

있거든요, 북한에서 왔다고. 니네.. 친척도 없을 텐데 설날이고 이런 때 더 외롭지 않냐. 설날 음식도 한가득 싸서 주시고, 나중에도 가면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아...죄송해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용돈까지 주시니까~

(C-1, 남, 27, 대3)

막 혼자 공부하고 했는데, 여기서 영어 토익 시험 제출해야하고 이래가지고 토익 시험을 보고....저는 1학년 때부터 토목과를 다녀가지고...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는데, 제가 건축업으로 간다니까 아버지가 이제 경기가 주로 안된다, 토목 쪽을 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수학과 아니고, 응용구조 역학인데 여기는 일단 하니까 재밌고...해가지고 연세대학교 편입시험을 쳤어요... 경쟁률이 조금 높아도...뭐..일단 지방에서는 제가 혼자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 7명 뽑았는데, 60몇 명인가 마지막 1차에 붙어가지고 뽑아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연세대학교 붙으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라고 다니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 ~할 게 없다고. 가서 더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요번에 뭐 큰 그런 건 아닌데, 삼성에서 이래가지고...수학 경시대회 해가지고 그런데서 한 2등하고. 제가 취업이 목적이니까 삼성 같은데 가산점이 10% 있으니까 삼성을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한 번 고시 한 번 해보려고...

2) 정보에서의 배제와 협상하기

(1)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 수용

진로정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신에게 의지가 되는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주로 부모와 가족, 교사들이었고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경찰, 학교교수, 선배)를 목적에 맞게끔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하였다.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니는 이유에서도 주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을 통해 국가의 등록금 지원을 받아 대학에 진학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당수가 중도에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럼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일단 휴학을 하면 다시 복학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휴학에 대해 주변에서 적극 만류하는 등의 이유로 휴학의 강한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4, 여, 25, 대2)

아빠가 너는 사회복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00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많이 뭐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학과 때때..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근데 아빠가 그냥 너는 사회복지 해. 근데 잘 들어간 거 같아요.

(C-2, 남, 21, 대1)

근처에 **중학교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아빠가 와가지고 서울에 이사해가지고...서울에서 ** 중학교. 아까 같이...거기 다니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아빠가 갑자기..그 때 애들하고... 저희 동네에 또 애들이 많거든요. 같은 동포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놀다가...아빠가 갑자기 와가지고 기대 엄청 크셔가지고, 와가지고..따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딱 자퇴하고...그 다음에 **학교 들어갔어요. 검정고시 준비해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준비 또 1년 동안 공부도 하고, 그래서 **대 기회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F-1, 남, 24, 대3)

무슨 진로를 결정할 때는 우리 형이 가장 우선 첫 번째 일 순위.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어떤 선생님이나에 따라, 또 마냥 내가 대학원까지 가려고 생각했다 분명 그게 지식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사회 단체 쪽이나 뭐 *****이나 그런 쪽이나 *****. 그런 데서. 대부분은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학교 교수님들이나 선배들. 선배들한테 묻지요. 그다음에 내가 취업하는 문제나, 아니 취업하는 거. 말고 집 옮기는 문제나 그런 것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 그거 경찰은 서장도 아니니까, 서장은 경찰 서장도 가끔 단독으로 가서 만나고 그런 사이니까. 서장도 만나고 담당 보안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아까 형이 가장 우선시 되고.

3학년 올라오기 전에도 휴학을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땐 영어가 하도 안 돼서. 영어가 화가 나서 내가 1년 동안 호주 간다. 비자까지 다 떴어요. 멍

30만원 비자 값만 날려 먹고, 주위에서 하도 말려서. 여기 00에 있는 형도 그랬고, 여기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기초가 없으면 호주가 가도, 설사 영어권 들어가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1년 안에 다 배운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체계적으로, 그 사이에 니가 일을 해서 학원을 다녀라. 현실적으로 니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 가면은 영어의 어떤 향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더라고 요. 각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야, 이번엔 내가 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접었죠..

(2) 현실적인 진로정체성에 대한 자기이해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입국 이후 흥미와 적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이러한 자기이해는 보다 현실적인 진로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F-1의 경우 무연고 청소년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한 흥미가 남한의 대학생활에서 교육경험을 가진 후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발견하고 선택해 나가고 있었다. 연구원 B의 경우에도 자신의 막연한 동경과 환상으로서의 간호학, 신문방송학과 선택 이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직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F-1, 남, 24, 대3)

처음엔 그랬었어요. 국문학 공부해야지. 2학년까지. 그러곤 국사학과 과방에 당연히 못 들어가죠. 어색하니까. 근데 그런 국문학만을 하겠다고 고집 쓰고 글을 쓰고 그런 생각이 국사학 수업을 딱 듣고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까지 국문학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국사학 수업을 한 번 딱 들었어요 2학년 2학기 때 아니 1학년 2학기 때. 2학년까지도 물론 국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딱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 때는 좋다는 느낌 많이 못 들었는데 2학년 올라오면서 전공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점수가 뭐 1,2,3,4로 나뉘어서 전공 선택하는데 국문학, 역사학, 철학까지. 거기서 점수가 밀려서 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사 들어왔지만 전과하겠다. 그래서 전부, 2학년 1학기 때도 전부 국문학 수업만 들었어요. 그 중에 국사학과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대사였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알아서 이

야기를 듣는 것 같아. 거기다가 한국근현대사라고 해서 현대사를 하나 하시는데 2학년 2학기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막 논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연구원B, 여, 25, 대3)

내가 너무 간호학을 쉽게 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걸만 보고 치녀 때 직업이 매력적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사람을 살린다는 자부심 있는데. 내가 한국을 너무 환상을 가졌던 것처럼 간호학에 대한 환상이 있었구나, 그걸 또 깨닫고. 나의 적성,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해서 신방학을 생각했어요. 영화 쪽 그런데도 관심 있고 광고홍보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신방과라니까 사람들은 신문기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정녕 그것도 안 된단 말인가. 생각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제 별명이 초딩이 되면서 초딩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아 이거다 내 성격이랑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무서워했어요. 선생님 말이면 북한 애들은 선생님을 되게 무서워하니까 이미지가 있어서 나는 커서 선생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겠다 그래서 의사도 싫어하고 의사도 선생님이니까 의사도 하지 말아야지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참 나랑 잘 어울린다고 깨달았어요.

3)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1) 정체성 숨기기

탈북과정의 다양한 경험들은 청소년기에서 바로 성인기로 접어들었다고 느낄 정도의 조숙한 태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조숙한 행동방식은 대학의 교수와 동료의 느낌을 주게 하였으며, 이들은 특별히 탈북청소년이라는 신분을 노출하기보다는 남한의 또래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F-8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북한 무연고 청소년으로서 탈북과정 꽃제비생활을 하였고, 남한입국 후 중학교졸업 후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다. 이러한 배경은 재북 시절 의료계 종사자였던 어머니와 남한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별다른 탈북과정에 대한 외상(trauma)의 기억을 지니

고 있지 않는 C-3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라는 정체성 이면에 자신의 힘든 역경을 노출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기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3, 여, 21, 대2)

면담자: 그럼 공부를 같이 할 때 친구들이 있다거나, 친한 교수님이 있다거나, 그런 교수님이 있나요?

C-3: 방학할 때까지, 교수님이 모르시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이 계신데 안 찾아가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상담신청해서 갔더니, 말하고 나서야 아시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다고, 일단 열심히 하라고 그 말 밖에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남들 하나할 때 두개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 말은 다 알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어요.

면담자: 그럼 교수님은 북한에서 온 거 아시는 거네요?

C-3: 담당 교수만.

면담자: 그럼 뭐 숙제를 줄여주거나 이런 건 없네요?

C-3: 네.

(F-8, 남, 24, 대2)

우리 학교에 탈북자는 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몇 명밖에 없어요. 아주 친한 애들. 그리고 우리 동아리 담당하는 교무님 정도? 그 외에 교수님들도 제가 북한 애라는 거 모를거예요. 괜히 말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말 안 해요. 여자 친구도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정말 고민이 돼요. 그 애는 나한테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무언가를 하나 가슴 속에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불편하기는 한데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2) 제한된 사람/공간에서만 전략적으로 공개하기

F-7은 남한입국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F-7의 경우 탈북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굳이 다른 남한대학생과 구분 짓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었다.

(F-7, 남, 23, 대3)

저도 뭐... 일부러 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죠. 우리 학교에는 북한 출신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어울리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반반이에요. 과에서 친한 애들도 있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튼 교수님한테도 일부러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3) 북한이탈주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일부 탈북 대학생의 경우,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신분을 숨기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체성 드러내기를 통해 탈북 청소년이라는 또래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교육의 도움을 받거나 친분관계를 맺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26세의 남학생 F-4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F-4, 남, 26, 대3)

면담자: 학교에서는 니가 다 새터민이라는 거 알잖아. 니가 첨부터 얘기한 거지?

F-4: 그렇죠. 저는 편하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말씀해주셨고.

면담자: 오 되게 오픈, 니가 되게 개방적이다.

F-4: 상당히 개방적이지요

면담자: 그게 어땠어? 도움이 됐어?

F-4: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놓쳤던 것. 한두 개 과목 시험 준비하다보면 치우쳐서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도움이 돼요. 애들한테 그, 그 한 것 좀 줘봐. 수업 시간에 한 것들 다 정리 놓친 것들. 그런 것 정리한 게 있잖아요. 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빌려줄 애들 많아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 정도를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술 먹고 싶다고 하면 술 먹으러 나오는.

면담자: 아, 개네들이 니가 북에서 왔다는 걸 다 알아?

F-4: 예, 다 알죠.

면담자: 다 알아? 니 과에선 다 아는 거니. 니가 얘기한 거니?

F-4: 네.

면담자: 친해지고 나서?

F-4: 친해지고 나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야 내가 원래 탈북자다. 넘어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다. 그러니까 ‘그랬었냐?’(웃음)

24세의 여자 대학생 F-6과 25세의 남자 대학생 F-3도 출신배경을 공개하고 부딪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은 남한 학생들의 문제임을 간파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F-6, 여, 24, 대2)

면담자: 그 멤버가 몇 명 정도 돼?

F-6: 그 멤버가 네 명이었어요 한명은 휴학하고 세 명으로 줄어서

면담자: 그러면 나이는?

F-6: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은 언니 있고 나보다 두 살 어린애도 있고 근데 애들이 너무 요새 애들 보니까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중략-

F-6: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면담자: 근데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

F-6: 그냥 내가 공개하고 그렇게 알고 친해지려면 친해지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 그래 잘했다. (웃음)

면담자: 감추고 사는 애들도 있어 아직도.

F-3: 감추지 말아야죠.

면담자: 근데 그게 쉽지 않나봐.

F-3: 제가 근데 아니 나 황해도서 왔는데 어떡해.

면담자: 근데 편견이라는 게 아직도 있잖아.

F-3: 아니 그런 편견을 다 무시해요

면담자: 그걸 힘들어하는 애들은 아직도 비공개 하는 애들도 있거든

F-3: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예요. 아 그게 뭐

면담자: 감출부분은 아니라고?

F-3: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깐 저도 가끔 북에서 왔다가지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되게 불쌍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막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되게 그 사람을 무시해요 제가...

4) 자원 부족에 대한 전략

(1) 인터넷 활용

북한이탈대학생의 경우 주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남한사회에 의 진학, 아르바이트, 학과정보에 관련된 부분의 정보를 대부분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있었다.

(C-5, 남, 25, 대1)

인터넷. 처음에 학원 다닐 때 인터넷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절실 할 때 도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휴학하고 나서 안 나왔어요. 지방 가고 그래서. 연초에 가서 등록금 내야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집사님 전화하고 상황 설명했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많이 상처받았죠. 그 전에는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안 하니깐.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기억할까, 그냥 수많은 북한 사람들 중에 한명 일텐데...

아르바이트요? 계획적인 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일은 해야겠는데 받아주는 데는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아르바이트 천국 사이트. 알바 누리. 잡 코리아...

(C-3, 여, 21, 대2)

합격하니깐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퇴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 상담을 해주시는 분 없었거니와, 다른 데에 가도 어떤 대학을 가고, 동기 부여를 해주는 선생님도 없었고, 집안에서 그런 거를 의논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아는 대학이 없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어떤 대학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 순위를 그냥 쳤어요. 그건 그냥 대학 100까지 죽 나와요. 거기에서 한 20컷만 잘라서...왜냐면 20컷만 인 서울이거든요. 그 외로 나가면 인 서울이 아니라 좀 인천이나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20컷으로 잘라보고, 그다음에 다... 한 일주일 동안은 홈페이지를 싹 뒤졌어요.

(2) 적극적 사회 관계망 구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비해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형성에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남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에 잠시 흡연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과 말을 트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나 직장생활에 있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주변의 친구, 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또래관계를 잘 맺고 놀이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F-1, 남, 24, 대3)

개방적으로 과 동생들이나 과 친구들에게 쉽게 물어보고 내가 쓴 글이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괜찮냐 싶으면 애들이 지적해주지요. 개방적인 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놓쳤던 것. 한두 개 과목 시험 준비하다보면 치우쳐서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도움이 돼요. 애들한테 그, 그 한 것 좀 줘봐. 수업 시간에 한 것들 다 정리 놓친 것들. 그런 것 정리한 게 있잖아요. 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빌려줄 애들 많아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들이 많아요.

사회를 나가게 되면, 일단은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우리 동문 정도로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가끔씩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는 무지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밌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랑 있으면. 같이 당구 치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가끔 피씨방도 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술자리도 가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우리 단체들 속에서 협동해서 뭔가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물론 공부도 도서관 구석에서 시험이다 하면 시험 전 주에서 미친 듯이 하지만 놀 때만큼은 진짜.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 야, 야 게임방 가는데 같이 갈래? 막 이려고 전화가 와요. 내가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까. - 중략 - 그럼 여하튼 그런 관계라는 게 술 먹고. 술마실래요 형? 이려고 근데 대부분 술자리는 내가 많이 피하니까. 그런 관계라는 게, 그런 게 되게 우리 서로 부담감이나 상대방에 대

한 이해도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학교에서의 후배들하고 잘 지내고, 동기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 것이 회사에 들어가고 동료랑 그렇고, 원래 회사라는 게 뒷사람이 많이 시키고 그런 게, 회사의 기본적인 성격이니까 그래도 또 그런 거 적응 못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물론 그 일 말고도 할 건 있지만 그런 것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그만큼 잘 해야지.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진짜 학교생활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긴 하지만 가끔 가장 노는 게, 놀이 문화가 빨리 적응해야, 이래야 빨리 친해지지. 놀이문화가 중요하더라고요.

(C-3, 여, 21세, 대2)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른 사람들 보편은 “가만히 있지 말라, 돈 받고 싶으면 니가 걸어라, 뛰어라. 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도움을 줄 거라고만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도 미친듯이 다녔고 한누리도 생기자마자 갔고, 여명학교도 생기자마자 갔고, 다 기초에 생기자마자 갔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선생님 밖에 없는 거예요.

(F-4, 남, 26, 대3)

지지해주는 사람이요? 그건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지지해주고요. 지금 하는 일에서 담임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은 아니고 예전에 영남에 있던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학교도 많이 추천해줬고 검정고시 다닐 때나 학원 다닐 때 알아봐주시고 사모님도 도와 주셨죠. 지금도 보면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3) 탈북자 정체성의 활용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대학생에서의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보하기도 하였지만, C-1의 경우 남한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고 관심을 받음으로서, 그 집단의 구심점이 되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학교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F-4의 경우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구직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F-4, 남, 26, 대3)

F-4: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항상 모임장소 가면 제가 리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리드를 하면 제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모임을 가졌을 때 보면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 군대 이야기.

면담자: 니가 제일 분위기를 리드해?

F-4: 제가 주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깐 내가 리드하는데 있어서 힘든 거는 있지만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재밌어요. 학교생활도 그렇게 재밌어요.

(C-1, 남, 27, 대3)

옆에 공단이 있었어요. 공단이 있어가지고 일하겠다고. **쌤에게 전화해서 일하겠다고. 나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해, 국회에서도 하나원 와가지고 날 보고 국회의원이 일할 데 없으면 내가 일자리 알려줄 테니까 이러면서 명함도 주시고...

(4) 역할모델 설정해서 따라 하기

역할모델링의 대상자들은 자원봉사 대학생, 담당교사 등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직업을 동경하고 목표로 삼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보여주는 애정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원B, 여, 25, 대3)

면담자: 근데 **대를 가고 싶다는 거는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연구원B: 일단은 **대를 제가 남한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 오빠, 언니를 보면서, 학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디학교, 어디과다..

(C-3, 여, 21세, 대2)

C-3: 아, **대 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 가가지고. 그냥 일단은 사범 대라는 그런...선생님들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면담자: 선생님이란 직업이 좋은 직업이구나 이런 거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C-3: 아무래도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선생님 밖에 없었으니까. 하나원에 다 선생님이었고, 하나원 나와서도 다 선생님이었고, 학교 가서 다 선생님이었

고. 저는 선생님들과만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중략 --선생님들한테만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쭉 내 스타일이었어요. 과격하고, 카리스마 있고, 몽둥이도 이렇게 굵직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웃고, 잘해주고... 극과 극.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략--선생님들이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서포트를 해주시고, 너 받아야한다, 내 체면이 달린 문제다 이러니까 선생님한테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실망시켜 드릴까봐 했는데, 기말고사가 오히려 오른 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잘했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5) 대학생활과 일 경험

그 밖에서도 대학생활에서는 자본주의 개념 습득의 장으로서의 일 경험,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적극적 경험과 의미화, 성장의 계기로 내면화, 도전 의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자본주의 개념 습득의 장으로서 일 경험

너무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득에만 밝은 다른 북한이탈 또래들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일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지만 경제관념이 없어 실패하는 것, 부정적인 태도로 직장생활을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C-1, 남, 27, 대3)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취업 안 돼 가지고 월급이 또 적어가지고 제가 하나원에 처음에 있었는데, 나오면서 아는 애가 있었어요.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제가 다 바꾸고, 이메일로 내가 지금 보험 드는 데 10만원을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미납하게 10만원만 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 드리니까 아버지가 넌 편하잖아, 줘라.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근데 또 전화 오니까 제가 ~ 해 는 상태인데, 그 애랑 제가 이번에 국정원 가보니까, 2월 달엔가 가보니까, 국정원에서도 조사 해보니까 탈북자들이 뭐 취업이 돈이 적다고 솔직히 돈이 적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돈이 적어가지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취급한다. 뭐 이러는데 저는 동감 반 반감 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대학교까지 간 자들이 있는데, 온 지 2~3년 돼가지고 제가 사장이라도 안 받겠어요. 그럴 라면 어렵지만, 지가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붙어야죠. 조금 일하면 처음에는 적게 받아가지고, 일하다가도 동정~~ 같은 거 받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반감적으로 나오니까....그게 오히려 잘하는 애들까지도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고 북한사람들 다 이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니깐, 그거에 대해서는 대학 가서 애들보고 북한사람들한테 다 너무 반감을 가지지 마라. 솔직히 그거 다 한 두 명이 이렇게 하지 누가 다 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 드리곤 하는데..

(2)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적극적 경험과 의미화, 성장의 계기로 내면화
 대학생활 기간 아르바이트는 흔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들은 남한 또래에 비해서 치열하게 몰입하고 있었고, 남한생활 체험 혹은 대인관계 학습 등의 성장의 계기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직업의 세계에 진출하였다가 포기하는 경우, 노동현장에서 보여주는 비인간적 관계와 임금 체불이라는 불신기제로 흡수하였고, 이는 남한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도구로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C-5, 남, 25, 대1)

근데 솔직히 제가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운전면허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 다닐 때 한 달 동안 다녀서 따고. 처음에 운전면허 따면 굉장히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택배 일을 좀 했어요. KGB택배라고. 사장이 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북한에서 온 거 알고 굉장히 골려먹으려고 하구요. 한 달 만인가 나왔어요. 택배 일해서 그래도 길은 많이 익혔어요. 그 담엔 강남 같은데 대리운전 회사 가입해서 좀 하고. 사고 안 내고 집에 데려다 주면 되니까. 집에 올 때는 월계동 오는 거 타고 오고. 대리 운전 서툰도 있어요. 그것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 담엔 인테리어 회사 다녔어요. 한 달 정도 보 조 했어요.

(F-1, 남, 24, 대3)

마음적으로 불안하면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하면은 조금 더

아르바이트로 떼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쁜 게 많았고 힘들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건 다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 바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지금 이런 경우를 미리 알았더라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60만원씩 받으면서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 했었잖아요, 월. 그렇게 일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와서 아 내가 속았구나, 나중에 내가 왜 속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돈이랑 그런 것이 쓰기 아까운지도 알았고. 참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 거는 사회 살아가는 데 분명히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경험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F-4, 남, 26, 대3)

제가 종교단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신학교는 동아리가 종교단체예요. 똑같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거는 종교단체고 안에서 하는 거는 동아리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교회에서 돈도 나오고 하니깐.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는 낫죠.

(F-5, 남, 24, 대2)

F-5: 그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막장 같은 데, 그 때는 그 벼룩시장을 보고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인센티브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돈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 하면, 정기적인 일, 그런 쪽으로 일을 했을 거 같아요. 내가 그런 회사원으로서, 정기적인 근로자로서 일을 했을 거 같아요. 그걸 처음에 왔을 때 잘 몰라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었지만, 사회를 빨리 알고 터득하고 나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서는 지금 억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산발적으로 한 것 보다는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면답자: 어떻게든, 일용직으로 일하던 정규직 회사원으로 일하던 남한 사회를 배우는 건 똑같잖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지?

F-5: 비정규직은 뭐가 문제냐면, 금전적인 문제인데, 금전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한 것만큼 보수를 받아야 하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일 하면서 제때에 급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비정규직 같은 것이 그런 건 기업체가

아니라 자산기업이잖아요. 장사가 잘 되어 돈을 주겠다 이런 괴리가 발생하
 잖아요. 나로서는 조금 황당한 게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데 두 달 석 달 정도 걸리고, 사람에 대한 신용이라는 것도 그런 데에서 나오
 는 건데, 한참 잘 해주다가도 장사 안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
 면 사회가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를 싫어한다는 것이 사회 전체라는
 큰 것이 아니라 관계 관계에서 괴리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나의 삶이, 그런 괴리가, 근데 또 좋은 경험이 있긴 있지만 사회를 좀 제대로
 된 정기적인 데에서 일을 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F-6, 여, 24, 대2)

F-6: 한식집에서 토요일하고 하루할 때 일당 오만 원씩 받고 그러고 방학기
 간에 한 달 반 정도 하고 또 한식집에서 일했고 작년 여름에는 알바안하고
 그냥 공부했고 겨울에 했고.

면답자: 아르바이트 하면 학교생활에 도움이되?

F-6: 학교생활에는 뭐 금전적인 도움이야 되겠죠. 인간관계나 그런 거는 어떻
 게 해야 되겠다는 거도 좀 알게 되겠죠.

(3) 경계를 뛰어넘어 상상하기/도전의식

그 이외에도 경계를 뛰어넘는 힘든 돌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의연함을 보여주었고, 1차적인 진로목표가 달성되더라도 현실에 안
 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강한 의지력을 보여주었다.

(F-4, 남, 26, 대3)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음.. 제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해도 별로. 없는 거만큼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는데 다시
 도전하면 되지 그런 강한 먼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강한 먼들이 좋아요.

(C-1, 남, 27, 대3)

막 혼자 공부하고 했는데, 여기서 영어 토익 시험 제출해야하고 이래가지고
 토익 시험을 보고....저는 1학년 때부터 토목과를 다녀가지고...아버지가 건축
 업을 하셨는데, 제가 건축업으로 간다니까 아버지가 이제 경기가 주로 안된

다, 토목 쪽을 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수학도 아니고, 응용구조 역학인데 여기는 일단 하니까 재밌고...해가지고 **대학교 편입시험을 쳤어요... 경쟁률이 조금 높아도...뭐..일단 지방에서는 제가 혼자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 7명 뽑았는데, 60몇 명인가 마지막 1차에 붙어가지고 뽑아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대학교 붙으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리고 다니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 자랑할 게 없다고. 가서 더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번에 뭐 큰 그런 건 아닌데, 삼성에서 이래가지고...수학 경시대회 해가지고 그런데서 한 2등하고. 제가 취업이 목적이니까 삼성 같은데 가산점이 10% 있으니까 삼성을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한 번 고시 한 번 해보려고...

VII. 북한이탈 청소년이 바라본 한국사회

1. 성적위주의 학교문화
2.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지원 방식과 제도
3. 배타적이며 닫혀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4. “정”이 없는 사회
5. 남한사회 청소년들의 이기주의/가정교육
6.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결핍 혹은 미성숙
7. 폭력적인 학교 문화
8. 중심과 주변의 서열적인 이분화

VII. 북한이탈 청소년이 바라본 한국사회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배제와 대응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학교문화와 한국사회의 모습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사유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들려주는 한국사회와 학교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은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현주소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앞서 밝힌 것처럼,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경계인의 시선에서 제시함으로써 학교를 비롯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문화, 이주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들의 담론은 지구화와 다문화 시대 보다 열린 시스템으로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제도시스템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포용할 사회적, 제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성적위주의 학교문화

나름대로 학교 적응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에도 입시위주나 성적 중심의 학교문화는 이들에게 제일 낯설고 힘겨운 학교 문화였다. 영어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D-3, 남, 16, 중2)

2학년 돼서 공부하나도 안했는데 올랐어요. 짝했어요. 근데 영어요 12점 맞았는데 맞았어요. 틀린 갯수만큼 왜 때리냐고 공부 못하는 게 죄냐고 하니까 죄래요

(연구원B, 여, 25, 대3)

영어해야 돼, 영어 하나만 잘 하면 돼.

(E-2, 남, 19, 고1)

학교가도 스트레스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공부 못하고 시험 끝나면 또 맞을 걱정 스트레스 아..

남한에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지만 성적 때문에 체벌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학습 능력의 부족이나 결핍이라는 인식을 넘어 “죄”로 인지되는 한국사회의 성적중심문화를 간파하고 있다.

2.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지원방식과 태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태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혜적인 태도에 의해 행해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과정에서 자존감에 대한 나름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E-4, 남, 19, 고1)

그니까 그냥 선생님들은 도와주는 쪽으로는 하시는데요, 도와준다고는 해도 그게 티내지 않게 그냥 티내지 않게 도와주고, 뭐 시킬 때도 그냥 나는 이래서 적게 하고 너희는 원래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이런 거 없이 평범하게만 해주었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니까 너만 적게 해주고 다른 애들은 다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저는 솔직히 좋잖아요. 좋은데,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싫어하는 것 같아요.

(D-7, 여, 17, 중3)

그냥 같은.... 똑같이 취급했으면....

아이들의 이러한 언설은 한국사회에서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것에 고마운 마음도 느끼고 자신이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주는 방식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3. 배타적이며 닫혀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동질성과 배타성이 강한 한국사회의 풍경 역시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끼리끼리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론적으로 “열린사회”처럼 보이는 한국사회가 실제로 몹시 닫혀있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원B, 여, 25, 대3)

저는 한국 애들 일단 특징이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발달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그 끼리 문화에. 내가 이렇게 끼리가 있는데 요. 사람만 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전부에게 호감을 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 문화가 너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타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마음을 쉽게 안 연다는 거, 말하는 거랑 진짜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 고거는 좀 우리랑 너무 다른 거 같더라고요.

(C-2, 남, 21, 대1)

공대라서 단합이 잘 되는데, 그나마 공대라서 단합이 잘되는데 그래도 서로 끼리끼리...

한국사회에 되도록 빨리 적응해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큰 아이들이 느끼는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자유롭고 열린사회를 기대했던 것만큼 매우 당황스러운 한국사회의 문화중의 하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정” 이 없는 사회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역설적이게도 공동체 의식은 결여된 “정”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바라본 한국사회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중적이고 집단적인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공동체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한다.

(F-6, 여, 24, 대2)

정이 없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친구들하고 얘기해도 공허한 게 있고...

(F-4, 남, 26, 대3)

우리 한국에는 사람의 정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이 인격이 메말랐어요. 정이 메말라버렸어요.

메말라버렸어요. 북한에 어려움에 식량문제라든지. 그렇지만 그런 게 그나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여러모로 일에 부딪혀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시간도 핑크를 잘 내요.

5. 남한사회 청소년들의 이기주의/가정교육

남한 학생들의 “예의 없음”이나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문화도 이들에게 주요하게 포착된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다. 부모님과 교수님에 대한 “예의 없음”이나 한국학생들의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들도 이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이기적인 태도들로 인식되고 있다.

(C-2, 남, 21, 대1)

그거, 학생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교수님 앞에서 ~~에 대해서 논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서 자기들이 1등 했다고 자부하는 애들이 많아서요. 특히 그게 법대에서 심하다고 하는 데 교수님이 화나가지고요. 니네 다 드롭해버리라고 최고점수 c 줄 때니깐 다 드롭하라고 애들이 다 교만할 때 단합이 안 돼 .

(연구원B, 여, 25, 대3/ C-1, 남, 27, 대3)

연구원B: 여기 애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세대일수록 어른을 공경하는 게 정말 부족해요. 자기 밖에 모르거든요. 집에서도 봤는데...

G-1: 가정교육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연구원B: 진짜 애들 가르치면서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너무 진짜 자기 밖에 몰라요. 개들이 악한 게 아니라 정말 착한 앤데 부모님이 머 먹으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다 먹어, 먹으란 말도 없이. 그러니까 없어. 그런다니까요. 하나같더라구요. 남자 여자 다. 부모 교육을 못 해.

(E-2, 남, 19, 고1)

말버릇이 너무 나빠요. 나빠도 너무 나빠요. 부모님한테 욕하는 거요.

(F-8, 남, 24, 대2)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싸가지 없는 거 같아요. 특히 선생님이나 어른한테 하는 거 보면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좀 그래요. 물론 제가 본 애들이 좀 유별난 건지 모르겠지만 욕도 진짜 많이 하고.

6.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결핍 혹은 미성숙

물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 오히려 여유가 없고 결핍되어 있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F-3, 남, 25, 대2)

저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풍족하고 그래서 어려운거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가보다는 경험해보지 못했죠. 이런 모르는 애들이 외국에 한번하고 그러면 경험이라도 하면 되요. 다 알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건데 좀 좁게 산다는 거 같아요.

응. 고통도 잘 모르고 고통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 모르고. 그런 거죠

7. 폭력적인 학교 문화

정규학교에서의 육체적/정신적 체벌과 폭력, 그리고 거친 언어들은 북한 아이들에게 낯설고 힘겨운 경험임을 보여준다. 성적으로 인한 체벌은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든 한국사회의 풍경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체벌을 경험하지(혹은 기억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모순과 분노, 경멸로 다가오기도 한다.

(D-3, 남, 16, 중2)

여자 반에 들어가도 막 때려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도둑으로 몰고요 싸대기 막 때리고요 막 밟아요. 막 현화중에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자 있는데요. 7반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는데 걸렸어요. 바로 씨 여자 두 명인데 한명 안경 쥘는데요. 안경 벗으라 하고요. 싸대기 줄라 후려치고 교무실 내려갔는데 옆 드러뻐쳐하고...

들어갔는데 도둑으로 오해받고 말하려고 했는데요. 아가리 안 다물어 하는 거예요

(E-5, 남, 25, 고3)

너 저 앞에 나가 서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매점으로 달아났었거든요.(웃음) 저 쪽에 갔는데 날보고 학생과 오래요. 그래서 학생과 갔는데 얼굴 막 때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인간적으로 조용히 끝냅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자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가자는 데로 갔는데 선생님이 ‘무릎 꿇어!’하면서 얼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맞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러시냐고, 너무 껄뻘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어요.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무릎 꿇으려면 꿇어야 돼’ 난 이렇게 못한다고, 문을 꽂 닫고 나왔어요. 아무튼 그날에 나중에 한국지리 선생이... 그 날에 어쨌든 너무 분해가지고 매점에 가서 우는데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좀 수학 못하잖아요. 모든 과목을 하기 싫어한다기보다는 한국 애들 수준을 이해하고자 고등학교에 들어 온 거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려고 남들처럼 정규 뭐?? 딸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

고, 형이라고 애들이 따라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웬만하면 선생님한테 안 맞는 학생인데 나중에 싸웠어요. 그래서 소외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을 겪었을까.

이처럼 때론 이유도 모른 채 당해야 하는 폭력적이고 거친 학교 문화에 대한 이들의 언설은 이들의 정규학교 부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 중심과 주변의 서열적인 이분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도시/농촌, 중심/주변, 서울/비서울 간의 구분과 환경차이를 간파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한 인지는 중심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학교 보다는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일부는 한국사회의 도시/농촌, 중심/주변, 서울/비서울 간의 구분과 환경차이를 간파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지만, 또한 이러한 중심과 주변의 서열적인 이분화에 대한 간파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에 대한 진로탐색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전형의 기회를 활용하여 무조건 주류문화권 내의 상류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미분화된 진로성숙 태도를 나타내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 다니는 한 대학생의 언설은 이러한 서울중심의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대에 다니는 자신의 설움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F-8, 남, 24, 대2)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닌다하면 공부 열심히 하

는구나 하면서 지방대 다닌다 하면 좀 깔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요즘 지방대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도 학점 좀 잘 나온다 싶으면 ‘역시 지방대니까 학점 잘 주네’ 말해요. 정말 억울하고 열 받죠.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자유로운 생활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한국사회로 이주했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등을 통하여 획일적인 학교문화도 경험하고, 혈연/지연/학연에 기반을 둔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인식하게 된다. 입국이전 한국사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입국이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사막처럼 메마르고 거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인 시각도 획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시각은 우리사회를 낯설게 바라보고 보다 유연하고 열린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기도 하다.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남한의 중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다양한 구조적 제약 및 기회와 역동적으로 관계 맺고 이를 의미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청소년들의 욕구와 상황에 알맞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다. 35명의 중, 고, 대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안에서 탈피하여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과 관련 정책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2007년 4월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취학률은 각각 68.7%, 58%로 아주 낮은 편이고, 평균 탈락률은 중학생의 경우 12.9%, 고등학생의 경우 28.1%로 남한의 평균 탈락률보다 훨씬 높았다.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몇 개의 부처에서 분산되어 수립 시행되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그 체계성과 연계성 또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민간 기관 뿐 아니라 민관 사이의 연계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2)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향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북한이탈 청소년은 당사자 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35명이다. 이들은 지금 현재,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공통점만 있

을 뿐 그 이전 교육적 경로 등 개인적, 가족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진로 관련 욕구, 삶의 전략 등도 다양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위치 짓고, 주류의 문화와 다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3) 정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경험

(1) 학교는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힘든 공간이다. 이 연구에 응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다수는 학교를 학습의 장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학력취득의 장이자 사회적 네트워크 및 주류문화 습득의 장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 '체계적인 학습의 장'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학에서의 학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장이라는 의미가 컸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냥 '버티거나' 또는 다른 이슈로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나마, 학습에 열의를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배제의 요인들 때문에 - 예를 들어 경제력, 나이차이 등 -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인 학력신장을 교육과 진로지도의 목표로 하더라도, 일괄적인 입시중심 문화의 기준에 이들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다각적 현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들의 사회/학교 통합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또는 멘토역할을 하는 어른), 또래 친구, 가족 등 사회지지집단이다. 이들 지지집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이 면담자들에게 가장 많이 부탁한 사항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자신들을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에 고정시키지 말고 일반 청소년들과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남북한의 특수한 역사성과 남한사회의 현재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북한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이것이 긍정적인 연결이 아닌 것을 간과하기에 이를 거북해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맞춤형 정보 제공이나 상담제공은 원하고 있었다. 비가시성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증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4)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은 입시문화, 연령중심 문화 및 편견과 차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며, 자원동원 전략을 만들어 일상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었다.

4) 대학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전략

(1)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치열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자본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표, 글쓰기 등에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며, 마음 편하게 도움 받을 곳을 찾곤 한다. 특히, 남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 대학문화에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대학생들도 제한적 학습, 문화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려 애쓰며,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며 사회관계망 등 자원부족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3) 매우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도 역시 정보의 부족을 안타까워하였다.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5)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바라 본 한국사회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배제와 대응의 과정에서 바라 본 학교와 한국사회의 모습은, 다문화, 이주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성적위주의 학교문화', '배타적

이며 닫혀 있는 사회문화 환경', '정이 없는 사회', '남한사회 청소년들의 이기주의/가정교육',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결핍 혹은 미성숙', '폭력적인 학교문화', '중심과 주변의 서열적인 이분화' 등으로 표현되는 '경쟁적', '폐쇄적', '획일적', '폭력적'인 한국사회를 거리 두고 바라보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대화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2. 정책제언

1)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의 기본 방향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중층적이고 다양하며 사회적 이슈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사안별 대처를 하기가 쉽다.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불합리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쉽고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목표 및 원칙을 확립하고 그 위에서 세부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혜적 관점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아닌 '균등한 기회보장과 참여를 통한 주류화'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류의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목표의 수립 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수한 경험과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구성의 난이점 중 하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인지하는 남한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신 있게 출생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애쓰는 것이 어찌

면 이들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수자 대 상 반 편견, 다문화, 평화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체성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드러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공적 맥락에서의 통합과 개별적 맥락에서의 지원이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또한 장기적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태도라는 것을 잘 소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밝힐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2) 체계적, 유기적, 전문적 지원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인 위주의 정책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기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원에서의 초기정착교육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교과지도부터 진로지도까지 단계별, 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 및 프로그램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이 보다 잘 구축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분담 및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각 단계별, 영역별로 주요한 지원기관이 달라지더라도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과정이 아닌 하나의 연계된 교육/지원 과정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일관된 목표와 원칙에 기반 한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

(3)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개별화작업이 필요하다.

원칙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로드맵이 구성되면, 구체적 실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각 지역사회 및 개인의 특성에 따른 유연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학력, 입국동기, 경험 등에서 다양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책목표가 수

립되면 거기에 따른 체계적, 유기적, 전문적 지원 시스템이 각 단계별, 영역별로 실행된다하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학업수준, 잠재능력이나 자원, 심리적 취약성, 문화정체성 수준의 개인차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 지속적인 학업수행과 진로상담을 도와주는 탄력적인 모듈식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개별 학교와 민간지원 기관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때, 북한이탈 청소년의 삶의 불연속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주민/난민 청소년으로서 몇 사회의 경계를 넘으며 성장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입국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곤 한다. 이런 시행착오가 구조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되, 개별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깨지지 않을 정도의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이 장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방안

(1) 진로 정보 시스템 구축

1최동선(2007)의 조사에서와 같이 이 조사에 응한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대부분 정보원의 부족에 목말라했고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고 있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 적성검사부터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특화된 진로지원 정보망을 구축해 볼 수 있다(최동선 2007 참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e-learning 학업특성(선호학습 유형, 학습동기 유발 방식의 특성, 자기조절학습 능력증진 방식)을 반영한 온라인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준비도 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적성 및 흥미검사 등이 탑재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성공 역할모델 제시,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구하기 등을 개발하여, 이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문화자본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하나원 초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배경 및 욕구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입국초기에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국초기 거의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쳐 가는 ‘사회적응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팀이 기본적인 학습준비도와 욕구 등을 진단하여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이에 의한 진학/진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배치 후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적합성이 있는 진단도구의 개발, 진단결과 유형화에 기반 한 진로지도 모델 개발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정서적 문제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느껴서 개별학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하는 학생, 대안학교 등의 디딤돌 과정이 필요한 학생, 일반학교 편입학이 필요한 학생, 직업훈련이 필요한 학생, 실질적인 취업이 필요한 학생 등으로 그룹핑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중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가. 학습공백이 큰 학생들을 위한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백이 지나치게 커서 일반 정규학급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주류 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교육기관 및 각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한 지점이다. 미국의 이주민/난민 전환기 프로그램인 **NEW COMER PROGRAM** 등을 참고로 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시범 실시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중고등학교 취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보충학습지원망 형성과 학습지원 교사 멘토링의 확대

하나원 퇴소 후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러 모으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여러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보충

학습지원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멘토링도 효과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국에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

다. 학교 탈락자를 위한 대안적 학습/진로 지원망

학교를 중도탈락 하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실시하여 다른 계열의 학교, 민간교육기관, 취업 준비 기관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자 지원을 위한 망들도 구축해 두어야 한다.

(4) (예비)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대학진학을 지원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가. 예비대학 프로그램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입학 지원자를 위한 입학 전 대학소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정보망이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생활 및 학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및 학과 관련 정보를 미래 직업진로와의 관련성 속에서 제공하고, 가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의 수업을 미리 참관 혹은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현실적 판단과 충분한 준비 속에서 대학입학여부 및 학교,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관련단체가 주도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학교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두 번째 종류는 대학 내 상시적인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중등과정을 마치고 입국한 후 바로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역시 대학생생활에 대해 알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개별 대학에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사이버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면 학점을 일반대

학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주 청소년들의 위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나. 북한이탈대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① 학습지원 워크숍

북한이탈대학생들 중 다수는 교육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레포트 쓰는 법, PPT 프리젠테이션 등의 학교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학 내 학습지원센터 등에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북한이탈대학생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주민 자녀들이나 유학생들에게서 인기가 높은 일리노이대학의 **Writer's Workshop**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글쓰기에 실력이 있는 선배 대학원생들이 도서관의 한 부분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에 **part-time**으로 순환근무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 리포트나 논문 등에 대한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학생들 전체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특히 영어가 부족한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가면 1시간 단위로 작성한 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북한이탈대학생이 많은 서울·경기지역에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단체의 주도하에 약간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시범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전공과 대학을 결정할 때 선배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직접 경험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지지체계는 곧 대학입학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별, 학교별 북한이탈 청소년들끼리의 선후배 멘토링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 편차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멘토링 연합 등을 구성하여 열린 학습방식으로 대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구조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대학생용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북한이탈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시기에는 남한의 또래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화자본, 학업수준의 차이를 경험하고 고학년 시기에 오면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남한의 청소년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 대학생의 저학년 시기에는 대학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예비대학과 학습지원을, 고학년 시기에는 한국의 직장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모색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삶의 맥락과 한국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모색 기제 마련

다음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모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을 고려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가. 학교-가족-상담자-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진로정보망 구축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확보

특히, 북한이탈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교사, 상담교사, 부모들과의 의견 교환과 학교 밖 지역사회 연계기관이라는 제3의 공간을 통해 진로탐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서,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학교-가족-상담자-지역사회 연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진로 정보 습득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부모 참여 기회 제공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장애요인은 주로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과 자신이 욕구간의 불일치가 많았고, 진로흥미와 현실적인 능력 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학업적응 포기로 인한 취업선택, 경제적인 제약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시기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북한이탈 부모 역시 직업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

어서 부모가 함께 남한의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자녀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진로정보 탐색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진로흥미와 현실적인 능력 간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진로흥미 분야의 전문성 수준(학업수준)에 따른 단계별 직업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 교사 등 지원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신뢰관계 위에서 개개인의 처지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교원 양성 과정과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자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주제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다양한 직업종사자와의 접촉기간 증대를 통한 역할모델의 확보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선택에는 학교의 담당교사와 학습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진로역할 모델 및 직업세계 연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교사와 학습 자원봉사자 이외의 다양한 남한 직업인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ex. 1인 3색 진로 멘토 설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자수성가형의 인물이나 동료 등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공한 모습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 등을 진로 탐색 자료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진로 멘토링도 운영할 수 있다.

마. 북한이탈 청소년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흔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들은

남한 또래에 비해서 치열하게 몰입하고 있었고, 남한생활 체험 혹은 대인관계 학습 등의 성장의 계기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에도 아르바이트는 흔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들은 남한 또래에 비해서 치열하게 몰입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가치를 깨닫고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교재를 구입하거나 친구들과의 친교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부와 연계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직업흥미에 따른 직장체험(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특히, 직업경험이 다양하지 않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직업세계 이해, 직장적응 능력 증진, 경제적 관념 습득, 체험을 통한 학습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남한의 또래 청소년에 비해 강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몰입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바, 남한 기업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기업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잠재인력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자원봉사 체험의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수입을 얻기도 하고 보람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하였다. 이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의미추구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체험의 확대를 권장한다.

사. 다수자 교육 및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 및 개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남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위축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주류 구성원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면서 통합적인 질서를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키우는 평화교육, 차이를 존중하며 차별을 반대하고 평화적 공존과 소통,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수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수자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신옥(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pp.9-31.
- 강일규(200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강주원(2003). 탈북자 소수집단에 대한 남한사회의 구별 짓기.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 강효림(2008).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강희석(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 · 권혜수 · 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6(2), pp.295-308.
- 길은배(2002). 사회문화변동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 · 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우(2007).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의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이남대학교.
- 김임태(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과 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세미나 발표문.
- 김종국(2008).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하나의 문화.
- 김형태(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박사학위 논문, 송실대학교.
- 김혜경(2005). 북한이탈주민 직장 적응 인식에 대한 Q방법론 적용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 김활수(2006). 탈북 청소년의 진로 선택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목예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문경남(2007).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조와 남한정부의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명숙(2006). 탈북 청소년 학교적응교육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모형 개발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박서연(2008). “북한이주청년들의 진로 모색과정을 통해 본 생애 전략.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문화학 전공 석사 학위논문.
- 박선경(1998).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박윤숙(2006).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박윤숙 · 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pp.124-155.
- 박정란(2006).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정희(2008). 새터민 대학 입시생과 대학생의 생애사를 통한 대학생활 사전 적응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박지영(2001).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박하나(2007).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이해: 초입 중학생의 평가경험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혜정 · 최우영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2007).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보람(2008).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사회적 지지와 음주기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서장혁(2003). 탈북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장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손영지(2004).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엄경남(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유가효·방은령·한유진 (2004). 한국 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pp.185-196.
- 유지웅(200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통일문제연구 제 47호, pp.145-175
- 윤성아(2004).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실태 및 문제해결 방안.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대구: 도서출판 세명.
- 윤여상(2007). 탈북자 1만 시대를 맞으며, 민족화해 3-4월호, pp.41-45.
- 윤인진·이진복(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7집 1호: pp.41-92.
- 이금순(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기영(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pp.175-224.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pp.81- 113.
- 이수정(2005).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반차별-반 억압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08). 한국 내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정책과제. 2008 이주가정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
- 이종은(2003).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경(200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pp.203-235.
- 전연숙(2003).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4(1).
- 전익수(2001). 탈북 청소년 초기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 전효관(2000).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탈분단 시대를 열며. 조한혜정 외. 서울: 삼인.
- 정병호(2001). 탈북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병호 · 양계민 · 이향규 · 임후남 · 황순택(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서울: 경기도교육청.
- 정병호 · 정진경 · 이종태(2001). “탈북 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1-05.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수현(2002). 탈북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 정병호 · 양계민(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pp.209-239.
- 정진웅(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 정진웅(2006).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의 의미와 한계. 웰컴투 코리아. 한양대학교출판부.
- 정향진(2005). 탈북청소년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아 · 전우택(2004).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 조한범 · 이우영 · 이금순 · 전효관(2003). 북한이탈 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경자(2008). 새터민 학생의 학업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최동선 · 강일규 · 김임태(2007). 새터민청소년 진로실태 조사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최명선 · 최태산 · 강지의(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12(9), pp.23-24.
- 프리드먼 · 코마스(2000).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The Lexus and Olive Tree. 신동욱 옮김. 서울: 창해.
- 하비 · 데이빗(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박영민, 구동희 옮김.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1989).
- 하비 · 데이빗(2005). 신제국주의. 한울, 최병두 옮김. The New Imperialism (2003).
- 한만길 · 현주 · 김창환 · 오기성(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덕기(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홍순혜 · 박윤숙 · 원미순(2003).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 pp.223-240.

『경향신문』, 2008년 9월 16일자.

『경기일보』, 2007년 5월 21일자.

- Appadurai, A.(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to Press,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4.
- Bonacich, E. et al(1994). *Global Production: the Apparel Industry in the Pacific Rim*. Temple University Press.
- Macdonald, R. and Maech, J.(2005). *Disconnected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4(4), pp.373-391.
- Massey, D. S. et al.(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Clarendon Press.
- Pessar, P and Mahler, S. J.(2001).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 Analyzing Gender Across Transnational Spac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pp.441-459.
- Reich, R.(1991).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Alfred A. Knopf.
- Rutter, J.(2003). *Supporting REfugee Children in 21st Century Britain: A Compendium of Essential Information*. Stoke on Trent, UK and Sterling, USA: Trentham Books.
- Sassen, S.(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ssen, S.(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ssen, S.(1998). *Cities in World Economy*, Pine Forge Press.
- Sassen, S.(2000). *Guests and Aliens*. The New Press.

- Savelsberg, H. J. and Martin-Giles, B. M.(2008), Young People on the Margins:
Australian Studies of Social Exclusio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1.
- Scott, J.(2001). *Schools of Thought: Twenty-five Years of Interpretive Social Science*
(edited with Debra Ke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지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의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교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이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이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북십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강태중·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김지연·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혜연·김영지·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김경준·김영지·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김경준·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I
-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경성 전화 (02)503-3223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4-3(93330)